

제 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통 일 부



---

일 반 기 사



##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 7차 이산상봉 원칙 합의

## 북한 “핵은 北·美간 문제” 주장 되풀이

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28일 남북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등 북한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반영할지를 두고 막판 절충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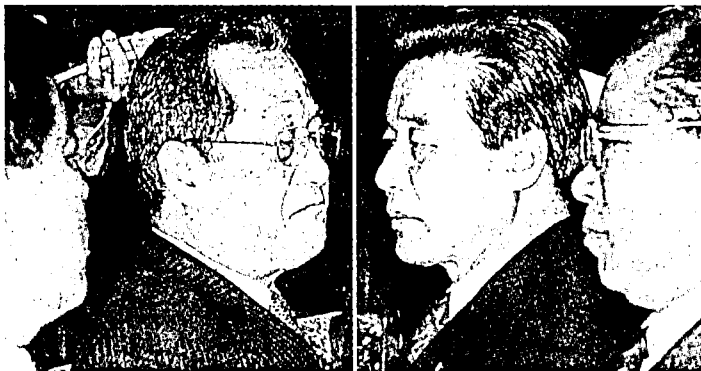
남측은 이날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에서 핵무기 보유 발언의 정확한 진상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남측은 그 발언이 사실일 경우 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특히 남측은 공동보도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지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내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어떤 형태로든지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동보도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남측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핵문제는 북·미간 논의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핵문제의 공동보도문 반영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전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회담장에서 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넣을 수 없다고 했으나 회담장 밖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8, 9차 회담 때처럼 막판에 핵문제가 공동보도문에 담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2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왼쪽)과 김령성 북측 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공동보도문에 담길 표현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은 핵문제와 달리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남측은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을 6·15 공동선언 3주년을 즈음해 갖자고 제의했고, 북측은 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원칙에는 합의했다. 또 11차 장관급회담,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성공단 착공식 등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비료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나 쌀 지원은 거론하지 않았다. 남측은 북측의 비료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

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남북은 6·15 공동선언 3주년을 즈음해 민간 차원의 통일대축전 개최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 회담관계자들은 회담기간 내내 “남측의 새 정부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다”고 불만을 내비쳐 공동보도문에 6·15 공동선언의 이행문제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남측 회담관계자는 “워낙 우리 내부의 관심이 커서 공동보도문에 담도록 노력하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의지대로 쉽게 합의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해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윤상환기자

# 北核 공동보도문에 포함

## 6·15전후 이산상봉 추진

### 남북장관급회담서 원칙 합의

정부는 28일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리측 공동보도문 초안을 북측에 제시했다. 남북 대표단은 북한 핵문제를 이번 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담는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그 수준을 놓고 밤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했다.

#### ▶관련기사 5면

남북 대표단은 이날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회담, 실무접촉을 잇따라 갖고 6·15 3주년을 즈음해 이산가족 7차 상봉과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식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11차 장관급 회담을 6월 말이나 7월초에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5차 경험추진위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이날 비료지원을 공식요청했으나 쌀 지원은 거론하지 않았다.

남측 대표단은 전체회의에서도 전날에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이를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성 내각참사는 "핵 문제는 조·미간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기본입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평양 공동취재단 이도운기자 dawn@

# 국민일보

# 6월15일께 이산가족 상봉 추진

## 남북장관회담... 경험추진위 구성등 접근 "핵 해결안되면 경험 어렵다" 北에 전달

남북한은 28일 평양에서 제10차 장관급회담 이틀째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 등을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 때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을 교환하기로 의견을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11차 장관급회담 일정과 5차 경험추진위 일정에도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남측이 제기한 북한핵 문제를 이번 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담는 것

등을 놓고 밤늦게까지 절충을 계속했다. 우리측은 보도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핵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측은 핵 문제는 북·미간 논의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원론적 입장이라면 보도문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이 회담 장에선 핵 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넣을 수 없다고 했으나 회담장 밖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8·9차 회담 때처럼

막판에 핵 문제가 보도문에 담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측이 이산가족 교류와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을 계속 추진한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핵 문제가 잘 풀릴 경우 7차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자세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추가 경험추진은 물론 쌀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측은 비료 지원은 공식요청했으나 쌀 지원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외대 고위 관계자는 "핵 문제와 협력을 직접 연계하겠다는 방침은 없지

만, 그렇다고 연관이 없을 수도 없다"면서 "기존의 경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슬로 다운(Slow Down)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회담에서 대북 비료 지원은 합의될 가능성이 크지만 쌀 지원은 핵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도 "핵 문제와 경험을 병행해서 풀어나간다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경험은 국제사회의 공동보조를 취하는 문제와 핵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경색 가능성에 대해 한 관계자는 "양측 다 대화 통로를 필요로 하는 만큼 경험이 연기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남도영 김지방기자



## 北核 사과-약속 없이 원론수준 합의

### 1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산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고위급회담인 10차 장관급 회담(4월27~30일·평양)에서 양측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인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경제협력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에서 상호 의견을 접근시켜 북핵 문제와 남북교류를 분리 대응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일시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의 틀을 복원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북핵 문제 논의에 있어서는 남북대화 채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남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 위반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남측 대표단은 북핵 문제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을 공동 보도문에 포함시키겠다'며 평양 도착 첫날부터 북측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귀한 날짜를 하루 늦춰가며 나흘간 밀고 당겼지만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데 그쳤다.

남측 대표단은 이에 대해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북핵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 표현은 지난

### “평화해결 협력” 과거회담에서 진전 없어 이산가족 상봉-스포츠 교류는 의견 접근

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내용"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8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2년 10월 평양·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이나 9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3년 1월 서울·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과 비교할 때 진전된 내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과 비료지원 요청 △6·15 민족 통

일대축전에 대한 남측 당국의 보장 △민족공조를 뜻하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재확인 및 철저한 이행 다짐 등 적지 않은 실익을 챙겼다.

이번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인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해 긴장이 조성되면 북한을 도울 수 없게 됨을 상기시키고, 대화에 의한 해결 방식을 유지하고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

### 10차 남북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 1 6·15 남북공동선언 기본정신 재확인하고 계속 철저히 이행
- 2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
- 3 6·15 민족통일대축전 잘 진행되도록 당국 보장, 정례회 지원,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 참가문제 협의, 남측이 편의 적극 보장
- 4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관광사업,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협력사업 적극 추진. 이를 위해 5차 경험추진위원회 5월19~22일 평양 개최
- 5 7차 이산가족 상봉 6·15공동선언 3주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 금강산 이산가족연회소 착공식 빠른 시일 내 개최
- 6 11차 장관급회담 7월9~12일 서울 개최

키지 말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북측 지도부에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보고 받고 "인도적인 지원 등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원시 신뢰를 지켜 우리 국민의 감정을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의미에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담문화'를 정착시켜 남북간이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동훈기자 espril@donga.com  
김정훈기자 jngohn@donga.com

# 대한매일

2003. 5. 2 (금)

# 국민일보

2003. 5. 9 (금)

## 여의나루

### “상봉 무산될라” 통일부 ‘사스 냉가슴’

사스 동향에 보건복지부 못지 않게 통일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말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즈음해 통일대축전과 함께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된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사스로 인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은 적지 않은 수의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행사여서 북한이 방역차원에서 이를 연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사스 때문에 금강산 관광까지 중단시켜가면서 국경을 공공 툄어막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6월 15일에 맞춰 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6·15에 즈음해서 하자는 것이지 꼭 6월15일에 열어야 한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6월 하순이나 더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금강산 관광을 주관하고 있는 현대아산측도 “사스 방역에 대한 북측 입장이 워낙 완고해 언제 유

람선 운항이 재개될지 알 수 없다”며 “다음달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특별선 운항계획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다음달 2일부터 평양~베이징간 고려항공편을 재운항한다고 발표한 점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6·15에 임박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신속하게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계획을 마련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사스와의 투쟁 와중에도 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열자고 먼저 제안해왔다”며 “이산가족 상봉도 북한이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최응준 보건성 국가위생 검열원장은 7일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전체 인민들이 사스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르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 사스가 발생한 나라와 지역에서 오거나 그곳에 갔다오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도 여관에서 10일간 격리하면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b. co. kr

### “6·15 이산상봉 규모 남북 100명씩”

통일부 당국자는 1일 “10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6·15 이산가족상봉단의 규모는 전례대로 남북 각각 100명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20만t의 비료를 이달중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절차를 따르다 보면 북한에 도착하는 시기는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世界日報

2003. 5. 12 (월)

## 이산상봉 후보 300명 韓赤, 오늘 컴퓨터추첨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12일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예비후보 300명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적은 예비후보 선정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명동 본사에서 인선위원회를 개최, 후보자 선정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송민섭기자 stsong@segye.com

# 대한매일

2003. 5. 12 (월)

## 오늘 이산상봉 후보 300명 선정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12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제7차 이산가족 상봉 예비후보 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말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7차 이산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중앙일보

2003. 5. 13 (화)

## 내달 이산상봉 北에 제안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달 19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여는 방안을 마련해 13일 중 북한에 이를 제안키로 했다. 그러나 북측이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을 이유로 남북 간의 접촉·교류를 전면 중단한 상태여서 남북 일정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영증 기자

# 한국일보

2003. 5. 13 (화)



7차 이산상봉 후보자 추첨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2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제7차 이산가족상봉 후보자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하고 있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12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회의실에서 제7차 이산가족상봉 후보자 300명을 컴퓨터로 추첨하고 있다. /연합

# 世界日報

2003. 5. 13 (화)

## 北에 7차 이산상봉 제의 韓赤, 내달 19~24일까지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영훈은 13일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다음달 19~24일 열자고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적 관계자는 "19~21일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22일부터 사흘간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각각 상대측 가족과 친척을 만나도록 하자고 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이 현재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이유로 대외 접촉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예정대로 상봉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한적은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10만1950명 중 7차 상봉 예비후보 300명을 선정했다. 한적은 고령자, 부부·부모·자식, 형제 순으로 우리측 후보자 200명을 선정했다.

/송민섭기자 stsong@segye.com

# 국민일보

2003. 5. 13 (화)

## 이산상봉 내달 19~24일 개최 한적, 오늘 북측에 제안키로

대한적십자사는 다음달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금강산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자고 13일 북측에 제안키로 했다. 하지만 북측이 사스를 이유로 금강산 관광 등 대외접촉을 전면 중단한 상태여서 7차 상봉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북측 이산가족 100명의 상봉행사를 열자고 북측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방기자

# 朝鮮日報

2003. 5. 14 (수)

## “이산상봉 내달19일부터” 적십자사, 北에 제의

대한적십자사 서영훈(徐英勳) 총재는 13일 북한 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지난 달 10차 장관급회담에서 6·15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갖기로 합의했던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내달 19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全琨徽기자 mckim@chosun.com

# 국민일보

2003. 5. 27 (화)

## 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내달 15일 명단교환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26일 북한 적십자사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7차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 대해 합의, 다음달 15일 최종 상봉자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적십자는 28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다음달 12일 확인 내용을 통보, 다음달 하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측 적십자는 우리측 상봉후보 300명 중 북측에 생사와 주소 확인을 의뢰할 200명을 선정했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ib.co.kr

# 대한매일

2003. 5. 27 (화)

## 北에 이산가족 생사확인서 내일 전달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28일 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200명 생사·주소 확인 의뢰서를 북측에 전달하고 다음달 12일 회보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 한국일보

2003. 5. 29 (목)

## 맹형규 의원 北 고모 만난다

내달 7차 이산가족상봉  
北측 후보 명단에 포함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6·25때 헤어진 고모를 상봉하게 됐다.

맹 의원의 고모인 맹은희(76)씨는 북한 적십자사가 28일 우리측에 통보한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보 200명 명단에 들어 있었다. 맹은희씨가 찾은 남측 가족은 아버지 맹주천(사망), 어머니 구숙자(사망), 오빠 흥렬(86·맹 의원의 아버지) 광렬(82), 언니 영희(79), 조카 형규씨 등이었다.

맹 의원의 아버지는 소식을 전해 듣고 “6·25때 행방불명됐었는데 은희가 살아 있었구나, 선발이 되면 동생들과 함께 은희를 만나야지”라며 기뻐했다.

맹은희씨가 북측이 내달 15일 교환 예정인 최종 상봉자 100명 명단에 포함될 경우 맹 의원 가족은 내달 25일 이후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상봉 행사에서 맹은희씨를 만날 수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 朝鮮日報

2003. 5. 29 (목)

## 맹형규 의원, 北고모 만난다

내달 7차 이산가족 상봉  
北, 후보자 명단에 통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이 6·25 때 헤어진 고모와 상봉할 수 있게 됐다. 북한 적십자회가 28일 우리측에 통보한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보 200명의 명단에는 맹 의원의 고모인 맹은희(76)씨가 들어 있었다. 맹은희씨는 아버지 맹주천(사망)씨와 어머니 구숙자(사망)씨, 오빠 흥렬(맹 의원의 아버지)씨와 광렬씨, 언니 영희씨와 함께 조카 ‘맹형규’를 찾는다고 했다.

맹 의원은 이 소식을 듣고 “고모가 정말 살아계시느냐”며 “6·25 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버님(86)이 너무 기뻐하시겠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내가 어린 시절 일이라 잘 모르지만, 고모는 서울여의전(고려대 의대 전신) 재학 중 6·25 때 행방불명



◇맹형규 의원



◇맹은희씨

돼 지금까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다”며 “할머니가 늘 딸(고모)을 그리워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좀 일찍 연락이 왔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아쉬워했다.

맹 의원은 “아버님은 아마 고모를 만나러 가실 것”이라며 “나도 같지는 아버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북측이 맹은희씨를 다음달 15일 교환할 예정인 최종 상봉자 100명 명단에 넣을 경우 맹 의원 가족은 다음달말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상봉행사에서 맹은희씨를 만날 수 있다.

/全琨徽기자 mckim@chosun.com

# 국민일보

2003. 5. 29 (목)

## 7차 이산상봉 생사 확인 한적·본보홈페이지 공개

대한적십자사는 28일 북한 적십자사 전해온 제7차 이산가족 상봉 관련 생사확인 의뢰 2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도 북측에 제공했다.

적십자사는 이날 오후부터 북측이 의뢰해온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redcross.or.kr)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reunion.unikorea.go.kr)를 통해 공개, 남측 가족의 행방을 찾고 있다. 적십자사 이산가족과 (02-3705-3641~4)로 직접 전화 화를 걸어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일보 홈페이지(www.kmib.co.kr)를 통해서도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지방기자

## 한겨레

2003. 6. 3 (화)

## 한겨레

2003. 5. 29 (목)

### 이산가족 예비명단 200명씩 교환

남북은 28일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후보 200명의 생사·주소 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고 대한적십자사가 밝혔다. 북쪽 후보 200명의 명단은 대한적십자사(redcross.or.kr)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reunion.unikorea.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 대한매일

2003. 5. 29 (목)

### 이산상봉 후보 200명 명단 교환

남북 적십자사는 28일 판문점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보 20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주소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의뢰서 교환 직후 남측 가족·친척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북측이 생사확인을 의뢰한 200명의 명단을 적십자사(www.redcross.or.kr)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reunion.unikorea.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 남북관계

#### 16일(수)

금강산관광 재개(해로)

#### 17일(목)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

#### 18일(금)

남북 6·15공동선언 3돌

#### 19일(토)

개성공단 착공식



## 다시맞는 '6·15' 3돌

## 이산가족도 철도도 '상봉'

6월의 남북관계는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지지개를 띤다. 각종 경협 일정이 이어지고, 7차 이산가족 상봉과 6·15 공동대축전 등 교류 행사도 맞물려 벌어진다.

경의·동해선 철도궤도 연결 행사가 첫머리에 놓인다. 이를 위해 제5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이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이뤄진다. 지난 5차 경제협력추진위에서는 10일째로 합의했다.

경의선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개성공단 분계역 4.5km까지 궤도 공사를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6월 말엔 개성공단 착공식이 예정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때까지 열차가 달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열차운행을 위해선 신호등, 차단기 등 추가적인 자재·장비 인도와 설치가 필요하다.

동해선은 연결행사를 위해 남북 각각 100m씩만 궤도가 깔려 있다. 북쪽 나머지 구간은 도로 공사가 먼저 끝나야 궤도 부설이 가능하다. 북쪽 아태평화위원회는 6월 안에 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7월엔 금강산 육로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6월 초엔 한 달 여 넘게 끊겼던 금강산 뱃길이 다시 열린다.

쌀 지원도 이달 중 이뤄진다. '차관 합의서' 서명 뒤 3주 안인 6월12일까지 쌀이 떠나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보고 후 교류협력기금 집행에 의결할 방침"이라며 "상임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12일까지 보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쪽에 우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산가족의 만남도 이어진다. 남쪽은 7차 이산가족 상봉을 19~24일로 제안했으나 상봉자 최종 명단 교환이 15일로 잡혀, 열흘 가량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꼬가 트였지만 길은 여전히 험하다. 국제적인 대북 압박 공세도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7일 한-일 정상회담과 중순께로 잡힌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티록) 회의 등을 통해 대북 경제 압박에 대한 주변국의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

이달의 남북관계는 정점을 향해 치달고 있는 대북송금 특검 수사와 남북관계를 국제화하려는 두 배랑 사이로 거칠고 좁은 길이나마 힘겹게 나아가는 형국이다.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경의선 복원·개성공단 착공

월말께 쌀 지원

북송금 특검등 변수 잠복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시급

이산1세대 123만명 불구  
이달말 예정 7차상봉 포함  
6.210명만이 재회의 기쁨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같은 해 8월15일 1차 이산가족상봉을 통해 피와 눈물로 육화(肉化) 됐다. 이달 말 예정된 7차 상봉까지 남북의 합육 6,210명이 눈물어린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1만 5,430명이 생사를 확인하게 된다.

만남의 방식도 그 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당초 남북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하는 방식에서 지난해 금강산 상봉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드디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육로 상봉길이 뚫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123만명에 달하는 이산 1세대에게 상봉은 아직까지 집 잔치나 다름없다. 대한적십자사에 가족 상봉을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만 3년간 남북 가족 상봉자의 30배를 넘는 10만3,694

명. 이중 기다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70대 이상 고령자는 6만7,200명이다. 이산가족상봉의 제도화·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남북은 이를 위한 상설 면회소 설치,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등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통일부는 최근 '더 많은 상봉 기회를 주기 위해 북측에 상봉단 규모를 단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의했지만 이 역시 벽에 부딪혀 있다.

대한적십자사 민병대(閔丙大) 남북교류국장은 "말리는 1970년대부터 논의한 내용이지만 백·문제 중 한 문제나 풀었다고 할 정도"라며 "남북 관계는 문자 그대로 쌍방 관계여서 어느 한 쪽의 결단이 없으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남북이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로 표현하는 한국전쟁 납북자(8만4,500명), 국군포로(496명), 그리고 휴전 이후 납북자 486명의 가족상봉이나 생사확인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도 안 되는 실정이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 서울경제

### 이르면 25일 7차 이산상봉

#### 남북 금강산관광 재개합의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르면 이달 25일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방북했다가 13일 귀환한 현대이산 정몽헌 회장은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지난 4월25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피해방지를 이유로 중단한 금강산 해로관광을 이달 25일부터, 육로관광을 7월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이산은 이와 관련해 '25일 첫 순남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 주관부처인 통일부도 7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일정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정하기로 해 아직 합

의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르면 내일께 남북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급적 6월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25일부터 2박3일씩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한 양측 적십자사는 지난 12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자 각 200명에 대한 생사 및 주소를 확인한 회보서를 교환했으나 이 결과를 토대로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각 100명씩을 확정해 15일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 이산상봉 6,300여명 작년 방북자 1만넘어

#### • 인적교류 얼마나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후 10차례의 남북장관급 회담과 4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에 합의했고 모두 6차례의 상봉행사를 통해 1,202건에 모두 6,313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도로 민간차원에서 정성회담 이후 지난해말까지 831건(연평균 172건)의 상봉이 이뤄져 1990~98년 2월까지 연평균 20건이 이뤄진 것과 비교할 때 8.6배가 증가했다.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2002년 말까지 모두 3,356건의 생사확인 및 주소확인이 이뤄졌는데 민간 차원에서 1,687건(연평균 349건)을 확인, 과거 연평균 127건에 비해 약 2.7배가 늘어났다. 서신교환의 경우 같은 기간 정부·민간차원에서 총 4,190건이 이뤄졌다.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핵심 사안인 이산가족 면회소

#### 북주민 남방문도 2천여명 북핵영향 면회소설치 난관

추진되고 있다. 면회소 장소문제를 놓고 남북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마침내 설치에 원칙 합의,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접촉을 통해 동부지역에는 금강산에 설치하고 서부지역에는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핵이 야기한 한반도 긴장 고조는 면회소 설치에 난관이 되고 있다. 면회소 규모를 둘러싼 남북간 이견으로 지난 4월로 예정됐던 착공식은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병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국장은 "면회소 규모를 논의할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단 실무협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간 인적교류 역시 증가추세로서 2000년 7,280명, 2001년 8,551명의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 수가 1만2천8백25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8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으로 방북이 허용된 이후 99년까지의 방북 인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 역시 크게 늘어나 2000년 이후 올해 5월말 현재까지 모두 2,110명이 남한 땅을 밟았다. 차세현기자

남북 인적교류

	연도	명
남한주민 방북	1989~1999	11,321
	2000	7,280
	2001	8,551
	2002	12,825
	2003년 5월말 현재	3,995
북한주민 방남	1989~1999	637
	2000	706
	2001	191
	2002	1,052
	2003년 5월말 현재	161

## 이산가족 상봉 27일 금강산서

남북 양측은 오는 27일부터 새달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27일부터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금강산을 찾아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고 북측 이산가족 100명은 30일부터 남측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확정된 상봉단은 대한적십자사가 16일부터 전화로 개별 통보한다.

남측은 상봉 후보자중 북측 가족의 생사가 확인돼 상봉이 가능한 106명 가운데 8명이 상봉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 97명과 기존 신청자 3명을 포함해 100명의 상봉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딸 정완옥(56)씨 등이 생존해 있는 어순덕(102) 할머니는 남측 상봉단중 최고령자로 금강산을 방문해 북측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또 아들을 만나게 될 박영철(101)옹과 두 동생과 두 아들을 만나게 될 이응규(100)옹의 경우 당초 이번 상봉단 후보에는 끼지 못했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상봉 포기로 북측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행운을 잡았다.

이도은기자 dawn@

## 대한매일

2003. 6. 16 (월)

## 世界日報

2003. 6. 16 (월)

### 7차 이산상봉단 명단교환

남북은 15일 오전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27일 금강산에서 단날 이산가족 상봉단 각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이에 앞서 남북은 14일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5박6일간 금강산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남측 상봉단중 최고령자는 102세인 어순덕옹으로 북한의 딸 정완옥(56)씨를 만나게 된다. 박영철(101)옹과 이응규(100)옹은 당초 이번 상봉단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상봉 포기로 북측 가족을 만나는 행운을 잡았다. 북측이 전달한 100명 상봉단 명단에는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의 고모 맹은희(76)씨가 포함돼 있어 은희씨의 오빠인 맹 의원의 부친 맹흥렬(86)옹도 가족상봉을 하게 됐다.

/김재홍기자 hong@segye.com

## 한국경제

2003. 6. 16 (월)

### 이산가족 100명 27일 상봉

남북 양측은 지난 14일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27일부터 이산가족 1백명이 먼저 금강산을 찾아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고 북측 이산가족 1백명은 30일부터 남측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북측이 27일부터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의해와 이를 받아들였다"며 "대략적인 일정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후후 접촉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

## 朝鮮日報

2003. 6. 16 (월)

### 7차 이산상봉 27일부터 금강산서

남북 양측은 14일 관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했다. 27일부터 3일간은 먼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30일부터

3일간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남측 가족들을 만난다. 남측 상봉단중 최고령자는 북한에 둔 딸 정완옥(56)씨 등을 만나는 어순덕(102) 할머니이다.

/金埈徽기자 mckim@chosun.com

## 한국일보

2003. 6. 16 (월)

### 27일부터 7차 이산상봉

금강산에서

남북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5박6일간 금강산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14일 합의했다. 또 15일에는 상봉단 각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27~29일에는 남측 상봉단 100명이 먼저 금강산을 찾아 북측의 가족·친지를 만나고, 이어 30일부터는 북측 상봉단 100명이 남측의 가족·친지와 상봉하게 된다.

남측 상봉단에는 어순덕(102) 할머니를 포함해 100세 이상 고령자가 3명 포함돼 있고, 북측이 제출한 명단에는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의 고모인 맹은희(76)씨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이번 상봉행사는 금강산 육로관광길을 이용했던 지난 2월의 6차 상봉 때와 달리 해로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 중앙일보

2003. 6. 16 (월)

## 27일 7차 이산가족 상봉

남북 양측은 1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박6일간 금강산에서 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두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이번 상봉은 오는 27일부터 남측 이산가족 1백명이 북측 가족들과 상봉하고 이어 30일부터 북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백명이 남측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 東亞日報

2003. 6. 16 (월)

## 27일 금강산서 7차 이산상봉

남북 양측은 1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박6일간 금강산에서 제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대한적십자사가 15일

밝혔다. 남측의 이산가족 100명은 27일부터 금강산을 찾아가 2박3일간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고, 북측의 이산가족 100명은 30일부터 남측의 가족들을 2박3일간 만난다.

김승현기자 srkim@donga.com

## 한겨레

2003. 6. 16 (월)

## 7차 이산가족 상봉

### 금강산서 27일~내달2일

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남북은 14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상봉 일정에 합의하고, 15

일 이산가족 상봉자 100명씩의 최종 명단을 교환했다고 대한적십자사가 밝혔다.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27일부터 1진으로 금강산을 찾아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이어 30일부터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2진으로 남측 가족들을 만난다. 1진 남측 상봉단의 어순덕(102) 할머니는 7차 상봉 가족 가운데 최고령자로

북측 딸 경완옥(56)씨를 만나게 됐다. 2진 북측 상봉단에는 한나라당 당형규 의원의 고모 명은희(76)씨가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래트로 방문해달라고 통보해 왔지만, 가능하면 육로로 남측 가족들이 금강산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 경향신문

2003. 6. 16 (월)

# 끊어진 남북혈맥 이어졌다

## 14일 경의·동해선 연결식...27일부터 금강산 이산상봉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이 지난 14일 오전 11시 동서 양쪽의 군사분계선(MDL)에서 열렸다. 남북은 지난 3월 말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라크전 등 국내외 사정에 따라 연기됐다. / 관련기사 5·6면

이날 연결식은 남북 양측에서 관계부처의 국장급 인사들과 행사 인원, 보도진 등 각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결사 낭독 후 MDL에서 각각 남북 방향으로 25m 레일을 연결,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경의선의 경우 남측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북측 김병철 국토환경보호성 국장이, 동해선은 남측 손봉균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과 북측 박정성 철도성 국장이 행사를 주관했다.

남측은 연결사에서 "비무장지대의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민족의 동맥을 잇게 됐다"며 "이는 6·15 공동선언에서 지향하고 있는 화해협력과 평화증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남북 공동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북측도 "철길 개통으로 그동안 막혔던 민족의 뜨거운 피, 겨

레의 따뜻한 정과 공동번영의 역사가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궤도 연결로 실제 열차가 다니지는 못하지만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뚫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 상징적인 모양새를 갖추므로써 향후 경의·동해선 철도연결공사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또한 남북은 오는 27일부터 금강산에서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하고 15일 양측 상봉단 100명의 최종 명단을 교환했다.

김진호기자 h@kyunghyang.com

“이산가족 서신교환위해 최선”

국제적십자위 포스터 부총재 방한

“이산가족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자크 포스터(63·사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부총재는 19일 서울 조선포털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만남과 서신교환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터 부총재는 “ICRC의 역사는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이산가족문제와 궤를 함께한다”며 “남북 정 부간 노력과 별도로 국제적십자위



정치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인도적 기구인 ICRC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남북언론인 225명 생사확인-송환 촉구

대한언론인회 韓赤에 탄원

원로 언론인들의 연구 및 친목 단체인 대한언론인회는 24일 오전 11시 대한적십자사 서영훈(徐英勳) 총재에게 6·25전쟁 중 납북된 225명의 ‘돌아오지 못한 언론인’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대한언론인회 이장식 회장은 “2002년 9월 8일 금강산에서 있었던 제4차 남북직접자회담에서 남북대표가 ‘진정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와 주소확인 문제 협의 및 해결’에 합의했으나 10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자국민 대북납치자에 대한 처리상황과 미국정부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수습을 거울삼아 한국정부도 북한측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당당하게 요구해 달라”고 탄원했다.

이에 대해 서영훈 총재는 “27일 금강산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7월 중 방북해 북측의 고위급 인사와 만담하는 자리에서 언론인을 포함해 6·25전쟁 중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확인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언론인회가 2월 펴낸 ‘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이란 책에 따르면 8만여명의 전체 납북인사 중 남북언론인은 총 225명, 피살된 언론인은 31명으로 집계됐다.

납북자 중에는 동아일보 백관수(白寬濬), 조선일보 방응모(方應謨), 한성신문 안재홍(安在鴻), 현대일보 서상천(徐相天) 등 당시 신문사 사장이었거나 사장을 거쳤던 11명과 동아일보 장인갑(張仁甲) 이광수(李光濬), 경향신문 신태익(申泰翼), 한성일보 김찬승(金燦承) 등 당시 편집국장 및 전직 편집국장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1936년 ‘순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채육부기자 이길용(李吉用)과 사진부장 백운선(白雲善), 고려대 총장을 지낸 현상운(玄相允), 역사학자 정인보(鄭寅普) 등 16명이 납북됐고 1명이 살해되는 등 신문사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내일 금강산서 이산상봉 6차례 11시간동안 재회

남북 이산가족들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7차 이산가족상봉 행사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재회한다.

북측 이산가족을 만나는 남측 방문단 100명은 첫날인 27일 금강산 현지 김정숙휴양소에서 단체상봉한 뒤 식사를 함께 하고 28일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 삼일포 참관 상봉 등을 한다. 29일에는 김정숙휴양소 로비에서 1시간 동안 작별상봉한 뒤 설봉호를 타고 남쪽으로 돌아온다.

북측 방문단 100명을 만나는 남측 이산가족 476명의 상봉단 2진은 30일 남측지역인 온정각에서 단체상봉 및 환영만찬, 다음날 1일 개별상봉 및 공동중식, 삼일포 참관 상봉에 이어 2일 온정각에서 작별상봉한 뒤 귀환한다. 한편, 남측 방문단 100명은 26일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어 집결해 방북교육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감염 등을 받았다.

속초=김상협기자 jupiter@

# 문화일보

2003. 6. 27 (금)

## 남측 이산가족 1진 오늘 금강산 도착 참여정부 첫 상봉단 191명

100명의 남측 이산가족이 27일 금강산에서 북측의 협육과 50여년만에 재회한다.

이산가족 등 191명의 제7차 이산가족상봉단 1진은 이날 강원도 속초항에서 설봉호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해 금강산에 도착, 오는 29일까지 2박3일간 단체상봉과 개별상봉을 포함해 모두 3차례에 걸쳐 5시간 30분 동안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상봉단 2진은 30일 금강산에 도착, 7월2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마찬가지로 만남을 갖게 된다. 이번 상봉은 지난 2월 하순이후 4개월만이며,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처음이다.

상봉단 1진은 서영훈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과 보호가족 10명, 지원요원 51명, 취재진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부인이 위독해 방북 포기 의사를 전해왔던 임병운(78)씨는 이날 오전 마음을 바꿔 항공편으로 한화리조트로 달려와 막판에 상봉단에 합류했다.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어순덕(102) 할머니는 53년만에 딸 정완옥(56)씨를 만나며 박영철(101), 이응규(100)옹 등 나머지 100세 이상 고령자 2명도 북에 두고온 가족들과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국민일보

2003. 6. 27 (금)

## 이산가족 7차상봉 오늘부터 금강산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 200가족이 상봉하는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7일부터 북한 금강산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월 하순 이후 4개월만이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남측 이산가족 109명을 비롯한 남측의 1차 방문단 190명은 27일 강원도 속초항에서 설봉호 편으로 금강산으로 이동, 이날 오후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북측 가족 219명과 만날 예정이다.

남측 이산가족 109명에는 당사자 99명과 함께 고령자를 위한 가족보호자 10명이 포함돼 있다. 통일부 총재형 인도지원국장은 "고령자와 노약자를 위해 우리가 북측에 보호자 대동을 요청했다"며 "북한도 10명 선에서 가족동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속초를 떠날 2차 상봉단의 이산가족 476명은 다음달 2일까지 금강산 운정각휴게소에서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날 예정이다.

이 중 임병운(78)씨는 부인의 외병으로 막판에 상봉을 포기했다.

속초=공동취재단, 김지방기자

# 한겨레

2003. 6. 27 (금)

## 오늘 이산가족 상봉

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7일 금강산에서 시작된다. 1진으로 참여하는 남측 가족 110명은 27일 금강산 관광선 설봉호편으로 속초항을 떠나 금강산에 들어간다.

이들은 2박3일 동안 북측 가족들과 단체상봉과 만찬,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참관상봉, 작별상봉 등 모두 6차례 11시간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1진 상봉자 가운데 100살이 넘는 상봉자는 3명이다. 최고령자인 어순덕(102)씨가 딸 정완옥(56)씨를 만나고, 박영철(101)씨와 이응규(100)씨도 각각 아들·손자와 아들·동생을 만난다.

1진 상봉가족은 29일 돌아오며, 이어 30일부터 7월2일까지 2진 상봉이 남측에서 이뤄진다. 남측 가족 476명이 북측 가족 100명과 만난다. 북측 상봉단에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고모 맹은희(76)씨가 포함돼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 대한매일

2003. 6. 27 (금)

## 이산상봉 1진 오늘 출발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1진 191명이 27일 아침 속초항~장전항 해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출발한다. 상봉단은 27일 오후 금강산에 도착, 4차례 단체 및 개별 상봉을 갖고 30일 돌아온다.



# 사흘뒤 온다던 아버지 50년만에 해후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서 상봉

반세기 넘게 헤어져 살아온 남과 북의 합류팀이 지난 27일에 이어 28일만에 또다시 만나면서 금강산은 눈물비더름 이었다.

27일 오후 4시30분 금강산 김장숙휴양소에서 남북 이산가족 100명과 동행가족 10명이 각각 북측의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 조카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가졌다.

남측 이산가족 최고령자인 이순덕(102) 할머니는 53년만에 딸 정완옥(56)씨의 손을 잡고 북방지는 눈물에 말을 잊지 못했으며, 101세의 박양철 할아버지는 1·4후퇴 당시 북에 남겨두고 온 둘째아들 박영준(65)씨를 만나 '부사의 장'을 나눴다.

'사흘 뒤에 돌아오겠다던'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체도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김신채(83) 할아버지는 반백이 된 북측의 아들 병선(60)씨를 꺼안고 미안함에 눈물을 삼켰다. 김씨는 북측 아내 김희실(83)씨의 손을 마주잡고 눈물 줄 흘렸다.

36년전 남북된 외아들 윤경구(55)씨와 북측의 미느리-손자-손녀를 만난 이강삼(76) 할머니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있구나..."라며 눈물을 멈추지 못



27일 저녁 '금강산 김장숙휴양소'에서 열린 '제7차 남북이산가족상봉' 만찬행사에서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운데)와 장재연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오른쪽)이 건배를 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환갑 넘은 아들 손붙잡고 눈물 쏟아

### 36년전 남북 아들 만나 "살아있었구나..."

했고 아들 경구씨는 "어머니, 어머니"라고 오열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1950년 9월 유엔군 북진 때 인민군에서 탈영한 뒤 남으로 피신했던 이석림(80) 할아버지는 53년만에 북측 아내 최용녀(75)씨를 보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라며 안타까움으로 이별 줄 흘렸으며, 아내 최용녀씨는 고개를 번꾸었다.

1·4후퇴 때 국군을 따라 남으로

피란 온 이득범(83) 할아버지는 북측의 세 아들이 기다리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어디에 있나"라며 아내 이춘옥(85)씨부터 찾았으나, 운신이 어려워 못 나왔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번에 가족보호자로 부부가 함께 방북하는 행운을 잡은 장수근(90)·송계순(81)씨 부부는 6·25때 북에 두고 내려온 아들 송희(60)씨 부부와 딸 희순(63)씨를 만나 "부모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

나,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평양유대를 졸업한 뒤 국방부 정훈국 합참단으로 활동하다 국군을 따라 남으로 피란했던 황혜경(72) 할머니는 김을 떠나올 때 편을 붙잡고 "언니 혼자 가서 어떡해"라며 울먹이던 이종생 해도(69)씨의 평양체육대 교수로 자란 조카의 손박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단체상봉에 이어 남북 이산가족들은 같은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현대이산이 운영하는 해금강호텔에서 있을 개별상봉을 기약하면서 각자 숙으로 돌아가 잠자리에드는 금강산의 첫날 밤을 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송민섭기자

世界日報

2003. 6. 28 (토)

국민일보

2003. 6. 28 (토)



南北형제 53년만에 상봉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일원인 권오관씨(오른쪽)가 27일 금강산 김장숙휴양소에서 북측의 장 오경씨를 방문하고 오르고 있다. 기사 사진은 금강산=이영숙기자

# 참여정부들어 첫 이산상봉

남측 1진 100명 어제 訪北

제7차 이산가족상봉이 27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시작됐다. ★관련기사 A8면

남측 7차 이산가족상봉단(단장 서영춘·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 1진 100명은 이날 오전 강원 속초항에서 실봉호 편으로 방북, 오후 금강산에서 북측 가족과 재회했다. 이번 상봉은 참여정부 들어 첫 이산가족상봉으로 육로 방북이 이뤄졌던 2월 말 6차 상봉 때와 달리 바닷길을 이용한다.

남측 최고령인 어순덕(102·여)씨는 이날 단체상봉에서 53년 만에 딸 정완옥(56)씨를 만났고, 이강삼(76·여)씨는 1967년 충남 태안에서 고기잡이 배 침몰로 승

신했다. 남북편 외아들 윤경구(55)씨를 만났다. 상봉단은 28일 해금강호텔 개별 상봉 및 삼일포 참관 상봉, 29일 작별 상봉 등 세차례만 남을 더 가진 뒤 29일 귀환한다. 상봉단 2진은 30일 출발한다.

7차 상봉부터는 고행이거나 몸이 불편한 상봉자를 위해 10명에 한 명 꼴로 가족 동행을 허락하기로 남북이 합의해 장수근, 송계순씨 부부 등 두쌍의 부부가 함께 상봉에 나섰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서울경제

2003. 6. 28 (토)

### 참여정부 출범후 첫 이산가족상봉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100명의 남측 이산가족들이 27일 금강산에서 북측의 현상과 50여년 만에 재회했다.

제7차 이산가족상봉단 1진인 191명은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항에서 실봉호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해 금강산에 도착, 오는 29일까지 2박3일간 단체상봉과 개별상봉을 포함해 모두 3차례에 걸쳐 5시간30분 동안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이번 상봉은 지난 2월 하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상봉단 1진은 서영춘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과 보호가족 10명, 지원요원 51명, 취재진 30명으로 구성됐다. 상봉단 2진은 오는 30일 금강산에 도착, 7월2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마찬가지로 만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국민일보

2003. 6. 28 (토)

### 53년만의父子상봉 “얼마나 고생...” 두 남북선원 가족들도 감격 재회

7차 남측 방문단 100명 어제 北가족 만나

참여정부 들어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7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이뤄졌다.

제7차 이산가족 남측 방문단 100명과 동행가족 10명은 반세기 동안 그리워하던 가족과 상봉, 북한측이 준비한 만찬에도 함께 참석했다.

남측 이산가족 최고령자인 어순덕(102)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상봉장에 들어가 딸 정완옥(56)씨를 53년 만에 만났다. 6·25 당시 강원도 고성에 살았던 어 할머니 가족은 피란 중 할머니 혼자 식량을 구하려 민가에 내려갔다가 헤어졌다.

부부가 함께 방북한 장수근(90) 총계순(84)씨 부부는 6·25 때 북에 두고 내려온 아들 총희(60)씨 부부와 딸 희숙(63)씨를 만나 “부모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며 “미안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인민군에서 탈영, 남으로 피신했던 이석렬(80) 할아버지는 헤어질 당시 22살 새색시였던 북측의 아내 최용녀(75)씨 손을 붙잡고 “얼마나 고생 많았소”라며 어쩔줄 몰라했다.

상봉한 가족 중에는 1972년 부산의

오대양호와 67년 5월 충남 태안 창성호 등 어선 남북사건 당시 헤어진 이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창성호를 탔던 외아들 윤경구(55)씨를 36년 만에 만난 이강삼(76)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 홍정숙(53)씨, 손자 명남(28)씨, 손녀 영희(23) 경희(20)씨와도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충남 태안에서 홀로 살고 있는 이 할머니는 “1분 1초도 너를 잊지 않았다”며 이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오대양호 사건 당시 남편 김용철씨와 헤어진 강경순(75) 할머니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오열했다. 강 할머니는 전쟁 외종 북에 두고 온 여동생 강유신(66)씨와 조카 조영상(43)씨를 만난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아내의 외병으로 상봉 포기 의사를 밝혔던 임병윤(78)씨는 이날 아침 속초에서 대기하던 방문단에 합류, 금강산에서 북측 동생 임병삼(73)씨를 만났다. 상봉 행사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두 남북선원 가족도 '눈물의 재회'

27일 남북 이산가족들의 상봉장인 북한 금강산의 김정숙휴양소, 36년 전 납북된 외아들 윤경구(55)씨를 만난 어머니 이강삼(76)씨는 아들의 얼굴을 이리저리 어루만졌다. "어 어..."만 되짚어하는 이씨에게 북의 며느리 홍진숙(53)씨는 "어머니 그만 우세요.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라며 위로했다.

윤씨는 지난 67년 5월 동료 선원 5명과 함께 창성호를 타고 고기잡이할 나갔다가 납북된 후 다른 선원 1명과 함께 돌아오지 못했다. 북의 손자 명남(23), 손녀 영희(23)·경희(20)씨가 밝은 얼굴로 "할머니 잘 드리겠습니다"며 인사하자, 이씨는 "다른 사람들도 때 너는 왜 안 왔느냐"며 지난 세월을 한탄했다.

지난 72년 3월 오대양호와 함께 납북된 남편이 북쪽에서 7년 만인

79년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은 강김순(75)씨는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저 살아있기만 바랐는데..."라며 오열했다. 고향이 북쪽인 강씨는 대신 전쟁 때 두고 온 친정 여동생 유신(66)씨, 조카 조영상(43)씨와 반세기 만에 만나 아쉬움을 달렸다. 유신씨가 "형부는 언니 닮은 사람과 재혼해 잘 살다 가셨어"라고 하자, 강씨는 또 눈물을 흘렸다.

이날 두 남북자 가족을 포함, 100명의 이산가족들이 북쪽의 아내·자녀·형제 등과 반세기 만에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이번 상봉행사에는 100세 전후의 고령자가 많아 가족 중 보호자로 10명을 동행하도록 해 실제로 110명의 이산가족들이 북쪽 가족들을 만났다.

합체어를 타고 상봉장에 들어온 최고령자 어순덕(102) 할머니는 53년 만에, 만난 북의 딸 정완옥(56)

씨의 손을 잡고 말문을 열지 못했으며, "사흘 뒤에 돌아오겠다"던 아들과의 약속을 53년 만에 지키게 된 김신채(83) 할아버지는 반백이 된 북의 아들 병선(60)씨를 꺼안고 눈물만 삼켰다.

장수근(90)·홍계순(84)씨 부부는 남편 장씨가 거동이 불편해 아내 홍씨가 보호자로 따라와 부부가 함께 전쟁 때 두고온 아들 총희(60)씨 부부와 딸 희숙(63)씨를 만났다. 장씨 부부는 전쟁 직후 "손이 귀한 집안이니 아들과 큰딸은 두고 가라"는 부모님들의 말을 듣고 1남4녀 중 세 딸만 데리고 피란, 말말·외아들과 헤어졌었다.

이날 단체 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동만찬에서 북측 단장인 장재언 북적 위원장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한겨레

# 금강산 빗물이 눈물되어...

■ 7차 남북이산가족상봉  
102살 할머니 "내 딸 왔나"  
남북자기족 36년만의 재회

27일 굵은 빗줄기 속에 뿌연 금강산은 다시 눈물바다에 잠겼다. 어렵게나마 다시 이어진 일곱번째 이산가족 상봉도 어느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남북 이산가족 100명과 동행가족 10명은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북쪽의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 조카들 217명과 각각 감격적으로 상봉을 비웠다. 지난 2월의 6차 상봉에 이어 넉 달 만이다.

남쪽 이산가족 최고령자인 어순덕(102) 할머니는 합체어를 타고 들어와 50여년 만에 딸 정완옥(56)씨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을 잊지 못했다. 주름살이 핀 중년의 딸은 "어머니, 내 북의 손톱자국이 기억나요"라며 반세기 전을 떠올리려 애썼고, 어머니는 "완옥이 왔나?

몰라 몰라"라는 말만 되뇌었다. "사흘 뒤에 돌아오겠다"던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김신채(83)씨는 반백이 된 병선(60) 병우(53) 아들 형제를 보자 "고생 많았지, 고향 생각 많이 했다"며 이들과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36년 전 납북된 외아들 윤경구(55)씨와 북의 며느리, 손자·손녀를 만난 이강삼(76·여)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리며 실신지경에 빠졌다. 아들 윤씨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고생 많이 하신 것 다 압니다"라고 달랬고, 손자·손녀들이 그 자리에서 큰절을 올리자 이씨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한국전쟁 중에 큰아들 박창선(63)씨를 시대에 두고 내려온 김선열(84)씨는 "1분 1초도 너를 잊지 않았다"며 손을 부여잡고 눈물만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감격해했다. 하지만 1·4후퇴

때 피란 내려온 이복범(83)씨는 할남 갑산에 두고 온 아내 이춘옥(85)씨를 찾았으나, 서 아들로부터 거동이 어려워 나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야 했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를 돕는 케이스로 부부가 함께 방북한 장수근(90)·홍계순(84)씨는 한국전쟁 때 북에 두고 내려온 아들 총희(60)씨 부부, 딸 희숙(63)씨를 만나 "부모 없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홀로 사는 전응오(85·여)씨는 아들과 여동생, 두 딸의 손을 연신 어루만지며 줄줄 눈물을 흘렸다.

이날 이산가족들은 단체상봉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뜻깊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28일 오전엔 현대아산이 운영 하는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을 하며, 비가 계속되면 오후에는 애초 예정됐던 삼일포 참관상봉 대신 모란봉 교예단 공연을 관람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102세 할머니, 딸 잡고 딸문잃어 36년전 남북 외아들 보자 혼절도

## ■ 남북 7차 이산상봉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27일 금강산에서는 50년 세월도 모자라 거센 빗줄기와 격랑을 헤치고 재회한 혈육들의 오열이 이어졌다. 가족들은 최근 북미간 긴장이 고조된 데다, 대북송금사건 수사발표까지 겹쳐 반 백년 비원이 자칫 한 순간에 비틀어질까 맘을 졸였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의 감격은 더했고, 눈물도 한층 더 진해 보였다.

이날을 기다리며 생명의 끈을 모질게 잡아 온 10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은 '마지막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절로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남측 최고령자인 여순덕(102) 할머니는 53년 만에 만난 딸 정안옥(56)씨의 손을 부여 잡고 딸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1951년 1·4후퇴 때 북에 남겨두고 온 둘째 아들 영준(65)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101세의 박영철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도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흘 뒤 돌아오겠다던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김신채(83)씨는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앉은 아들 병선(60) 병우(53) 형제의 모습에 "고성이 많았지, 나도 고향 생각 많이 했다"며 눈물을 흘렸고, 아내 김화실(83)씨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



27일 오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측 객창건(오른쪽·91)옹이 북측의 아들 현철(왼쪽), 현섭씨를 만나 오열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르지 못한 듯 "반갑수다" 한마디만 꺼낸 뒤 눈물을 삼켰다.

남북자 가족 상봉도 이뤄졌다. 이강삼(76·여)씨는 36년 전 고기잡이를 하다 납북된 외아들 윤경구(55)씨를 보자 곧바로 오열을 터뜨리며 감시 혼잡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경순(75·여)씨는 72년 부산에서 오대양호를 타고 바다로 나갔던 납북된 남편 김용철씨가 이미 세상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북의 여동생 유신(66)씨에게 전려 듣고

"홍로 아이들이 키우느라 안 해 본 게 없는데 이제 하소연할 데도 없게 됐다"며 오열을 터뜨렸다.

이낙기(71)씨는 한국전쟁 때 빨갱이 흩어졌던 가족을 이번 이산가족 상봉으로 모두 찾아 이산의 한을 풀 줄 털어버렸다. 이씨는 83년 KBS 이산가족 찾기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찾았고 이번에 두 남동생과 상봉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인준현기자  
dejavu@hk.co.kr

## 사스로 중단 금강산 관광 이산상봉 맞춰 어제 재개

지난 4월25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두달여 만인 27일 재개됐다.

현대아산 속초사무소는 27일 오전 속초항을 출항한 실봉호에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단과 현대아산 사업자 등 475명 외에 일반 관광객 166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북한을 방문했던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이산가족 상봉 시점에 맞춰 재개하기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협의했다. 속초=변영주기자

### 67년 남북어부 남측 老母 재회

#### 어제 7차 이산상봉

남북자 윤경구씨(55)가 27일 북한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진행된 7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쪽 어머니 이강삼씨(76)를 만났다.

36년 만에 아들을 만난 이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들은 "어머니 울지 마세요. 고생 많이 하신 것 다 압니다"라고 어머니를 달랬다. 윤씨가 북에서 얻은 아내 홍정숙씨(53)와 3남매는 처음으로 만난 할머니에게 큰절을 올렸다.

윤씨는 1967년 5월 충남 태안에서 고기잡이배 창성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납북됐으며, 당시 함께 납북된 선원 7명 중 5명은 4개월 만에 귀환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측 부모와 납북자간 상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2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이날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동행

가족 10명이 포함된 남측 이산가족 110명이 북측의 이산가족을 각각 만나 상봉의 기쁨을 나눴다.

남측 최고령자인 여순덕 할머니(102)는 딸 정완옥씨(56)를 만났고, 가족 보호자로 부부가 함께 방북한 장수근(90) 홍계순씨(84)는 6·25전쟁 때 북에 두고 온 아들 총희씨(60) 부부와 딸 희숙씨(63)를 만나 "부모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이 발발한 뒤 큰아들 박창선씨(63)를 시택에 두고 내려온 김선열씨(84)는 "1분1초도 너를 잊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어머니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상봉을 마친 가족들은 29일까지 금강산에 머물며 '개별상봉과 가족관광' 등의 시간을 갖는 등 총 6차례 11시간 동안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중앙일보

## 102세 어머니 딸 손잡고 눈물

### 이산가족 110명 상봉 납북어부 가족도 만나

반세기 넘게 헤어져 싶었던 남과 북의 혈육들이 지난 2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만나면서 금강산이 또 눈물바다를 이뤘다.

27일 오후 금강산 김정숙 휴양소에서 남측 이산가족 1백명과 동행가족 10명이 북측의 아내와 자녀·자매·조카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남측 이산가족 최고령자인 여순덕(102) 할머니는 53년 만에 딸 정완옥(56)씨의 손을 잡고 북받치는 눈물로 말을 잊지 못했고, 1백1개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1·4후퇴 당시 북에 두고 온 둘째아들 박영준(65)씨를 만나 부자의 정을 나눴다.

"사흘 뒤에 돌아오겠다"던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김신채

(83) 할아버지는 반백의 아들 병선(60)씨를 겨안고 눈물만 삼켰다.

36년 전 납북된 외아들 윤경구(55)씨와 북측에서 결혼한 며느리, 손자·손녀를 만난 이강삼(76) 할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있다니..."라며 제대로 말을 잊지 못했고, 아들 경구씨는 "어머니, 어머니"하고 오열했다. 경구씨는 1967년 5월 충남 태안에서 고기잡이배 창성호를 타고 나갔다가 납북된 뒤 돌아오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남측의 부모와 납북자간 만남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50년 9월 유엔군의 복진 때 인민군에서 탈영한 뒤 남으로 피신했던 이석렬(80) 할아버지는 북측의 아내 최용녀(75)씨를 보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라며 어필 줄 몰라 했다.

1·4후퇴 때 국군을 따라 피란을

내려온 이득범(83) 할아버지는 세 아들이 기다리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어디에 있느냐"며 함강남도 감산에 두고온 아내 이춘옥(85)씨를 찾았으나,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 했다.

이번에 함께 방북한 장수근(90)·홍계순(84)씨 부부는 6·25 때 북에 두고 온 아들 총희(60)씨 부부와 딸 희숙(63)씨를 만나 "부모없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미안하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상봉행사에선 장수근씨만 대상자였으나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중 한명이 보조자로 갈 수 있도록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강씨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족을 만나는 행운을 잡게 됐다. 이들은 28일 오전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해금강호텔에서 있을 개별 상봉을 기약하며 각자 숙소로 돌아가 첫 밤을 보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어머니 만난 남북아들

금강산 /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오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측 이강삼씨(76)가 1967년 납북된 북측의 아들 윤경구씨(54)를 만나 오열하고 있다.

# “사흘이면 온다더니 50년 흘렀소”

## • 7차 이산상봉 이모저모

반세기 넘게 헤어져 살던 남과 북의 가족들이 재회 하면서 금강산은 또 다시 혈육간의 따뜻한 응원을 푸는 장소가 됐다. 27일 오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행가족 10명이 각각 북측의 피붙이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가졌다.

○...남측 상봉단 최고령자인 어순덕 할머니(102)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53년 만에 만난 딸 정완옥씨(56)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을 잊지 못했고, 박영철 할아버지(101)는 1·4후퇴 당시 북에 남겨두고 왔던 둘째 아들 박영준씨(65)를 만나 쌓인 한을 풀었다.

남측 이강삼 할머니(76)는 1967년 5월 충남 태안반도에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납북됐던 외아들 윤경구씨(55)를 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리며 심신지검에 빠졌다. 이할머니는 아들 경구씨가 “어머니 울지 마세요. 고생 많이 하신 것 다 압니다”라고 위로했고, 경구씨 아들 명남(28), 딸 영희(23), 경희(20)씨가 큰절을 올리고 나서야 심신을 수습했다. 이할머니는 현재 월 17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홀로 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72년 부산앞바다에서 조업중 납북된 남편 김용철씨를 기다리며 5남매를 힘겹게 키운 강경순 할머니(75)는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 대신 여동생

## 전쟁통에 두고온 자식들 반백이 되어 노부모 품에

유신씨(66), 조카 조영상씨(43)와 헤어졌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납북자 가족의 재회가 이뤄진 것은 △김삼례·강희근(87년 동진호 감관장·2차 상봉) △이후덕·성경희(69년 대한항공 승무원·3차 상봉)씨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사흘 뒤에 돌아오겠다”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거쳐 남측에 남았던 김신채씨(83)는 반백이 된 아들 병선(60)·병우(53)씨 형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생이 많았지. 나도 고향 생각 많이 했다”고 위로했다. 아내 김화실씨(83)는 “반갑수다”라는 말만 건네며 감정을 억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독거노인 전용오 할머니(85)는 53년 만에 만난 아들 박운진씨(65)와 두 딸, 조카들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28일 오전 현대 아산이 운영하는 해금강호텔에서 갖게 될 개별상봉을 기약하며 각각 숙소로 돌아가 금강산에서의 아쉬운 첫밤을 보냈다.

금강산 / 공동취재단

맹형규의원, 北 고모 만나러 금강산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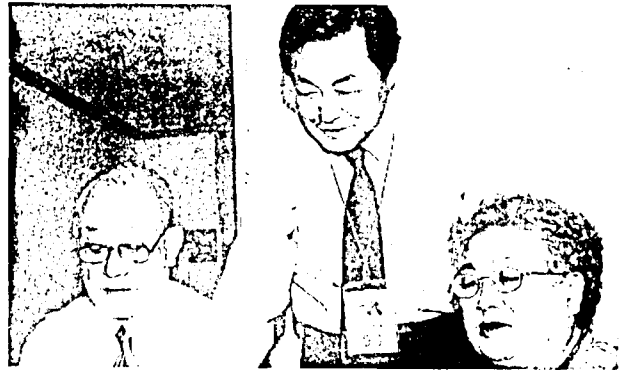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圭) 의원이 3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부친 맹흥일(80)옹과 큰고모 영희(78)씨, 동생 문규(48)씨와 함께 북한의 고모를 만난다.

맹 의원 가족은 29일 오후 남측 이산가족 집결지인 속초 한화콘도에 도착, 상가된 표정으로 등복 걸차를 바꿨다. 맹 의원은 "언의 의원으로서 상봉에 참여해야 할 지 고민했지만, 아버님과 고모님이 인로해

모시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하루속히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권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했던 맹 의원의 고모 은희씨는 6·25 전쟁 때 행방불명됐다. 북한 의육군으로 끌려갔다는 것 외에 아무 소식이 없어 맹 의원 가족들은 그동안 은희씨에 대해 사망신고를 내놓았다.

/속초=공동취재단



◇訪北서류 작성 3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29일, 집결지인 속초 속소에서 부친 맹흥일씨, 큰고모 영희씨와 함께 방북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민일보



"언제 또 만날까"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마친 남측 가족들이 29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직행상봉을 마친 뒤 버스에 타 북측 가족들을 향해 울음을 터뜨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금강산=이병주기자

韓赤, 남북언론인 225명 生死확인 요청

"추석 500명씩 이산상봉"

서명순 대한외집사총재는 27일부터 29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장애인 북한 직선자회 위원장을 두 차

레 만나, 방음모 전 조선일보 사주와 이길용(동아일보), 양재하(한성일보) 씨 등 6·25 전쟁 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다. 서 총재의 이 요청에 장제연 북쪽 위

원장은 "노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단장인 서 총재는 29일 오전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 추석을 맞아 상봉 인원을 남북 각각 400~500명 정도로 대담하게 늘려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 행사를 갖자고 북측에 제의했다"고 전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통일되면 잘 모시고 살게요”

### ■ 상봉 마지막날 '눈물 금강산'

#### 북 아들 건강 당부에 남 '독거' 어머니 통곡 주소·사진 주고받으며 아쉬운 '이별의 정'

한 여름 밤의 꿈이었을까!  
27일부터 2박3일, 7차이산가족 상봉에 나선 이산가족들에게 흥인의 아이가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된 통한의 50여년은 그렇게 지나갔다.

남쪽 가족 110명(동행가족 10명 포함) 등 이산가족 328명은 29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그전에도 그랬듯이 눈물 속에 또다시 생이별을 해야 했다. 다시 헤어져야 하는 남과 북 혈육들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금강산은 이를 내린 비가 그친 뒤끝의 투명한 날씨에 한 쪽의 그림이었다.

가슴깊이 묻어둔 설움과 그리움이 북받쳐 서로를 껴안고 놓지 못하던 이산가족들은 금강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건네면서 가족·친척들의 주소

다시 확인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36년 만에 남북된 아들 윤경구(55)씨를 만난 이강삼(76·여)씨는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했다”며 울먹였고, 아들 윤씨는 “어머니 울지 마세요.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기만 하세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신채(85)씨가 북의 아내 김화실(82)씨에게 “나랑 같이 가서 살자”고 하자, 아내 김씨는 “만나기 시늬 전 평양에 왔으나 못 만나는 꿈을 꿔다”며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나 보네요.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아요”라며 울먹였다. 북의 아들 박운진(65)씨는 홀로 사는 전응오(85·여)씨에게 “통일이 될 때까지 사셔서 그 때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전씨는 휴양소 계단

에 주저앉아 울었다.

김선열(84·여)씨의 북쪽 아들 박창선(63)씨는 “어머니 앞지 말고 건강하세요”라며 손을 꼭 잡았고, 평양음대를 나온 황혜경(73)씨는 북의 여동생 해도(69)씨가 “언니 그만 울어요”라고 하자 “나 혼자 갈테니 너희들 가라”며 눈물을 쏟았다.

김영호(84)씨는 북의 아내 김리숙(77)씨와 딸 경순(57)씨의 손을 잡은 채 “어제 그제 서먹함이 이제 좀 가시려 하는데 헤어져야 하다니”라며 눈물을 보인 뒤 한참 지나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뻘이었는데 또 여기에 당신을 남겨두고 나만 가야 하네. 미안하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앞서 이들은 28일 애초 예정됐던 삼일포 관광 대신 온정리 현대문화회관에서 열린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1시간30간 관람하며 모처럼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한편, 7차 이산가족상봉 2진 남쪽 가족 476명은 30일부터 7월2일까지 금강산에서 북쪽 가족 100명과 만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東亞日報

2003. 6. 30 (월)

### 이산상봉 1진 110명 귀환

북한의 금강산에서 혈육들과 상봉했던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1진 110명이 29일 2박3일간의 상봉 일정을 마치고 강원 속초항으로 귀환했다.

한편 상봉단 2진 475명은 29일 속초 한화콘도에 모여 북한방문 안내교육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검역을 받았다.

한기홍기자 elgius@donga.com

## 朝鮮日報

2003. 6. 30 (월)



◇언제 또 보려나...

29일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 올라탄 남쪽 가족들이 북쪽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추석때 400~500명 이산상봉”

7차 2진 오늘 방북  
맹형규의원도 포함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올 추석에 남북 각각 400~500명의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의해 장재언(張在彦)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서 총재는 이날 제7차 남북이산

가족상봉이 열리는 금강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한국전쟁 중 납북 또는 실종된 안재홍(당시 한성일보), 방응모(조선일보), 이길용(동아일보)씨 등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고 생사 및 안부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30일 금강산으로 향하는 7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 556명(이산가족 475명)은 29일 강원 속초에 모여 방북 교육을 받았다. 부친 맹홍린(86)씨와 함께 북한의 고모 맹

은희(76)씨를 상봉하는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조부모님은 서울대 의대 신경외과 인턴으로 근무하다 한국전쟁 때 실종된 고모를 그리워하다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금강산공동취재단·안준현기자  
dejavu@hk.co.kr

### 한겨레

2003. 6. 30 (월)

### 추석께 500명 이산상봉 추진

남북적십자 원칙적 합의

남북은 오는 추석(9월11일)에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지금의 100명 규모보다 크게 늘어난 400~500명 수준으로 하기로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기자간

담회를 열어 이번 방북기간에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나 오는 추석에 남북이 각각 400~500명씩 인원을 크게 늘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제의했으며, 장 위원장이 “그렇게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서 총재는 “북측이 인원 수가 적어 어렵다면 꼭 납과

북이 상봉 이산가족 수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뜻도 개진했다”고 말해 비동수 상봉도 감안하고 있음을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그는 또 한국전쟁 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안재홍·양재하(이상 당시 한성일보), 이길용(동아일보), 방응모(조선일보), 이집순(당시 서울신문)씨 등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고 생사와 안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국민일보

2003. 6. 30 (월)

### 올 추석 남북왕래 이산상봉 500명 규모...韓赤 제의에 北도 긍정적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올 추석에 남북 각각 400~500명의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고 장재언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에게 제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 총재는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열리는 금강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쟁 중 납북 또는 실종된 안재홍(당시 한성일보), 방응모(조선일보), 이길용(동아일보)씨 등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고 생사 및 안부 확인을 요청했다”

고 말했다. 7차 이산가족상봉단 2진 556명(이산가족 475명)은 방북을 하루 앞둔 29일 강원 속초에 모여 방북 교육을 받았다. 특히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2진 상봉단에 포함돼 부친 맹홍린(86)씨와 함께 북한의 고모 맹은희(76)씨를 상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상봉단 1진 191명(이산가족 110명)은 이날 오전 작별 상봉을 마지막으로 2박3일간의 상봉 일정을 끝내고 설봉호편으로 강원 속초항에 귀환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중앙일보

2003. 6. 30 (월)

### 추석 이산가족 상봉 500명 규모로 확대 韓赤 제안에 北도 긍정적

남북 양측은 올 9월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지금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금강산 지역에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만나 “추석에 남과 북이 4백~5백명씩으로 인원을 늘려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북측 장위원장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금강산에 도착한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1진 1백명은 29일 귀환했으며, 남측 상봉단 2진 4백75명은 30일 북측 가족 1백명과 상봉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추석 이산상봉 500명으로 확대”

#### 서영훈총재 “北서 긍정 답변”

남북한은 9월 추석연휴(10~12일)에 즈음해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현재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추진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9일 밝혔다.

서 총재가 이날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에게 올 추석에 남과 북에서 각각 400~500명씩으로 인원을 늘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의하자 장 위원장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은 100명씩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있다.

서 총재는 또 6·25전쟁 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이길용(동아일보) 방응모(조선일보) 안재홍 양재하(이상 당시 한성일보) 이정순씨(당시 서울신문) 등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고 이들의 생사와 안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장 위원장은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추석상봉 500명 규모로”

#### 南제의에 北 긍정답변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금강산에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을 만나 올 추석에 남과 북이 400~500명씩 인원을 크게 늘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북측 장 위원장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 총재는 또 전쟁 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 생사와 안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

## 대한매일

# 이산가족 500명 추석 상봉

#### 서울·평양 교환방문 합의

남북한은 오는 추석(9월)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남과 북 각각 400~500명으로 크게 늘려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산시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두 차례 개별 만남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으며, 장 위원장은 “그렇게 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서 총재는 “북측이 인원이 적어 어렵다면 남북이 상봉자 수를 똑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도 개진했다.”고 말했다. 서 총재는 또 전쟁 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이정순(당시 서울신문)·이길용(동아일보)·방응모(조선일보)씨 등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고 이들의 생사와 안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면회소 건설 규모와 관련, 장 위원장은 “6·15 공동선언 3주년을 기념, 면회소가 통일 의 상징적 건물·거점으로서 역사적인 큰 건물로 지어져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2만평 규모를 다소 축소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였다.

한편 남측 가족 475명과 대한적십자사 요원 등 7차 이산상봉 2진 556명은 30일 예정된 북측 가족 100명과의 상봉을 위해 30일 집결지인 강원도 속초를 출발한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 경향신문

2003. 6. 30 (월)

## 올추석 400~500명 이산상봉

### 南北 의견접근...남북·실종 언론인 명단 전달

남북은 오는 9월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지금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추진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이날 오전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두차례 개별만담을 통해 올 추석에 남과 북이 각각 400~500명씩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장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서총재는 또 전쟁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안재홍, 양재하(이상 당시 한성일보), 이길용(동아일보), 방응모(조선일보), 이정순(당시 서울신문)씨 등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생사와 안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장위원장은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차세현기자 csh@kyunghyang.com

# 문화일보

2003. 6. 30 (월)

## 추석 이산가족 상봉 500명규모로 확대

### 韓赤제안에 北도 긍정답변

남과 북은 추석에 즈음해 오는 9월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지금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추진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올 추석에 남과 북 각각 400~500명씩 등 인원을 크게 늘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의했고, 북측 장위원장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서 총재는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북측이 인원이 적어 어렵다면 꼭 남과 북이 상봉가족 수를 똑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도 개진했다"고 말했다. 김상협기자

# 매일경제

2003. 6. 30 (월)

## 추석 이산가족 500명 상봉 추진

남북 양측은 오는 9월 추석에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규모를 대폭 늘려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9일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두 차례 개별만담을 통해 올 추석에 남과 북 각각 400~500명씩 인원을 크게 늘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장위원장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서 총재는 또 전쟁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안재홍 이길용 방응모 등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한 뒤 생사와 안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서울경제

2003. 6. 30 (월)

##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남북 400~500명씩 늘려

남북 양측은 추석 즈음에 오는 9월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지금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추진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이번 방북기간에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의 두 차례 개별만담을 통해 올 추석에 남과 북 각각 400~500명씩 등 인원을 크게 늘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북측 장 위원장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2003. 7. 1 (화)



北인민배우 세자매 감격 상봉 북측에서 인민배우 칭호를 받고 있는 유경애(左)씨가 30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측에서 올라간 언니 경순(中)씨와 동생 경희씨를 만나 얼굴을 부비며 즐거워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東亞日報

2003. 7. 1 (화)

## 대한매일

2003. 7. 1 (화)

### 이산상봉 2진 北가족 재회 맹형규의원 北고모 만나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남측 상봉단 2진이 30일 북한 금강산에서 북의 혈육과 50여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했다.

이날 오전 강원 속초항을 출발해 오후 북한 장전항에 도착한 남측 가족 47명은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측의 혈육 100명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단에 참가한 맹형규의원(57·한나라당)은 부친 흥렬씨(86)와 큰고모 영희(78), 동생 문규씨(48) 등과 함께 북측의 작은고모 은희씨(76)를 만났다.

남측 상봉단은 이날 단체 상봉에 이어 2박3일간 개별상봉과 북측 교예단의 공연 등을 관람한 뒤 2일 속초항으로 돌아온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고모, 개구쟁이 조카 형규예요”

### 7차 2진 이산상봉 첫날... 맹형규의원 北고모 만나



한나라당 맹형규(사진·57) 의원이 30일 금강산 온정각휴게소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북측의 고모를 만났다. 맹 의원의 고모 은희(76)씨는 오빠이자 맹 의원의 부친인 흥렬(86)씨와 언니 영희(79)씨를 만나 54년 만에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맹 의원이 한나라당

명함을 내밀자, “그 당에선 6·15북남공동 선언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 같더구나.”고 말해 맹의원을 곤혹스럽게 했다. 그러나 은희씨가 맹 의원에게 “어릴적 불기짝 맞은 생각 안나니.”라고 묻고 맹 의원이 “제가 어릴 때 장난이 심했죠.”라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한편 이날 이산가족 상봉에서 북측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단연 만능배우 출신 유경애(83)씨였다.

푸른 한복 저고리에 ‘김일성훈장’과 ‘노력영웅훈장’을 달고 입장한 유씨는 남의 언니 경순(87)씨, 남동생 정식(78)씨 등과 반세기 만에 감격의 해후를 했다. 경애씨는 1945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북한의 첫 영화 ‘내 고향’에서 남자 주인공의 애인역을 맡았으며 북한 예술인 최대 영예인 인민배우와 공훈배우 칭호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이도운 기자·금강산 공동취재단

## 한겨레

2003. 7. 1 (화)

## 한국일보

2003. 7. 1 (화)

### ■ 7차 남북이산가족 2진 상봉 첫날

## ‘52년 수절’ 회한의 눈물

‘20대 부부’ 백발되어...

맹형규의원, 북 고모 만나

30일 금강산은 또 다시 눈물 속에 감겼다.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2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북가족 472명은 이날 오후 금강산 운정각 휴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과 공동만찬에서 북쪽의 남편, 아내, 형제 100명과 반세기만에 포옹을 나눴다. 이들은 이날 4시간 여 바닷길을 달려 금강산에 도착했으며, 개별상봉과 참관상봉, 작별상봉을 한 뒤 2일 귀환한다.

백수(99)를 맞은 남쪽 어머니 김용연씨는 이날 55년만에 17살 어린나이를 제주 4·3사태의 회오리에 휘말려 생이별했던 아들 김경중(72)씨를 다시 만났다. 김씨는 “어머니, 어머니”만 되면서 말을 잊지 못했다. 노모는 아들을 보고 한동안 말하지 않는 듯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있어줘 고맙다”고 흐느꼈다.

진경봉에 행방불명된 남편을 기다리며 술하에 자식도 없이 52년간을 수절해 온 남쪽의 아내 곽호임

(73)씨는 품에도 그리던 북쪽의 남편 리규태(76)씨를 만나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의용군으로 징집돼 생이별한 남편 김관수(72)씨를 상봉한 남쪽의 아내 권점순(69)씨는 “왜 이제야 연락했다. 새로 시집을 갔어도 53년 동안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그간의 그리움을 쏟아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이산가족 상봉단에 참가한 맹형규의원(57·한나라당)도 아버지 맹흥립(86)씨와 함께 북쪽의 작은 고모 은희(76)씨를 만났다. 맹의원이 국회의원 명함을 건네자, 은희씨는 “조국통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느라 애쓰는구나”라며 대견스러워 했다.

상봉단 최연소자인 김성준(10)군은 외갓쪽 작은 할아버지인 김관수씨를 보고 처음엔 다소 어색해하다가 이내 품에 안겼다. 김군은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며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떨어져 사는 것이 어렵다”며 할아버지 김씨에게 매달렸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손원재 기자

wonje@hani.co.kr

## 南 99세노모 “아들아 살아있어 고맙다”

■ 이산가족 2진 472명 상봉  
맹형규의원도 北고모 만나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한 남측 상봉단 472명이 30일 오후 금강산 운정각, 휴게소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단체상봉을 한데 이어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반백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혈육의 정을 나눴다.

국회의원으로는 처음 상봉단에 포함된 한나라당 맹형규(57) 의원은 부친 맹흥립(86)씨 등과 함께 54년만에 북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작은 고모 은희(76)씨와 상봉의 감격을 맞보았다. 은희씨는 오빠와 언니 영희(79)씨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 대신 미소를 지어보였다. 은희씨가 맹 의원에게 “어릴 적, 불기떡 맞은 생각 나니”라고 묻자 맹 의원은 “제가 어릴 때 장난이 심했죠”라며 웃었다. 은희씨

는 조카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당은 왜 6·15 선언을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첫 만남이 끝난 뒤 맹 의원은 “고모님이 북에서도 인텔리해서 한나라당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담담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상 만나니 감회가 깊다”고 눈물을 글썽했다.

설봉호가 장진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남측 최고령자인 김용녀(99) 할머니는 증작 북측의 아들 김경중(72)씨를 만나고는 멍하니 바라만 볼뿐 말문을 열지 못했다. 17세의 어린나이에 제주 4·3사태의 회오리에 휩쓸려 생이별했던 아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되뇌이자 그 때서야 김 할머니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며 주름이 깊게 패인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의용군으로 징집돼 생이별한 북의 남편 김관수(72)씨를 53년만에 만난 권점순(69)씨는 “살아있었으면서 왜 이제야 연락했느냐. 새로 시집을 갔지만 망신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면서 가슴속에 쌓인 그리움을 쏟아냈다.

유경순(87) 정식(78) 남매는 북에서 인민배우로 활동해 온 경애(83)씨를 와락 끌어안은 채 분단이 가로막은 동기간의 정을 듬뿍 나눴다. 경애씨는 “나는 영예롭게 잘 살아왔다”며 김일성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남북 가족은 4시간여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7월1일 오전 해금강 호텔에서 있을 가족상봉을 가약하며 각기 속으로 돌아가 잠 못 이루는 금강산의 첫날 밤을 보냈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양정대기자 torch@hk.co.kr

# 99세 노모 72세 아들 못알아봐 “어머니”하고 불러도 “네”대답

## 이산가족 2차상봉 첫날 스케치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에 참가한 남북 이산가족들은 30일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50여년만에 혈육들과 만나 세원과 함께 변한 피붙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았다.

열일곱살에 가족과 헤어졌던 북의 아들 김경중(72)씨는 노모 김용연(99)씨를 만났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 달라진 아들이 “어머니”라고 불러도 “네”로 답하며 경중씨를 알아보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경중씨가 가족들과 헤어진 것은 6·25 전쟁 전인 1948년. 재주가 고향인 그는 4·3사태의 회오리를 피하지 못했다. 경중씨는 “반란군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 앞에서 군경에 체포된 뒤 인천의 소년형무소로 이감돼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수감중 6·25 전쟁이 터지면서 형무소에서 풀려나 우여곡절 끝에 북으로 가게 됐다.

노모 김씨는 ‘아들이 살아 있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심정으로 50년 넘게 고향 집을 떠나지 않고 무작정 아들을 기다렸다고 한다. 경중씨가 행방불명된 뒤에도 김씨 가족들은 한동안 사상문제로 주위로부터의 냉대에 시달리기도 했다. 막내동생 창중(61)씨는

“이렇게 만났는데 또 헤어지면 어머니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또 기다리느냐”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죽은 것으로 여겼던 북의 아들 문창보(75)씨를 만난 엄세업(95) 할머니는 그를 보자 믿어지지 않는 듯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엄 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창보씨가 살던 서울 하숙집이 폭격을 당했다는 소식에 저 세상 사람이 된 줄 알고 여태껏 단 한 차례도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창보씨로부터 가족상봉 신청이 왔고 꿈에도 생각 못한 상봉을 하게 된 것이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앉은 엄 할머니는 기억속의 젊은 아들 모습과 비교하듯 계속 창보씨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요?”라고 묻는 창보씨에게 노모 엄씨는 한숨 지은 뒤 “가족이 맞아. 무슨 일을 하느냐”고 아들만 걱정했다.

상봉단에는 최연소자의 가족상봉도 있었다. 북측에 있는 외할머니의 남동생 김관수(72)씨를 만난 김성준(10·서울 용곡초등 4)군이 그 주인공. 외할머니 일림(80)씨와 함께 금강산에 간 성준군은 “의가족 할아버지를 만나 너무 좋지만 곧 헤어질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성준군은 이번 상봉을 위해 학교측에 사유서를 제출, 허락을 받아 상봉장을 찾았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내일신문

2003. 7. 1 (화)

### 남북가족 개별상봉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은 1일 오전 남측 숙소인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을 갖고 전날 저녁 단체상봉에서 못다 나눈 얘기를 주고받았다.

눈물과 웃음으로 범벅이 됐던 첫날 재회와 달리 객실에서 마주앉은 남과 북의 가족들은 혈육의 정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꿈에도 그리던 북측의 남편 리규태(76)씨를 만난 남측의 아내 곽효임(73)씨는 53년만에 한 방에서 남편을 마주 대하고 꼭 잡은 손을 놓

지 못했다. 어제 단체상봉장에서 수줍어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리씨와 곽씨는 이날 개별상봉에서 보다 진솔한 얘기를 나누며 애뜻한 정을 새삼 느꼈다. 곽씨는 ‘미완의 인연’을 조금이라도 채우려는 듯 준비한 금반지를 꺼내 거칠어진 리씨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북한의 인민배우 유경애(83)씨와 상봉한 언니 경순(88)씨와 동생 경희(81)씨는 “어제는 사람들이 많고 분위기가 들떠 있어 얘기를 잘 못했다”며 경애씨에게 북측 가족들의 안부를 재차 묻기도 했다. 경애씨는 남측 가족들의 사진을 찬찬히 뜯어보며 “누구냐”고 물어봤다. 경순

씨와 경희씨는 내복과 양말 등이 든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북측 취재진은 첫날에 이어 이날도 경애씨 상봉장면 주변에서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전날 북한의 아들 김경중(72)씨를 알아보지 못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던 남측의 노모 김용연(99)씨는 개별상봉에서도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경중씨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노모의 손을 잡고 동생 성중(69)씨와 창중(61)씨에게 “고향산천을 어떻게 변했느냐”며 “어린시절 뛰어 놀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금강산=공동취재단



1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이산가족 2진 공동오찬장에서 남·북의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남아내·北남편 결혼사진 보며 '눈물 글썽'

### ■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오후엔 삼일포 단체관광

7차 이산가족 상봉단 472명은 1일 오전 숙소인 해금강호텔에서 개별상봉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북측의 가족들과 삼일포 나들이를 하는 것으로 상봉 이틀째 일정을 마쳤다.

남측 최고령자인 99세의 김용녀 할머니는 "어머니, 지난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큰아들입니다"라고 반갑게 손을 붙잡는 북의 아들 김경종(72)씨를 알아보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남측의 막내 아들 성종(69)씨가 "어머니가 어젯밤에 왜 형남네 집에 못가느냐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자 경종씨는 김 할머니를 꼭 끌어안은 채 신음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전날 상봉의 충격에 잠시 실신하기도 했던 곽호임(73)씨는 북의 남편 리규태(76)씨가 선물보따리를 안고 방에 들어서자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남측 가족들이 결혼사진을 꺼내보이자 리씨는 "호임이는 내가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것 아니겠어"라며 주름이 깊게 패인 곽씨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분단으로 성(姓)까지 달라진 북의 최성욱(69)씨는 동생 이치민(64), 승명(60)씨의 방에 들어서며 "어제 꿈 같은 상봉의 기억이 선하다"면서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다.

북측의 여동생 김애현(67)씨를 만난 자한(70)씨 자매들도 서로 준비한 사진들을 꺼내보며 현욱의 정을 나눴다.

/금강산=공동취재단·양정대기자 torch@hk.co.kr



어깨동무한 남북 5형제

북한에 사는 노윤홍씨(맨 오른쪽)를 53년만에 만난 남측 형제들이 1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이산가족 공동오찬장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합창하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 남편 재회 충격에 밤새 고열·실신

## 이산상봉 이틀째... 개별만남 갖고 삼일포 나들이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측상봉단 2진은 행사 이틀째인 1일 오전 남측상봉단 숙소인 해금강호텔에서 북측 가족들과 개별상봉을 갖고 삼일포 나들이를 함께 했다. 일부 고령자들은 뻣뻣한 일정 때문에 피로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반세기 만에 만난 혈육의 손을 놓지 못했다.

제주 4·3사건에 휘말렸다 월북했던 북측 아들 김경종(72)씨는 남측 어머니 김용연(95)씨의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를 외쳤지만 김 할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경종씨는 "제주도에 갇혀 있을 때 두부 두모를 들고 와 먹여주시던 어머니가 기억난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 이규태(76)씨와 재회한 곽호임(73)씨는 첫날 상봉의 충격으로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 잠시 실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씨는 이씨가 선물보따리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서자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남측 가족들이 부부의 결혼사진을 꺼내 보이며 "이때 생각나느냐"고 묻자 이씨는 "호임이는 내가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대답하며 지나온 이별의 세월을 회상했다.

큰 아들 김용배(71)씨를 만난 최순달(93) 할머니는 계속 "감사합니다"를 되뇌며 아들 손을 놓지 않았다. 고령임에도 그동안 살면서 잔병치레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최씨는 심한 배멀미와 아들상봉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밤새 잠 못자고 뜯는으로 새웠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개별상봉에 이어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오찬은 평양 해방산여관 소속 여성봉사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북측 미녀 30여명은 남측 이산가족이 식당으로 입장하자 두 줄로 늘어서 북한가요 '반갑습네다'에 맞춰 박수를 치며 환영인사를 건넸다. 삼일포 나들이에 서는 이산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곳곳을 거닐며 기념촬영을 하고 소풍나온 듯 돛자리를 깔고 정담을 나눴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2일 온정각 마당에서 작별상봉을 마지막으로 금강산 장전항을 떠나 속초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경향신문

2003. 7. 2 (수)

## 53년만의 상봉 남북 5형제...“통일이여~오라”



1일 금강산 김정숙휴게소에서 열린 이산가족 2진 오찬행사에서 북측 로윤중씨(오른쪽)와 남측 형제들이 53년만에 만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금강산 / 사진공동취재단

# 東亞日報

2003. 7. 2 (수)



“헤어진 후 이렇게 살았어요”

금강산=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인 1일 북측의 김애한씨(왼쪽)가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남측의 가족들과 개별상봉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언제 또 만날까" 제7차 남북이산가족 2진 상봉 마지막날인 2일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이산가족들이 이별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곽성호기자 tra@22@

## 문화일보

2003. 7. 2 (수)

### 南이산상봉 2진 귀환

▶ 지난달 27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일 오전 남측 상봉단 2진과 북측 가족과의 작별상봉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남측 상봉단 2진 472명은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무리하고 설봉호 편으로 북의 고성항을 출발, 이날 오후 4시쯤 속초항에 귀환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53년만에 결혼사진 보며 감격

### • 이산가족 개별상봉

7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의 방북에 맞춰 잠마전선이 북상한다는 기상예보와 달리 금강산 지역에는 전날에 이어 1일에도 간간히 이슬비가 내렸지만 상봉행사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체류 이틀째인 이날 남측 숙소인 해금강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이뤄진 개별상봉에서 남북 가족들은 전날 미처 나누지 못한 소식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남측 상봉단 최고령자인 김용연 할머니(99)는 아침에도 끝내 북의 아들 김경종씨(72)를 알아보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아침 10시 남측 숙소인 해금강호텔의 모친방을 찾아온 김종씨는 어머니 귀에 대고 “어머니, 지난 밤에 편안히 쉬셨습니까. 큰아들입니다”라고 외쳤으나 김할머니는 아들 쪽을 잠시 바라보고 기

### 칠순의 노부부 환한 미소 상봉 충격에 고열·실신도

침을 할 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종씨는 “제주도에서 지하감옥에 갇혀있을 때 어머니께서 두부 2모를 들고 오셔서 먹여주시던 기억이 난다”며 옛기억을 더듬기도 했다.

큰아들 김운배씨(71)를 만난 최순담 할머니(93)는 연방 “감사합니다”라고 되뇌면서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직까지 잔병치레 한번 하지 않았던 최할머니는 심한 벅달미와 아들 상봉으로 인한 충격 탓인지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터였다.

남편 리규태씨(76)와 재회한 곽호임씨(73)도 첫날 상봉의 충격으로 밤새 고열로 시달리다가 잠시 실신하기도 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리씨가 선물보따리를 안고 방

으로 들어서자 곽씨는 창백한 얼굴에도 환한 미소를 지어보았다.

남측 가족들이 두 부부의 결혼 사진을 꺼내 보이며 “이때 생각 나느냐”고 말하자 리씨는 “호임이는 내가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53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단 말이”라고 말했다.

○...상봉단은 개별상봉 후 삼일포 나들이로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다. 남측 상봉단의 임부 고령자들은 전날 4시간여 동안의 항해후 가진 단체상봉 등 빡빡한 일정으로 피로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과 북의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관동관경의 하나인 삼일포를 거닐면서 곳곳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소풍온 기분으로 돛자리를 깔고 정담을 나눴다.

상봉단 2진은 2일 오전 온정각 마당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장전항에서 속초항으로 출발, 2박3일의 짧은 상봉일정을 마친다.

금강산/공동취재단

## 대한매일

2003. 7. 2 (수)



반세기만의 회포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인 1일 금강산 삼일포 관광길에 나선 이산 가족들이 호수 주변에 자리를 깔고 앉아 50년 묵은 회포를 풀고 있다.

금강산 감성남기자 snk@

‘금강산서 죽겠다’ 쓰러진 할머니

北남편 만난 관호임씨  
의식잃어 헬기로 귀환

52년간 수절후 꿈에 그리던 북쪽 남편을 만난 남의 아내가 만남의 충격으로 작별상봉도 못한 채 쓰러진 뒤 육로 및 헬기편으로 후송됐다.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날인 2일 관호임(73)씨는 작별행사장으로 향하던 버스안에서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는 심적 부담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속에서 남편 이규태(76)씨를 보내야 했다. 관씨는 이날 오전 9시 온정각 휴게소 작별상봉장에 도착하자마자 구토를 하며 정신을 잃어 휴게소 옆 현대아산 금강산 병원으로 후송, 응급치료를 받았다.

남편 이씨는 병상의 아내를 부자 “괜찮아, 괜찮아.”를 되풀이하면서 인타까지 쳤다. 이씨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괜찮아야 할텐데... 53년 만에 만났는데 마음이 찢어진다.”고 눈물을 활짝 흘렸다.

한편 오전 10시48분 관씨를 태운 구급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2분 후인 10시 50분 남방한계선인 금강문을 통과했다.

금강동문에서 헬기장까지의 거리는 약 2km. 군 지프가 구급차를 호송하는 가운데 길옆길에는 헌병이 배치돼 교통정리를 했다.

이같은 조치에 힘입어 구급차



언제 다시... 제7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마지막날인 2일 북쪽 가족을 태운 버스가 북한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를 떠나기 직전, 이산가족들이 애타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금강산 공동취재반 감성남기자 srk@

가 헬기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55분. 관씨 일행이 헬기에 옮겨타는 5분 동안 발빠른 출입국 수속이 이뤄졌으며, 11시2분 이륙한 구급헬기는 26분 만에

오전 11시28분 강릉아산병원에 도착했다. 동해선을 통한 최초의 환자수송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는 순간이었다.

금강산 이도은기자 dawn@

한겨레

2003. 7. 3 (목)

눈부신 햇살속 애달픈 이별

■ 7차 상봉 마지막날

‘52년 수절’ 관호임씨 후송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전인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쪽 가족들을 북쪽의 아버지, 오누이들 싣고 떠나가는 버스를 향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손을 흔들었다.

눈부신 햇살이 더 시러왔다. ‘차라리 비라도 내리면 눈물이라도 났을텐데...’

눈물 속에 처러진 1시간여 짧은 작별상봉을 끝으로 남쪽 가족들은 다시금 현실로 되돌아왔다.

남쪽 가족 472명은 배강과 육로를 통해 남쪽으로 되돌아왔고, 7차 상봉행사도 막을 내렸다. 앞서 남쪽 상봉단 1진 가족 110명은 지난달 27~29일 금강산에서 북쪽 가족 218명과 만났다.

이들간 극적인 기쁨과 슬픔을 한꺼번에 맛보느라 심신이 쇠약해진 탓에 일부 고령자들은 끝내 각별봉에 나오지 못했다. 북쪽 리규태(76)씨의 남쪽 아내 관호임(73)씨는 함양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조카 1명과 함께 동해선 육로를 통해 영월리수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강릉의 병원으로 후송됐다. 금강산·공동취재반, 손원재 기자

국민일보

2003. 7. 3 (목)

‘언제 또 만나나...’ 눈물의 이별

막내린 7차 이산가족 상봉

남쪽 이산가족 2진 상봉단이 2일 오전 금강산에서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간의 짧은 일정 끝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2진으로 나눠 진행된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막을 내렸다.

남쪽 상봉단 472명과 북쪽 가족 100명은 1시간 동안의 짧은 만남에서 함께 찍은 사진용 주고받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이들은 북쪽 가족들이 하나 둘 버스에 올라 행사장인 온정각을 출발하자 아쉬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멀어져가는 부모 형제 자매에게 눈물로 작별을 고했다. 버스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쪽 가족들에게 북쪽 이산상봉단은 손을 흔들며 멀어져갔다. 만났다는 기쁨은 곧 떠나보내는 탄식과 눈물로 바뀌었다.

북쪽 남편 이규태(76)씨를 상봉했던 남쪽

北남편 재회충격 실신한 아내  
작별인사도 못하고 육로이송

아내 관호임(73)씨는 작별상봉도 갖지 못한 채 실신, 육로로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이송됐다. 52년간 수절꿈에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난 관씨는 작별행사장으로 향하던 버스안에서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관씨가 의료진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될 때 남편 이씨가 동행했다. 이씨는 혈압이 40~70까지 떨어져 의료진에 의해 산소마스크가 씌어진 관씨곁에 앉아 “괜찮아, 괜찮아”를 되풀이했다. 이씨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마음이 찢어진다”면서 남쪽 조카 3명을 끌어안고 눈물을 활짝 흘렸다.

남쪽 조카 이재호(64)씨는 “아침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온정각까지 오는 차 안에서 쓰러지셨다”면서 “침년부터 만남의 충격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관씨는 아침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금강산에서 죽겠다”고 말해 주위의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해 4월 이후 금강산에서 4번 일인 이산상봉 행사 도중 한자가 발생해 육로로 이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쪽 상봉단장인 장재연 조선직업사회 위원장은 “올 추석에 500명의 대규모 상봉단을 교환하는 문제점 협의중이니 잘 될 것이다”라면서 이산가족들을 위로했다.

남쪽 상봉단 2진은 낮 12시쯤 상선원에서 실봉호편으로 출발해 오후 4시 속초항에 도착, 해산했다. 이에 앞서 우리측 1차 상봉단 100명과 북쪽 가족 218명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상봉했다. 금강산·공동취재반

# 東亞日報

2003. 7. 3 (목)



## 이산가족 '아쉬운 작별'

금강산=원대연기자 yeon72@yonga.com

제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날인 2일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한겨레

2003. 7. 3 (목)



## '눈물의 입맞춤'

금강산/연합

이산가족 상봉단이 작별하던 2일 북한 인민배우 유경애씨(위)가 남측 방문단 동생과 입을 맞추며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 한국일보

2003. 7. 3 (목)



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장으로 향하다 쓰러진 곽호임 할머니를 태운 구급차가 동해육로를 통해 군사 분계선을 넘고 있다. 곽 할머니는 북측 안내차량의 선도로 남측으로 긴급 후송됐다. 2월 개통된 이 도로로 환자가 후송된 것은 처음이다. /동해총응부대제공

## 남측 이산상봉단 귀환

### 실신 남측할머니 육로로 후송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한 남측 방문단은 2일 오전 작별상봉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 뒤 낮 12시 설봉호 편으로 장전항을 출발, 속초로 귀환했다.

남측 상봉단 472명은 이날 오전 9시 금강산 온정각휴게소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1시간여 동안 해후했다. 52년간 수절해 온 남측의 곽호임(73)씨는 이날 작별행사장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긴급 후송되는 바람에 북의 남편 리규태(76)씨와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 東亞日報

2003. 7. 3 (목)

## 말말말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금강산에서 죽겠다-52년간 수절 후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꿈에도 그리던 북측 남편을 만난 남

쪽의 아내 곽호임씨(73), 2일 상봉 마지막 날 아침 주위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며. 연합

# '외화부족' 北 대외교류 박차

## • 7·1조치후 경제난 심화

북핵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남북 경협을 비롯해 대외교류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북한은 오는 15일부터 평양에서 국제 무역투자 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한동안 중단됐던 미국과의 유해 반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대외관계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북관계는 오히려 순풍을 타고 있다. 지난달 14일 철도·도로 연결식 행사 이후 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6월27일~7월2일), 개성공단 착공식(6월30일) 등 남북간 합의사항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 오는 9~12일 서울에선 남북 장관급회담이 재개된다.

북한이 적극적인 대외협력에 나서려는 것은 무엇보다 작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됐던 인플레이와 만성적인 자재부족 등 공급부문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외화획득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동시에 베이징 회담 후속 다자회담에서 소외된 상황을 일부나마 개선해보려는 의도도 보인다.

북한 무역성이 주최하는 무역투자 상담

## 평양서 무역투자 상담회

### 미군유해 반환협상 재개

회는 화학비료와 수자원 개조에서부터 정 보통신, 문화용품, 의식업체 등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방북 외국 기업인들이 투자 관심지역을 시찰할 수 있도록 해 강한 개방의지를 내비쳤다.

핵문제로 중단된 미군 유해반환협상 재개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조선인민군 관 문점 대표부는 협상재개 이유로 '인도주의 적 문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북·미간의 긴 장지수가 높아진 가운데 이례적인 결정으로 분석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은 유해 발굴 과정에서 북한내 지형 및 지질을 탐지하는 효과를 거둔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허용한 것은 미국과 직접 채널을 갖겠다는 의 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선 핵위기 장기화 국면에서 경제 적 실리를 얻으면서 '번죽'을 울리는 방식 으로서도 대외관계 개선에 노력을 겸주하 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설명이다.

김진호기자

# 경향신문

2003. 7. 4 (금)

# 매일경제

2003. 7. 4 (금)

# 이산상봉 방식 바꿀때 됐다

기자 24시

## 윤상환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경 은 언제나 예치롭기 그지없 다. 반세기 만에 만나 낯설 어진 얼굴을 서로 비비고 쓰 다듬으며 오열하는 모습은 당사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 고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도 안타깝게 만든다.



족 문제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고, 올해 못하면 내 년에 할 수 있는 그런 한가 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많은 이산가족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나 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욱이 2박3일 간 접해진 시간에 울고 웃다가 헤어지고 나면 그뿐.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

지난 2일 금강산에서 막내린 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말야들을 만난 백수의 노모, 52년 수질한 할머니 등 많은 눈물과 안타까운 사연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의 상봉이 아닐 때는 어색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게다가 북쪽의 가족들은 공개된 자리에선 '고장난 녹음기'처럼 여전히 '장군님 사랑, 수령님 은총' 따위를 늘어놓으면서 체제 선전으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고령자 위주, 직계가족 위주 로 상봉단을 선발해야 한다. 이산가

또 대부분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속초에서 4시간이나 험한 뱃길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다. 6차 상봉 때 육 로로 이동한 것처럼 다음 상봉부터 는 반드시 육로로 이동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의 공개 여부도 신중 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단체 상봉, 개별상봉, 관영만찬 등을 공개 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되다보니 북쪽 가족들이 체제 선전을 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첫 만남인 단체상봉 정도 만 공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통일부, 대한적십자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다음 상봉부터는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비료 20만 t, 쌀 40만 t을 아무런 조건없이 보낸만큼 북쪽에 대 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의 상시 적 만남을 담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정치부/shyoon@mk.co.kr

## <7차 이산상봉 합의 불구 '사스' 탓 주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남북이 지난달 말 10차 장관급 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7차 이산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선뜻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주춤하고 있다.

10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양 기관 실무자끼리 7차 이산상봉 날짜를 두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일부와 한적 관계자는 "6.15 선언 당일에는 민간 교류 행사를 할 것인 만큼 6월20일 전후에 7차 상봉 행사를 열어야 할 것"이라며 "내주 중 구체적인 날짜를 잡고 상봉 이산가족 선정을 위한 한적 인선위원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뜻 날짜를 잡지 못하는 것은 북측이 최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이유로 남북 교류를 비롯한 대외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남측이 서둘러봤자 북측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밖에도 남북은 10차 장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일정도 곧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4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던 면회소 착공식이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면회소 규모를 둘러싼 양측 이견 때문인데, 10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막상 면회소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면회소 규모와 관련, 남측은 이산가족 600명과 진행 요원 등 최대 1천여 명을 수용할 2천300여 평 규모를 주장한 반면, 북측은 각종 회담도 함께 치를 '종합센터' 개념으로 7만㎡(2만2천평) 규모의 면회소 건설을 요구했다.

남북은 지난 3월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추진단 2차 회의에서 한때 남측이 3천여 평, 북측이 1만8천 평까지 제시했지만 여전히 이견의 폭이 큰 상태다.

게다가 북측은 2차 건설 추진단 회의가 끝났을 때 "다음 접촉은 우리(북) 측이 내놓은 안을 남측에서 더 연구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때 날짜를 통지해 오는 데 따라 갖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남측으로선 명분도 없이 면회소 규모를 3천여 평 보다 늘려 짓자고 제안하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막상 면회소 착공식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적 관계자는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hungwon@yna.co.kr

(끝)



## 이산가족 상봉후보 300명 12일 선정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12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예비후보 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적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 본사 1층 회의실에서 인선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선정 기준을 결정한다.

남북은 지난달 말 제10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7차 이산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적은 내주중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구체적인 일정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chungwon@yna.co.kr

(끝)

## 7차 이산상봉 6.19~24일로 내일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12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기로 한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열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적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측이 현재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이유로 금강산 관광 등 대외 접촉을 전면 중단한 상태여서 7차 상봉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한적은 이날 오전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10만1천950명 중에서 7차 상봉 예비후보 300명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적에서 열린 인선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 선정 기준과 관련,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령자, 부부.부모.자식, 형제 순으로 가중치를 주되 95세 이상 고령자는 이후 생사.주소 확인 후보 200명을 선정할 때 특별 배려하기로 결정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예비후보 300명은 80세 이상 151명과, 70대 122명, 60대 27명이고 59세 이하는 제외됐다.

이중 북측 이산가족과 부부.부모.자식 관계인 이산가족은 214명이고 형제 관계인 이산가족은 86명이며 삼촌 이상인 경우는 제외됐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97명, 경기도 86명, 인천.강원도 각각 20명, 부산 18명, 충남 12명, 대전 9명, 대구.경북 각각 8명, 충북 7명, 전남 5명, 전북 4명, 경남 3명, 광주.울산.제주 각각 1명씩이고 성별로는 남자 217명, 여자 83명이다.

출신 지역별로는 황해도 86명, 평남 55명, 함남 44명, 평북 33명, 경기도 13명, 함북 11명, 강원도 4명 등이다.

한적 관계자는 "이번에는 19일부터 21일까지 남측 이산가족 100명이 북측 가족, 친척을 먼저 만나고 22일부터 24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남측 가족, 친척을 만나도록 하자고 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chungwon@yna.co.kr

(끝)



2003. 5. 26 (월)

## 7차 이산상봉 생사확인의회서 28일 교환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徐英勳)는 28일 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200명 생사.주소확인 의뢰서를 북측과 교환하고 새달 12일 회보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적은 또 내달 15일 상봉자 100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적에 따르면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차 상봉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남북 적십자는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는 28일 7차 상봉 후보 200명의 생사.주소확인 의뢰서를, 내달 12일 200명 생사.주소확인회보서를, 내달 15일 상봉자 100명 명단을 각각 교환하기로 했다.

북측은 한적이 지난 13일 7차 이산상봉 행사를 내달 19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대신 이날 200명 생사.주소확인 의뢰서를 교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적은 지난 12일 선정한 7차 이산 상봉 예비후보 300명 중 북측에 생사.주소확인을 의뢰할 200명을 이날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측 상봉 후보 200명은 남자 148명, 여자 52명이며 90세 이상 14명, 80대 71명, 70대 89명, 60대 26명이다. 가족관계별로는 부부.부모.자식을 만날 이산가족이 145명, 형제.자매를 만날 이산가족이 55명이다.

---

또 출신지역별로는 황해도 55명, 평남 39명, 평북 20명, 함남 28명, 함북 4명, 경기도 8명, 강원도 3명, 기타 43명이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58명, 경기도 53명, 인천 16명, 부산.강원 각각 13명, 대전.충남 각각 8명, 경북 7명, 충북 6명, 대구.전북.경남 각각 4명, 전남 3명, 광주.울산.제주 각각 1명이다.

chungwon@yna.co.kr

(끝)

---



2003. 5. 28 (수)

## 7차 이산상봉 후보 명단 교환

---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남북 적십자사는 28일 판문점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보 20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주소확인의회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의뢰서 교환 직후 남측 가족.친척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북측이 생사확인을 의뢰한 200명의 명단을 적십자사(www.redcross.or.kr)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reunion.unikorea.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북측 의뢰자를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141명(70.5%), 60대가 50명(25%), 80대 이상이 9명(4.5%)이었으며 충남 서천 출신의 리용준씨가 94세 최고령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159명, 여자가 41명이다.

출신지역은 경북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2명, 서울 26명, 충북 24명, 충남 20명, 강원 17명, 전남 15명, 전북 7명, 경남 5명, 제주 4명, 인천 4명 등이다.

남북은 새달 12일 200명의 생사.주소 확인회보서를, 15일에는 상봉자 100명 명단을 각각 교환할 예정이다. 7차 상봉 행사일정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chungwon@yna.co.kr

(끝)

---

## <맹형규의원 北고모 만날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의 고모 맹은희(76)씨가 28일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보내온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보 200명에 포함돼 있어 상봉 여부가 주목된다.

북측 후보 명단에 따르면 맹은희씨는 아버지 맹주천(사망)씨와 어머니 구숙자(사망)씨, 오빠 맹흥렬(86.경기도 양평 거주.맹 의원의 아버지), 광렬(82)씨, 언니 영희(79.미국 거주)씨와 형부 조동제(82)씨, 조카 조성구(53)씨, 맹 의원 등과의 상봉을 희망했다.

맹 의원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고모님을 직접 뵈 적은 없지만 집에 젊은 시절 고모님의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다"며 "고모님이 6.25 전쟁때 서울여의전 재학중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북쪽에 살아계신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할아버지 맹주천씨는 경기.용산고 등에서 교장을 지낸 뒤 70년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도 고모를 그리워하다 10여년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장남인 맹 의원의 아버지나 작은아버지 광렬씨, 고모 영희씨 등은 모두 건강하기 때문에 북측의 고모가 상봉자 100명에 포함되기만 하면 배를 타고 금강산에 갈 예정이다.

맹 의원은 "오늘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은희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이냐'고 물으셨다"며 "기회가 된다면 나도 만사 제쳐놓고 고모님을 만나 뵈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번에 100명 밖에 만나지 못하고 그나마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이산가족의 한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루 빨리 면회소도 설치되어야 하고 편지 왕래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했다.

한편 북측이 맹은희씨를 내달 15일 남측에 통보할 상봉자 100명에 포함시키더라도 아직까지 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맹 의원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chungwon@yna.co.kr

(끝)



## <금강산관광 재개..7차상봉도 예정대로>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북한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다음달초부터 금강산 해로관광을 본격 재개한다고 밝혀, 지난달 26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피해방지를 이유로 중단했던 금강산 관광 바닷길이 한달여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북한은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육로관광도 7월부터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올 여름부터는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 투자금 고갈, 정부지원금 중단에 이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으로 경영위기를 겪어온 현대아산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베이징 3자회담' 직후인 지난달 25일 북측의 일방적인 중단발표로 다음날인 26일로 예정돼 있던 설봉호부터 출항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현대아산은 지금까지 3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강산 해로관광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음달에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도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간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가능하며, 사업자인 현대아산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만을 위해 금강산지역에 직원을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강하게 전달해왔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 남북은 지난 2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상봉행사 후보 20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주소확인의회서를 교환했으며 다음달 12일 이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회보서를, 15일에는 상봉자 100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5차회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금강산 육로 및 해로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다음달초' 금강산관광 재개 결정은 예상보다 빠른 것"이라며 "특히 육로관광 7월 재개는 예정을 한달이상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선 본도로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달 현재 노반공사는 거의 마쳤고, 포장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7월 육로관광 재개와 관련, 현재 대북송금 의혹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사장을 금강산에서 만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조선아태평화위는 이날 담화에서 "7월로 예견되고 있는 금강산 육로관광에 앞선 시범관광과 관련,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정 회장과 김 사장을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에서 만나려고 하며 이에 대한 남측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jih@yna.co.kr

## "7차 이산상봉 6월중 가능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북측이 29일 금강산 해로관광 재개를 발표함에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돌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6월중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요청한 쌀.비료 지원이 이뤄지게 됐고 금강산 해로 관광도 재개될 예정인 만큼 7차 상봉이 이뤄지지 못할 요인은 없는 셈"이라며 "일정이 약간 변경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6월중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측도 다음달 12일에 상봉 후보 200명의 생사확인회보서를 교환하고 다음달 15일 상봉자 100명 명단을 교환하자며 '7차 상봉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다음달 19~24일 7차 상봉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29일 오후까지 별다른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어, "북측이 상봉 3일전 일방적으로 행사를 연기한 전례가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적 관계자가 전했다.

chungwon@yna.co.kr

(끝)

## <7차 이산상봉 남측가족 확인 늦어져>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남북 적십자가 28일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후보 200명의 가족·친척 생사확인의를뢰서를 교환했지만 남측 가족의 생사확인이 늦어져 대한적십자사가 애를 태우고 있다.

29일 한적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생사확인이 이뤄진 가족은 3가족뿐.

한적은 이전에는 이들이 지나면 절반 이상 작업이 끝난 데 비해 이번에 생사확인 작업이 이처럼 늦어지는 이유를 언론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적 관계자는 "특히 방송사들이 이산가족 명단을 보도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차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적은 이날 전국 지사에 공문을 보내 지역 언론사의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미 지난 2월 6차 상봉에 앞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한적과 통일부는 이번에는 북측이 생사확인을 의뢰한 200명의 명단을 한적([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과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reunion.unikorea.go.kr](http://reunion.unikorea.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한편 북측이 28일 보내온 상봉 후보 200명중 이미 6차 상봉에 앞서 남측 가족 생사가 확인된 87명을 포함, 1-6차 상봉 과정에서 95명의 남측 가족 생사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105명에 대해서만 새로 생사확인작업을 벌이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www.yna.co.kr](http://www.yna.co.kr))를 비롯, 일부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북측 이산가족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chungwon@yna.co.kr](mailto:chungwon@yna.co.kr)

(끝)

## 남북, 이산상봉 후보 생사확인서 교환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남북한 양측 적십자사는 12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자 각 200명에 대한 생사및 주소를 확인한 회보서를 교환했다.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북측 상봉후보자 200명중 189명에 대해 남측 가족의 생사 여부와 주소를 확인했으며 이중 182명이 생존, 상봉이 가능한 상태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북측 후보자 200명은 남측 친지 1천238명에 대해 생사여부및 주소를 의뢰했지만 우리측 노력으로 250명의 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1천488명의 생사및 주소가 확인됐다.

반면 북측은 남측의 상봉후보자 200명중 114명의 북측 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 남측에 통보하면서 생사확인자중 9명은 가족이 모두 사망해 105명만 상봉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남측 후보자 200명은 북측 친지 851명에 대해 생사 및 주소확인을 의뢰했으나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83명 가족의 생사가 확인돼 총 934명의 생사가 확인됐다.

남북 양측 적십자사는 이번 확인 결과를 토대로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각 100명씩을 확정해 오는 15일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적은 직계가족 우선, 고령자 우선 등의 원칙에 따라 상봉단을 선정하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정몽헌 회장의 방북 일정이 13일 끝나는 만큼 조만간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관광 재개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일정도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상봉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끝)



## <한적 '이산상봉단 100명' 구성 고민>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은 12일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에 앞선 상봉후보자 200명중 114명의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해 왔다.

이중 9명은 북한에 살던 가족들이 이미 사망해 상봉이 가능한 후보자는 105명.

남측에서 북측에 통보한 생사확인자가 189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북측의 생사주소확인 결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규모인 셈이다.

특히 지난 2월 이뤄진 6차 상봉 때의 경우, 북측은 남측 상봉 후보자 200명중 106명만이 북측가족과 만날 수 있다고 결과를 전해왔고 이중 고�령으로 금강산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산가족들의 상봉포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상봉단 100명을 채우지 못해 99명으로 상봉행사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번에도 상봉단 규모를 채우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며 "북측이 좀 더 많은 가족들을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생사확인 결과가 기대에 못치게 부족한 것은 우선 장비와 인력의 부족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몇 차례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남측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명단 모두를 북측에 전달하는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북측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또 북측은 북한내 살고 있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 적십자 인력들이 직접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차량 등 장비 부족도 북한의 생사주소확인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적 관계자는 "북측이 조금만 더 노력해 준다면 상봉단을 구성하는데 숫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측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계속 우리의 요구만 늘어놓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jyh@yna.co.kr

(끝)

## 7차 이산가족상봉 이르면 25일 개최

---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르면 이달 25일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방북했다가 13일 귀환한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은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지난 4월25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피해방지를 이유로 중단한 금강산 해로관광을 이달 25일부터, 육로관광을 7월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아산은 이와 관련, "25일 첫 손님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 주관부처인 통일부도 "7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일정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정하기로 해 아직 합의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르면 내일께 남북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가급적 6월중에 실시한다는 방침 이어서 25일부터 2박3일씩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한 양측 적십자사는 지난 12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후보자 각 200명에 대한 생사및 주소를 확인한 회보서를 교환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각 100명씩을 확정해 15일 최종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kjihh@yna.co.kr

(끝)

## 남북, 27일부터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남북 양측은 1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5박6일간 금강산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남측은 27일부터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금강산을 찾아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고 북측 이산가족 100명은 30일부터 남측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북측이 27일부터 상봉행사를 갖자고 제의해와 이를 받아들였다"며 "대략적인 일정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추후 접촉을 갖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일이 많이 남아 행사 준비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강원도 속초에 숙소를 예약하는 등 나이든 이산가족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 양측은 15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양측 이산가족 각각 100명과 지원 인원 등 상봉단 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jyh@yna.co.kr

(끝)

## 남북, 7차 이산가족 상봉단 명단 교환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남북은 15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금강산에서 헤어진 가족들과 만날 이산가족 상봉단 각 100명씩의 명단을 교환했다.

남측은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중 북측 가족의 생사가 확인돼 상봉이 가능한 105명중 8명이 상봉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 97명과 기존 신청자 3명을 포함해 100명의 상봉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딸 정완옥(56)씨 등이 생존해 있는 어순덕(102) 할머니는 남측 상봉단중 최고령자로 금강산을 방문해 북측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또 아들을 만나게 될 박영철(101)옹과 두 동생과 두 아들을 만나게 될 이응규(100)옹의 경우 당초 이번 상봉단 후보에는 끼지 못했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상봉 포기로 북측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행운을 잡았다.

북측이 전달한 100명 상봉단 명단에는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의 고모 맹은희(76)씨가 포함돼 은희씨의 오빠인 맹 의원의 부친 맹흥렬(86)옹등도 가족 상봉을 하게됐다.

북측 상봉자중 최고령자는 리용준(94)옹으로 남측의 사촌 2명과 조카 등을 만나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앞으로 북측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몇 차례 더 갖고 행사일정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yh@yna.co.kr

(끝)

## <북이산가족, 인민배우 유경애씨>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 남북한이 15일 교환한 제7차 이산가족 북측 명단에 포함된 유경애(83.여)씨는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배우이자 성우.

유씨가 1977년 '인민배우' 칭호, 1980년 북한 최고 훈장인 '김일성훈장', 1993년 '로력영웅' 칭호 등 최고의 상훈을 모두 받은 것만으로도 북한 예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유씨는 금강산에서 남쪽의 언니 경순(87)씨와 동생들인 경희(여,81).정식(경호,77).경운(75).경철(73)씨와 조카를 만날 예정이다.

유씨는 어렸을때 미국 선교사의 집에서 살다 춘천정명 여학교를 졸업, 개성남성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배우의 꿈을 안고 1938년 상경, 청춘좌, 고협, 성군 등 여러 극단을 전전하며 심부름을 하던중 배우로 발탁돼 '등잔불', '정어리', '의기 론개' 등에 출연했으며'가족'으로 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전선문화공작대' 요원으로 활동했다.

유씨는 1948년 8월 월북후 함북도립예술극장, 국립연극단, 남포연극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등에서의 배우 생활을 거쳐 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성우로 활동하고 있다.

유씨는 북한정권 수립 후 첫 극영화인 '내고향'(1949)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로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심청전'(1957), '붉은 선동원'(1962), '잔칫날'(1973), '우리 처가집 문제'(1980), '봄날의 눈석이'(1985) 등의 영화와 '승리의 기치따라', '연풍호'등 여러 연극작품에서 비중있는 역을 했다.

특히 유씨는 평범한 어머니상을 맡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향토색 짙은 연기로 사랑을 받아왔다.

유씨는 또 성우로서 북한 장편소설 '1932년', '림꺽정', '고난의 행군' 등 수많은 역사책과 소설을 녹음했다.

유씨는 고 김일성 주석이 그의 소설 낭독에 반한 나머지 '화술명장'으로 치하하고 조선중앙방송위 성우로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물들의 나이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구사하는 재능을 지녔다.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는 2000년 6월 유씨의 팔순을 맞아 생일상을 보내기도 했다.

chsy@yna.co.kr

(끝)

## <102세 최고령 할머니 가족상봉 이뤄지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5일 공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100명의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어순덕(102.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1리) 할머니.

강원도 고성에서 남편, 두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던 어 할머니는 6.25 한국전쟁이 터지자 가족들과 함께 북쪽으로 피란을 떠났다 먹을 것이 떨어져 식량을 가지러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식량을 등에 지고 다시 피란길에 올라 가족들을 뒤쫓았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으며 결국 발길을 돌린 끝에 남쪽에 홀로 남게됐다.

남편과 세자녀를 줄지에 잃고 외톨이가 된 어 할머니는 북측 가족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둘째딸 정만옥(58)씨를 만날 예정이지만 노환으로 건강이 안좋아 실제로 모녀 상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 팔에 링거를 꽂고 뭉쳐 누워 있는 어 할머니는 그렇게 그리던 가족 상봉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 표현도 못하는 상태.

어 할머니에게는 양아들이 한 명있다. 6.25 당시 인민군 포로로 국군에 붙잡힌 표진모(73)씨.

북한행을 희망하는 인민군 포로들은 모두 북으로 보내졌으나 표씨는 남한땅을 선택, 북에 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했다.

어 할머니 사연을 전해 듣고 찾아가 수양 아들을 자청했던 표씨는 지금까지 47년 동안 모자(母子) 인연을 맺고 있다.

북의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외면해온 표씨는

양어머니인 어 할머니를 지극히 모신 효행으로 작년 정부로 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94년 고성 지역 산불로 움막집이 불에 타 새 집을 짓고 감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표씨와 부인 정옥자(61)씨는 "어머니 건강이 빨리 회복돼 딸과의 상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사진있음)

honeybee@yna.co.kr

(끝)

## 제7차 이산가족 상봉, 해로 이용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남북 양측은 18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오는 27일부터 5박6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이 설봉호편으로 해로를 이용해 방북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측은 이산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육로 이용을 제의했지만 북측이 현재 금강산을 연결하는 육로가 공사중임을 이유로 해로 이용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남측은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이산가족 방문단 1진 단장으로 북측에 통보했다.

한적 관계자는 "북측이 장재언 적십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을 것임을 알려와 격을 맞추기로 했다"며 "양측 적십자 최고지도부의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또 7차 이산가족 방문단 후보자가 아니었으나 후보자의 상봉포기로 명단에 포함된 어순덕, 박영철, 이응규씨 등 100세 이상 고령자 추가 방문단 3명의 북측 가족이 모두 생존해 있어 이번에 상봉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

jyh@yna.co.kr

(끝)

## 탈북자 이산가족상봉 신청, 정부 골머리

---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정부가 최근 탈북자들의 이산가족상봉 신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6월27~7월2일, 금강산)를 앞두고, 탈북자 수십명이 후보자로 신청하는 바람에 이를 걸러내느라고 진땀을 쏟았다는 것이다.

한적은 특히 상봉후보 100명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3배수(300명)를 뽑는 컴퓨터 추첨에서 탈북자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차례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통일부와 한적이 탈북자를 이산가족상봉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기존 이산가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북한 당국이 이를 알게 될 경우 상봉행사 자체가 무산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후 국내 입국한 주민들의 경우 일종의 '자발적' 이산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북후 국내 입국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이들중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상당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이산가족상봉행사 참여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통일부에 따르면 90년 9명에 불과했던 탈북후 국내 입국자는 94년 52명, 97년 85명, 2000년 312명, 작년에 1천14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 1~5월에도 504명이 입국했다. 이중 90년부터 작년까지 60대 이상(입국 당시 기준)은 115명에 달했다.

이같은 탈북자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통일부와 한적의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이산가족상봉 신청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 C씨는 "남북관계가 나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치상태에서 탈북자의 이산가족 상봉신청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무리임을 안다"며 "그러나 탈북자 역시 '피맺힌' 이산가족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jihh@yna.co.kr

(끝)



## <7차 이산가족 방문단, 6차례 11시간 상봉>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금강산에서 치러지는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북 양측가족들은 모두 6차례 11시간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와 정부에 따르면 상봉 1진으로 27일부터 금강산을 방문하는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은 첫날 금강산 현지 김정숙휴양소에서 단체상봉과 식사등 4시간 동안 북측 가족들과 만나고 이틀째인 28일 개별 상봉과 삼일포 참관 상봉,목란관에서 열리는 공동 중식 등 각각 2시간씩 6시간 동안 만남을 갖는다.

29일에는 김정숙휴양소 로비에서 1시간 동안의 작별상봉을 통해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달랜뒤 설봉호편을 이용해 남쪽으로 돌아온다.

북측 가족 100명을 만나게될 남측 이산가족 476명의 상봉 2진은 장소만 남측지역인 온정각으로 바뀌 단체상봉과 동석 만찬을 함께하고 상봉 이틀째인 내달 1일 개별상봉, 참관 상봉에 이어 김정숙휴양소에서 다 함께 점심을 한다.

내달 2일 작별상봉은 1진때와 달리 온정각에서 치러진다.

한적 관계자는 "상봉행사는 전례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강산 지역의 북측 건물들이 여의치 않아 현대의 시설을 이용해 모든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북측이 김정숙휴양소 등을 상봉 장소로 적극 제시해 이를 수용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은 26일 오후 1시에 강원도 속초시 한화콘도에 집결해 오후 3시부터 방북교육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경역 등을 하게 된다.

jyh@yna.co.kr

(끝)

## 이산가족 상봉단 속초 집결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이산가족 100명과 대한적십자사 요원 등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1진 191명은 27일 예정된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26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로 집결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월 하순 이후 4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콘도로 모여 북한방문 안내교육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검역 등을 받는다.

이들은 콘도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27일 낮 속초항에서 설봉호편으로 금강산으로 이동, 김정숙 휴양소에서의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3일간 북측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당초 북측의 시동생을 만날 예정이었던 전영숙(81)씨는 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신 박상례(99) 할머니가 딸 순금(64)씨와 영애씨(65)를 만나게 됐다.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어순덕(102) 할머니가 딸 정완옥(56)씨를 만나게 된 것을 비롯, 박영철(101), 이응규(100)옹 등 100세 이상 고령자들이 북측 가족들과 반가운 해후를 하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전 할머니의 실신으로 갑작스럽게 명단을 교체 통보했음에도 북측이 이를 수용하는 등 매우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jyh@yna.co.kr

(끝)

---

## 남측 이산가족 내일 해로로 금강산행

---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7차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할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1진 190명이 27일 오전 설봉호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해 금강산으로 향한다.

이번 상봉은 지난 2월 하순이후 4개월만이며,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처음이다.

제7차 상봉단 1진은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단장으로 해서, 이산가족 99명과 보호가족 10명, 지원요원 51명, 취재진 3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북측 동생을 만날 예정이었던 임병운(82)씨는 25일 밤 부인이 갑자기 위독해져 막판에 포기, 이번에 금강산을 향하는 남측 이산가족은 99명이 됐다.

이에 앞서 당초 북측 시동생을 만날 예정이었던 전영숙(81)씨는 방문을 앞두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 대신 박상례(99) 할머니가 딸 순금(64)씨와 영애씨(65)를 만나게 됐다.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어순덕(102) 할머니가 딸 정완옥(56)씨를 만나게 된 것을 비롯, 박영철(101), 이응규(100)옹 등 100세 이상 고령자들이 북측 가족들과 반가운 해후를 하게 된다.

6.25 전쟁때 북에 두고온 아내 김리숙(77)씨와 해방둥이 딸 경순(57)씨를 만날 남편 김영호(84)씨, 전쟁통에 황해도 인근 섬에 들어갔다가 친정에 아들 김수연(57)씨를 남기고 피난온 남의 어머니 황순화(80)씨 등 남측의 가족.보호자 110명은 반세기를 훌쩍 넘긴 상봉에 대한 설렘으로 한 많던 세월도 어느 덧 잊은 듯했다.

이에 앞서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까지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 모여 북한 방문 안내교육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검역 등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한화콘도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27일 오전 속초항에서 설봉호편으로 금강산으로 이동, 김정숙 휴양소에서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3일간 북측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한적 관계자는 "이번 7차 상봉에는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가족당 1명씩 동행가족을 포함시키자고 북측에 요청했으나, 북측은 일단 10명 범위에서 추가로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동행자로 선정되지 못한 남측 이산가족 가운데는 일반 관광객 자격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ye@yna.co.kr

(끝)

---

## <상봉 전야 남측 이산가족 표정>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방문단 99명은 방북 하루 전인 26일 오후 집결지인 속초 한화리조트를 찾아 등록을 하고 방북교육을 받는 등 반백년만의 혈육 상봉을 준비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특히 평양 음악대학 출신의 황혜경(72.여)씨와 중학교에 다니다 1.4 후퇴때 홀로 집을 떠나왔던 유일석(65)씨 등 10여명은 25일 가족들과 함께 속초에 와 하룻밤을 지낸 뒤 상봉자 등록이 시작된 이날 오전 한화리조트를 찾기도 했다.

황씨는 "동생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어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며 상봉에 대한 설렘을 내비치면서도 "동생이 어렵게 살고 있거나 않은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한화리조트를 찾는 이산가족들은 손에 손에 선물꾸러미를 한아름씩 들고 있었다.

조카와 사촌동생을 만날 예정인 김치격(81)씨는 "뭘 준비해야 할 지 몰라 그냥 내의랑 약을 준비했다"고 말했고,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게 된 이형기(83)씨는 "인터넷을 통해 지난 번에 가족을 만나고 온 분에게 어떤 선물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돈이 제일 낫다고 해서 500달러를 준비했다"며 "그래도 허전한 맘이 들어 내의와 쌀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측 관계자는 "이산가족들은 북측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서 보통 내의와 비타민제, 영양제 등 약품을 많이 준비하고 반지와 시계 등 서로를 기억하자는 의미의 기념품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산가족들은 집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간단한 신체검사와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검역을 받았다.

한화리조트에는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 등 6명의 의료진이 나와 응급차를 대기시킨 가운데 고령 이산가족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방북교육을 받고 난 뒤 삼삼오오 로비에 모여 북쪽에 있는 가족들 얘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처음 만나는 어색함은 북쪽 혈육을 만난다는 동병 상련에 파묻혔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북에 있는 딸과 아내를 만날 기쁨에 들떠 있는 김영호(84)씨는 북에서 사망한 오빠 대신 울케언니와 조카를 만나게 된 윤옥례(68·씨)에게 "그래도 피붙이를 만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냐"고 위로했고, 윤씨는 "북에 있는 아내랑 딸을 만나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꼭 껴안아주시구려"라며 김씨의 가족상봉을 축하했다.

---

이번 상봉단 가운데에는 사망한 형제자매 대신 생면부지의 조카를 만나게 된 경우도 많아 혈육 상봉의 기쁨 만큼 어색함을 곱씹는 이산가족도 있었다.

북에서 사망한 형님 대신에 형수와 조카를 만나게 된 김진국(70)씨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 지,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서 "혹시 다른 사람인데 착각하고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중풍을 앓고 있는 이보학(66)씨도 "갓 80을 넘겨 살아계실 거라 생각했던 형님이 돌아가셔서 괜히 걱정만 할까"고 걱정했다. "조카들이 형님을 많이 모아야 알아볼 수 있을 텐데"라고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상봉단에는 어머니쪽이 부모가 함께 방북해 북에 있는 조카와 며느리, 딸을 만나게 된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북에서 결혼한 뒤 아들과 큰 딸을 남겨둔 채 사업차 인천에 왔다가 이산의 한을 남기게 된 장수근(90)씨와 부인 홍계순(84)씨. 장씨가 상봉단에 포함된 뒤 홍씨가 이산가족 보조자로 함께 금강산을 찾게 된 것이다.

홍씨는 "자손이 귀한 집이라서 장손인 아들을 북에 두고 남편과 함께 내려왔다"면서 "애들이 부모 없이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번 상봉에도 어김없이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영동복지구 소속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상봉가족들을 맞이했다. 자원봉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산가족들을 위해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 차량을 대기시켰고 고령자가 대부분인 이산가족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 20여대를 준비하기도 했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박주희(44·여)씨는 "반평생을 혈육을 그리며 살아오신 이산가족들이 편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함께 하게 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 동생 임병삼(73)씨를 만날 것을 고대했던 임병운(73)씨는 25일 밤 부인이 갑자기 위독해짐에 따라 방북을 포기, 결국 이산가족 상봉 1진은 99명으로 줄었다.

(끝)

## 이산가족 상봉단 191명 금강산행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100명의 남측 이산가족들이 27일 금강산에서 그리던 북측의 혈육들과 50여년만에 재회한다.

이산가족 등 191명의 제7차 이산가족상봉단 1진은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항에서 설봉호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해 금강산에 도착, 오는 29일까지 2박3일간 단체상봉과 개별상봉을 포함 모두 3차례에 걸쳐 5시간 30분 동안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상봉단 2진은 30일 금강산에 도착, 7월2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과 마찬가지로 만남을 갖게 된다.

이번 상봉은 지난 2월 하순이후 4개월만이며,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처음이다. 상봉단 1진은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단장으로 이산가족 100명과 보호가족 10명, 지원요원 51명, 취재진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날 부인이 위독해 방북 포기 의사를 전해왔던 임병윤(78)씨는 이날 오전 마음을 바꿔 항공편으로 한화리조트로 달려와 막판에 상봉단에 합류했다.

방북에 앞서 전날일 속초 한화콘도에서 숙박한 이들은 북에 두고 온 아내, 아들 딸, 형제 등 혈육과의 재회를 앞둔 설레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모습이었다.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어순덕(102) 할머니는 53년만에 딸 정완옥(56)씨를 만나며 박영철(101), 이응규(100)옹 등 나머지 100세 이상 고령자 2명도 북에 두고 온 가족들과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된다.

상봉단은 28일 해금강호텔 개별상봉, 삼일포 참관 상봉을 하며, 29일 김정숙휴양소 로비에서 1시간 동안 작별 상봉한 뒤 설봉호편으로 귀환한다.

이번 7차상봉에서는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상봉자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10명당 한명꼴로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는 장수근-홍계순, 이보학-이이순씨 등은 부부가 함께 방북하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동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일부 가족들은 일반 관광객 자격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lye@yna.co.kr

(끝)

## <금강산상봉> 고령자·독거노인의 이산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반세기 넘게 마음속에 그리던 혈육을 상봉하는 순간 100세가 넘는 고령자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또 남북으로 나뉘어 남쪽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아픈 사연은 단체상봉의 순간에도 주위를 울렸다.

이번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102세의 어순덕 할머니(강원도 고성군 죽왕면)는 50여 년 동안 헤어졌던 딸 정완옥(59)씨를 만나자 그동안 아껴 두었던 눈물을 쏟아냈다. 눈도 어둡고 귀도 잘 안 들리지만 딸의 모습을 온 몸으로 느끼려는 듯 쉬지 않고 딸의 얼굴과 손을 더듬었다.

6.25 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에 살았던 어 할머니 가족은 산 속으로 피난을 가야 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혼자 집으로 돌아왔던 어 할머니는 이후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남쪽에 남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어 할머니는 한때 포로생활을 했던 표진모(73세)씨를 양아들로 삼아 서로 이산의 한을 달래며 살아왔다. 표씨는 양어머니를 40여년 동안 극진히 모셔 2002년 어버이날을 기념해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101세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1.4후퇴 당시 북에 남겨두고 온 둘째아들 박영준(65)씨를 만나 반세기 넘게 나누지 못했던 '부자의 정'을 나눴다.

전쟁 당시 박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평안남도 진남포시와 황해도 은률군에 나뉘어 살고 있었고, 황해도에 있던 가족들만 1.4후퇴 때 남으로 피난을 와서 반세기 넘게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올해 100세의 이응규 할아버지는 50여년 동안 마음속에 그려온 아들 원섭(61)씨와 동생 천규(67)씨를 만나 한 때나마 이산의 한을 풀었다.

남쪽에서 독거노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김봉운(79세) 할아버지의 감회는 남달랐다.

같이 살던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갈 때 북에 남겨두었던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남쪽에 홀로 남았던 김 할아버지는 1.4후퇴 때 헤어졌던 딸 김춘실씨 등을 상봉하고 반세기 넘게 떨어져 살아야 했던 아픔을 달렸다.

인천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전응오(85) 할머니는 북에 남겨두었던 아들과 딸, 동생을 상봉했다.

황해도 용천이 고향인 전 할머니는 6.25 전쟁 직전 친정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인천에 살다가 북에 있던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고, 50년이 넘어서야 가족들을 만나게 됐다.

(끝)

## <금강산상봉> 생면부지 조카들과의 만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27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생면부지의 조카들과 상봉하는 가족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상봉희망자로 신청한 형제자매의 사망사실이 확인됐지만 그나마 가까운 피붙이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혈육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남측 이보학(66)씨는 북에서 사망한 형 보성씨의 세 딸 창희(43)·옥희(41)·광희(36)씨를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형님 나이가 갓 80을 넘겨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거동이 불편한 이씨는 처음 본 조카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작은 아버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형님의 첫째딸 숙희를 업어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마저 죽었다고 하니 더욱 서럽다"고 말했다.

고향이 황해도 금천인 김영란(79)씨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소식을 북측 조카 김윤기(47)·김철기(43)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출가 후 서울로 이사온 뒤 친정 식구들과 소식이 끊겼던 김씨는 "전쟁 후 우연하게 고향사람을 만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오빠와 언니, 동생들까지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됐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이렇게 너희를 만나고 나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조카들의 손을 꼭 쥐었다.

윤기씨는 흑백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고모가 돌아가신 큰 고모와 빼닮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측 방문 가족 중 최연소인 변정자(62)씨도 오빠 대신 생면부지의 율케 류갑열(71)씨와 조카 변종숙(35)씨를 만났다.

전쟁중 오빠 상규씨를 제천시 철도국 앞에서 마지막으로 봤다는 변씨는 "오빠가 살아계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전쟁중 살아남아 가정을 이뤘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향이 황해도 개풍군인 이음전(80)씨는 북측 조카 이민용(61)·민황씨(60)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냈다.

이씨는 초로의 두 조카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니"라고 물었다가 결국 그 자리에 선채 울음을 터뜨렸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이씨는 "전쟁 전 여물을 작두로 자르다가 내가 실수로 민황이의 엄지손가락을 반토막 잘라 둘이 손가락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같이 울었던 기억이 어제 같다"며 민황씨의 손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

이씨는 또 "28살 고향을 떠날 때 쌀 두말을 등에 지어주며 '몸조심 하라'던 어머니의 모습도 눈에 아련하다"고 말했다.

황의성(85)씨는 상봉 며칠 전에야 북쪽 형님 인성씨가 사망하고 아내 리신자씨를 아예 신원 확인 조차 안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황씨는 대신 만나게 된 북측 조카 황이호(45)·이봉(40)씨에게 "내가 실망할까봐 며칠 전에야 가족들이 형님과 아내의 소식을 전해줬다"면서 "막상 너희들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카 이호씨는 가족서: "일전에 '통일을 위하여, 주체 92(2003)년, 삼촌을 만난 기쁨을 안고"라고 적었다.

(끝)



2003. 6. 27 (금)

---

## -금강산상봉- 김정숙휴양소서 단체상봉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지난 2월에 이어 넉 달만에 반세기 넘게 헤어져 살았던 남과 북의 혈육들이 만나면서 금강산이 다시 한번 눈물 바다를 이뤘다.

27일 오후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남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행가족 10명이 각각 북측의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 조카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가졌다.

남측 이산가족 최고령자인 어순덕(102) 할머니는 53년만에 딸 정완옥(56)씨의 손을 잡고 북받치는 눈물에 말을 잇지 못했으며, 101세의 박영철 할아버지는 1.4후퇴 당시 북에 남겨두고 온 둘째아들 박영준(65)씨를 만나 '부자의 정'을 나눴다.

사흘뒤 돌아오겠다던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국군에 붙잡혀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김신채(83) 할아버지는 반백이 된 아들 병선(60)씨를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삼켰으며 북측 아내 김화실(83)씨의 손을 잡고 놓을 줄 몰랐다.

36년전 납북된 외아들 윤경구(55)씨와 북에서 결혼한 며느리, 손자,손녀를 만난 이강삼(76) 할머니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라고 흐느꼈으며 아들 경구씨는 "어머니, 어머니"라고 오열했다.

50년 9월 유엔군의 북진때 인민군에서 탈영한 뒤 남으로 피신했던 이석렬(80) 할아버지가 북측의 아내 최용녀(75)씨를 보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하자 아내 최용녀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1.4 후퇴때 국군을 따라 피난 내려온 이득범(83) 할아버지는 세 아들이 기다리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어디에 있니"라며 함남 갑산에 두고 온 아내 이춘옥(85)씨 부터 찾았으나, 운신이 어려워 못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다.

---

가족보호자로 부부가 함께 방북하는 행운을 잡은 장수근(90) 홍계순(84)씨 부부는 6.25때 북에 두고 내려온 아들 충희씨(60) 부부와 딸 희숙씨(63)를 만나 "부모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독거노인인 전응오(85) 할머니는 53년만에 만나는 아들 박운진(65)씨에게 "나는 돌아가도 혼자사는 몸이다" "이제라도 함께 살면 좋으련만..."이라고 되뇌어 주위를 안타깝게했고, 아들 운진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떨구었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평양 음대를 졸업한 뒤 국방부 정훈국 합창단으로 활동하던 국군을 따라 남으로 내려왔던 황혜경(72) 할머니는 집을 떠나올 때 팔을 붙잡고 "언니 혼자가서 어떡해"라며 울먹였던 여동생 황해도(69)씨를 만나 오열했다.

단체상봉에 이어 남북 이산가족들은 같은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해금강호텔에서 있을 개별상봉을 기약하면서 각자 숙소로 돌아가 잠 못 이루는 금강산의 첫날 밤을 보냈다.

(끝)



2003. 6. 27 (금)

## <금강산상봉> 남북자의 기막힌 이산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원망도 많이 했지만 그저 살아 있기만을 바랐는데...여보, 누구 마음대로 먼저 세상을 떠난거요"

72년 납북된 남편을 기다리며 다섯 명의 자식을 홀로 키워온 강경순(75) 할머니는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 김용철씨가 야속하기만 했다. 그 해 3월 부산에서 오대양호를 타고 나갔던 남편과 헤어진 지 어언 31년.

27일 금강산에서 열린 제7차 이산가족상봉에서 남편과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던 강 할머니는 끝내 오열하고 말았다.

그나마 전쟁 와중에 북에 두고온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강유신(66)씨와 조카 조영상(43)씨를 만난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애들을 키우느라 막노동, 장사 안 해본 게 없어. 남편이 살아있기라도 해야 나중에 애들을 보여주고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이렇게 허망할 수가..."라며 강 할머니는 울먹였다.

79년쯤 형부의 장례에 참석했다는 여동생 부부가 고마우면서도 "형부는 언니 닮은 사람과 재혼해 잘 살다 가셨어"라는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혈육과 떨어져 홀로 자녀를 키우며 고생한 일, 큰 아들을 잃게 한 화재, 남편을 찾느라 헤매던 일. 강 할머니가 전하는 기막힌 사연에 이들 자매는 이내 눈물로 뒤범벅이 됐다.

---

전쟁 와중에 남편을 잃고 월남, 남에서 생활하다 36년전 남북된 외아들 윤경구(55)씨를 만난 이강삼(76) 할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마자 거의 실신하다시피했다.

아들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어루만져 보지만 한이 북받쳐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과 같이 나온 생면부지의 며느리 홍정숙(53)씨가 "어머니 그만 우세요.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라며 위로했지만 소용없었다.

손자 명남(28), 손녀 영희(23), 경희(20)씨가 밝은 얼굴로 "할머니, 절을 드리겠습니다"라며 인사를 올리자 그제서야 이 할머니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네가 이렇게 살아 있다니. 죽은 줄로만 알았다. 너 하나만 믿고 모진 풍파를 헤치며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 올 때 너는 왜 안왔느냐"며 아들을 탓하자 윤씨는 "어머니 죄송해요. 고생 많이 하신 것 다 압니다"라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위로하기도 했다.

지난 67년 5월 충남 태안에서 고기잡이배 창성호를 타고 나갔다가 남북됐던 7명 중 5명은 4개월만에 귀환했으나 아들 경구씨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것.

이 할머니에게 경구씨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1.4 후퇴 때 인민군 징집을 피해다 니던 남편이 결국 끌려가 사망한 뒤 겁에 질린 이 할머니가 시부모를 북에 남겨둔 채 홀로 등에 업고 연평도로 건너왔던 경구씨였다.

이 할머니는 현재 월 17만여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충남 태안군에서 보증금 12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홀로 살고 있다.

손녀 자매는 이 할머니의 보호자로 동행한 오촌 고모 최옥순씨에게 다가가 "옷 장사를 하신다는데 무슨 옷을 파세요. 장사는 잘되시나요"라며 불임성으로 말을 붙이기도 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의 구보와 피랍자 간의 상봉이 이뤄진 것은 ▲김상례-강희근(87년 동진호 갑판장, 2차 상봉) ▲이후덕-성경희(69년 대한항공 승무원, 3차 상봉) ▲이명복-정장백(68년 창영호 선원, 5차 상봉) ▲박규순-김태준(72년 오대양61호 선원, 6차 상봉)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끝)

## <금강산상봉> "너희들과 함께 살면 좋으련만.."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애미애비없이 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27일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있는 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12명의 부모들이 6.25 전쟁통에 북에 두고온 아들, 딸들을 50여년만에 만나는 감격을 누렸다.

특히 장수근(90)·홍계순(84)씨 부부는 전쟁통에 북에 두고 내려온 아들 충희(60)씨 부부와 딸 희숙(63)씨를 만났다.

청진이 고향인 장씨 부부는 6.25전부터 북한과 인천을 오가며 쌀을 거래했다.

6.25로 남쪽으로 떠날 때 부모님들은 "손이 귀한 집안이니 아들과 큰 딸은 두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1남4녀중 딸 3명만 데리고 인천으로 향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전쟁이 터지면서 그대로 이별이었다.

각각 일곱살, 네살때 헤어진 자식들도 벌써 초로의 나이가 됐다. 장씨 부부는 아들 딸의 손을 잡고 "너무 미안하다"며 연신 눈물을 글썽였다.

딸 희숙씨는 눈물속에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리며 "이제라도 통일이 돼 어릴적 심정으로 돌아가 함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근씨는 딸이 "아버지 노래 잘했잖아"라고 어리광을 부리자 즉석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이탈리아 민요를 부르기도 했다.

원래 남편 장수근씨만 상봉 대상자였으나 거동이 불편해 부인 홍씨가 보조자로 동행, 부부가 함께 자식을 상봉하는 행운을 얻었다.

53년만에 아들과 딸을 만난 전응오(85) 할머니는 "자식들이랑 함께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전 할머니는 대학에 다니는 친정 남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인천에 왔다가 6.25가 터져 자식들과 생이별한 케이스.

당시 무역선 선원이던 남편도 그즈음 소식이 끊겨 전 할머니는 홀로 50여년의 풍상을 겪어왔다.

전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살아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딸 연옥씨는 "어머니, 울지 마시라요. 어머니 품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전 할머니는 내내 눈물을 닦다가 아들 박씨가 "큰 놈이 벌써 손주 둘을 낳았다"고 하자, 비로소 환하게 웃음을 지어보였다.

---

김선열(84) 할머니는 6.25직전 남편과 함께 서울에 있는 친정 오빠 집에 다니러 갔다가 길이 막히는 바람에 헤어지게 된 큰 아들 박창선(63)씨를 만났다.

김 할머니는 "일본일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아들의 손을 연신 쓰다듬었고 아들 박씨는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시니 참 좋네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김 할머니는 "내 마음 속에는 늘 어린애였는데 너도 벌써 이렇게 늙었다니..."라며 말을 못하고 창선씨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다.

일곱살때 보고 못본 딸 정옥(60)씨를 만난 나규병(84) 할아버지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네 얼굴이 가물가물했다"며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나자"며 주소를 건네 주기도 했다.

(끝)

---



2003. 6. 27 (금)

## <금강산상봉> 이산가족 두 번에 걸쳐 모두 만나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20년전 아버지를 찾고 이제 또 너희들을 만나니, 세상에 이 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구나"

27일 이낙기(71)씨는 북의 낙홍(70), 창호(61)씨 등 두 동생과 열싸안으며 반세기가 넘어 이뤄진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만남으로 이씨는 6·25 전쟁때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을 두 번에 걸쳐 모두 만나는 드문 행운을 누렸다.

이씨는 1.4후퇴때 아버지, 어머니, 두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얼어붙은 대동강을 건너던 중 미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가족들과 헤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평양에서 아버지 여동생을 만나 함께 남쪽으로 왔지만,이씨가 전쟁중 입대하면서 다시 연락이 끊겼다.그러나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서 남쪽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20년만이였다.

"둘째 너는 이제 보니 아버지를 닮았구나. 평생 못만날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꿈만 같다." 이씨는 다시 한번 동생을 끌어 안은채 눈을 줄을 물랐다.

세 형제는 서로가 모시던 아버지, 어머니가 1988년 1월과 4월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사실을 확인하고, 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씨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올해 딱 백수이신데 뵈지도 못하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황혜경(72) 할머니도 여동생 황해도(69)씨와 손을 맞잡고 50여년의 한맺힌 세월을 반추하고 있었다.

---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평양 음대를 졸업한 뒤 국방부 정훈국 합창단으로 활동하던 황 할머니는 중공군이 내려올 때 국군을 따라 남으로 피난왔다.

집을 떠나올 때 팔을 붙잡고 "언니 혼자가서 어떡해"라며 울먹였던 여동생은 이제 '의젓하게 잘 생긴'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언니. 내 큰 아들놈이야. 평양체육대 교수야" 황씨는 조카 손목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손수건을 적셨다.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을 만난 영동일(83) 할아버지는 건강이 나빠 부인 지경춘(75)씨의 부축을 받아 나왔다. 부인 역시 북쪽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으로 이번 상봉 신청 때 북측 동생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동생들을 못 만나 아쉽지만 바깥 양반이 저리 좋아하니 나도 좋네요" 지씨는 북의 시누이와 손을 맞잡고 영씨가 서울에서 고생한 이야기 등으로 시간가는줄 몰았다.

(끝)



2003. 6. 27 (금)



## <금강산상봉> 북측 환영만찬사 전문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북한 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27일 개최된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만찬사를 통해 "6.15 공동선언 발표 3돌을 맞아 (이산가족들이)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됐다"면서 "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만찬사 전문.

『서영훈 총재 선생님!

이 자리에 참석한 북과 남의 가족, 친척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겨레를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게 한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3돌을 맞으며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그리운 가족, 친척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상봉의 기쁨과 혈육의 정이 넘쳐 나는 이 자리에서 꿈에도 그리던 혈육들과 상봉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남북에서 오신 여러분에게 북녘 인민들의 따뜻한 동포애적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운 가족, 친척들을 만나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에 울고 웃으며 혈육의 뜨거운 정을 나누었으며 돌이 되어서는 살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강렬한 통일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상봉을 뜨거운 걱정속에 지켜보면서 혈육의 정은 그 무엇으로도 가를 수 없으며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인 우리 민족은 돌이 되어서는 안될 하나의 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외세에 의해 민족의 생존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정세속에서도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쌓이고 쌓인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깊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과 은정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여러분들이 단란하게 모여 살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자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고 단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굳게 손 잡고 나가면 민족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며 오늘의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통일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민족공동의 통일 리정표인 6.15 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북과 남의 여러분의 기쁨에 넘친 상봉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면서 이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6. 27 (금)

## <금강산상봉> 남측 만찬답사 전문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1진 단장으로 금강산에 머물고 있는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7일 오후 김정숙휴양소에서 열린 만찬에서 답사를 통해 남북적십자간 합의된 절차에 따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에 힘입어 화해의 물결을 타고 이번에 일곱번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게 됐다"며 "이미 남북적십자사간에 합의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방안과 절차에 따라 우리 적십자인들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성과가 일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총재의 만찬답사 전문.

---

『남과 북의 이산가족 여러분!

꿈속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그리운 가족이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생사조차 몰랐던 가족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오늘까지 이것이 꿈인지 생사인지 하시면서 며칠을 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지요? 이 만남은 정녕 꿈은 아닙니다.

조선 적십자회 장재연 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남과 북의 여건속에서 이뤄낸 7번째로 상봉하게 되는 이산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성대한 환영만찬을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십자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존경과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적십자는 이러한 정신에 따라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늦기는 하였지만 오늘 이 자리도 이러한 적십자 정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에는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 일천만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모 형제를 떠나 생사조차 모르는 사이에 어언 반세기도 넘는 세월이 흘러 검은 머리가 하얀 눈빛으로 바뀌고 이제 고령 노인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시 만나볼 그날조차 알 수 없이 눈물로 지내는 이산가족들의 심정을 그 누가 무슨 말로 위로 할 수 있으며 이 큰 고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어야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남과 북은 6.15남북공동선언에 힘입어 화해의 물결을 타고 이번에 일곱 번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번의 이러한 행사로서만이 아니라 남북적십자사간에 합의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방안과 절차에 따라 우리 적십자인들의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열어가자면 오늘 우리는 이산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과 북의 적십자인들은 이 비극을 종식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오늘 가족을 만난 남과 북의 이산가족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하며, 아울러 이 상봉의 장면을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 일천만 이산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분들의 가절한 역원이 하루 빨리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금강산상봉> 이산가족 개별상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반세기를 넘겨 상봉의 감격을 맞았던 남북 이산가족들은 상봉 이틀째인 28일 오전 10시부터 남측 숙소인 해금강호텔 객실에서 두 시간 가량 아쉬우면서도 소중한 가족별 상봉을 가졌다.

북측의 이산 가족.친척 218명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조청애국호'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해금강호텔에 도착, 남측 가족 110명(보조요원 포함)과 반갑게 다시 만났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한복과 옷감, 시계, 목걸이, 내의 등 갖가지 선물을 북측 가족.친척들에게 건넸다.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어순덕(102) 할머니는 북의 딸 정완옥(59)씨의 두 손을 꼭 잡고 한동안 얼굴을 매만지며 "내 딸"이라고 말하며 흐뭇해 했고, 완옥씨는 "53년만에 만나 얼마나 기쁘지.."라며 전날 단체상봉과 만찬에서 채 풀지못한 회포를 달렸다.

아내와 함께 방북한 영용일(83)씨는 남동생 봉순(69), 여동생 순옥(72), 순희(66)씨 등 북측의 동생 3명을 만났는데 봉순씨가 "76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형님이 보고싶어 차마 눈을 감지 못하셨다"고 하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독거노인인 전응오(85) 할머니는 아들 박운진(58)씨가 자신의 안경을 씌어준 뒤 전 할머니의 부모님 사진 등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어서 통일이 되어 같이 살아야지요"라고 말하자 눈물을 글썽였다.

북의 두 아들과 조카를 만난 리형기(84)씨는 "아내가 뇌졸중으로 못온 게 한이 된다"면서 관절염으로 고생했다는 아들 명삼(61)씨에게 줄 휠체어를 전달하려했으나 명삼씨가 수술을 받고 괜찮다고 하자 "내가 쓰게 됐구나"라고 웃어보이기도 했다.

한금옥(80)씨는 동생들과 각각 준비해온 가족사진을 둘러보며 화기애애한 표정이었으며 특히 남동생 원준(54)씨는 "북남 공동선언이후 철도 연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만큼 빨리 개통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1.4후퇴 당시 가족들을 북에 두고 혼자 남으로 내려온 김만복(81)씨는 북의 아내 최음전(75)씨와 아들 길록(56)씨, 동생 찬호(71)씨와 만났으나, 길록씨가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를 버리고 혼자 떠났습니까"라고 항변하자 말없이 눈을 꼭 감기도 했다.

또 인민군으로 있다가 국군에 붙잡혀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을 했던 김신채(83)씨는 북의 아내 김화실(83)씨와 어느덧 초로에 접든 병선(60), 병우(53) 아들형제를 맞아 고향 얘기를 하다 사회주의와 미군 문제 등 정치성 짙은 주제로 넘어가면서 부자간에 잠시 언성을 높이기도 해 분단의 장벽을 실감케 했다.

이날 가족별 상봉은 일 백 가족 모두 이뤄졌지만 취재대상인 열 가족의 상봉 장면중 일부만 취재진에게 공개됐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가족별 상봉에 이어 김정숙휴양소에서 점심을 한 뒤 오후에는 금강산 지역의 계속된 비로 삼일포 구경 대신 온정각휴게소 옆 현대문화회관에서 모란봉 교예단의 교예(서커스) 공연을 관람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행사 마지막날인 29일 오전 9시 부터 김정숙휴양소 앞마당에서 작별상봉을 하는 것으로 2박3일간의 짧은 상봉 일정을 마치게 된다.

(끝)



**연합뉴스**

2003. 6. 28 (토)

## <금강산상봉> 이산가족 개별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반세기만의 만남 뒤 각기 따로 밤을 지낸 남북의 이산 가족들에게 개별상봉 두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28일 남측 가족 숙소인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이뤄진 남북 혈육들의 상봉현장.

그리움이 더 사무쳤는지 전날 공개된 단체상봉 현장에서는 겨우 억누를수 있었던 감정이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만나게 되자 마음대로 되질 않았다.

못다했던 속깊은 얘기를 나누다보니 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샘이 다시 터졌고, 서로의 체취를 느끼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가족들은 소중하게 간직해온 정표와 가족사진, 포장지에 예쁘게 싸여진 옷감, 시계 등을 선물하면서 작별전의 아쉬움을 달렸다. 다만 북측 가족들은 동석한 북측 언론의 취재를 의식해서인지 북한 체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칭송하는 발언을 빼뜨리지 않아 남측의 취재진 및 가족들과 한 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0...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어순덕(102) 할머니는 북의 딸 정완옥(59)씨가 방에 들어서자 한동안 딸의 얼굴을 매만지며 말을 하지 못했다.

어 할머니가 취재진에게 "내 딸이여"라고 소개하자 완옥씨는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온겨레가 단결해 조국통일을 이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강문제로 어 할머니와 동행한 조카 재동씨는 2001년 서신 교환 당시 북에 어 할머니의 사진을 전달한 사실을 소개하자 완옥씨는 "어머니 얼굴을 그 때 보고 처음 알았다"고 감회에 젖기도 했다.

0...1.4후퇴 당시 아내와 아들을 두고 혼자 남에 내려온 김만복(81)씨는 미안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렸다.

말이 없는 북의 아내 뢰음전(75)씨의 손만 꼭 붙잡고 있는 김씨에게 대신 아들 길록(56)씨가 "제가 네 살 때 아버지가 저희들을 버리고 가신데 대해 진짜 크게 사죄하셔야 합니다"고 피맺힌 한을 토해놓자 김씨는 고개를 떨구고 묵묵히 듣기만 했다.

아내 뢰씨는 두눈을 지그시 감은 채 못다 푼 부부의 정을 나누려는 듯 남편의 손을 꼭잡은채 놓지 않았다.

---

0...아내와 함께 방북한 영용일(83)씨는 이날 북측의 동생 순옥(72), 봉순(69), 순희(66)씨 등을 만나 돌아가신 부모 소식을 전해 들으며 가슴 아파했다.

봉순씨는 "어머니가 76년 돌아가실 때 형님을 보고싶어 차마 눈을 감지 못했다"고 전하자 용일씨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용일씨는 금반지와 속옷을 선물로 전달했고, 북측 가족들은 술을 건넸다.

남에서 혼자사는 전응오(86) 할머니는 북의 아들 박운진(58)씨와 딸 박영옥(60)씨가 "어서 통일이 돼 우리와 같이 살자"는 말에 눈물만 글썽였다.

운진씨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머니를 보고 돌아가시겠다고 살아 생전 습관처럼 말씀하셨다"고 전하자 전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들고 눈물을 훔쳤다.

0...북의 여동생 한금녀(64)씨를 만난 남의 한국위(31)씨는 "얼굴이 늙었어도 눈을 보니 동생인 줄 금방 알아냈다"고 말하자 동생은 가까이 다가가 언니 손을 꼭 잡고 북의 가족사진을 꺼내들며 일일이 소개했다.

각각 두만강역 부역장과 회령역장을 지낸 남동생 원택(68), 원준(54)씨는 공로 상 받은 사실을 자랑하며 "빨리 남북간 철도가 연결돼 자유롭게 왕래할 날이 머지 않았다"며 누나를 위로했다.

(끝)

---



2003. 6. 28 (토)

## 북, 제7차 이산가족 상봉 상세 보도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척호기자= 북한은 28일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민족의 통일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다면서 "북.남적십자 단체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27일 먼저 우리측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남측상봉자들과 집체상봉을 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반세기 이상의 기나긴 세월이 흐른 오늘에 와서야 혈육들과 만나게 된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상봉장소는 시작전 부터 설레이고 있었다"며 "상봉이 이루어 지자 북과 남의 혈육들은 서로 얼싸 안으며 뜨거운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전하였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28일에는 가족단위 상봉이 진행됐으며, 이 행사가 끝난 뒤 이산가족들은 북한 적십자회에서 주최한 연회와 교예를 관람했다고 전했다.

chchoi01@yna.co.kr

(끝)

---

## <금강산상봉> 작별상봉 앞두고 교예공연 관람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7차 이산가족상봉행사 이틀째인 28일 오후 남북의 가족들은 온정리 현대문화회관에서 열린 평양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1시간30분간 관람하며 모처럼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29일 작별 상봉을 앞두고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부둥켜 안는가 하면, 못내 헤어지기 아쉬운 듯 눈물을 흘리며 손을 놓지 못했다.

0... 남측 김만복(81)씨는 공연이 끝난 뒤 "공연이 너무 멋지고 좋았다"며 가족들이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은 다시 만나는 시간이 없느냐"며 취재진에게 물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또 남측의 전용익(84)씨는 "북쪽의 배우들이 너무 대견스럽다"며 극찬한 뒤 "내일 작별상봉이 마지막 만남인 데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며 울먹였다.

윤옥례(68) 할머니는 "몇해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7만원을 주고 북측 교예단 공연을 봤는데 이번에 올케, 조카와 함께 공연을 보니 비교할 수 없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방북한 영용일(83)씨는 버스에 오르기 전 여동생 순희(66)씨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았다.

박영철(101)씨는 북의 둘째 아들 명준(65)씨의 부축을 받고 나오면서 "아들을 만나 기쁘게 멋진 교예공연까지 봐서 더욱 기분이 좋다"며 "통일이 돼 다시 보려면 몇년을 더 살아야할텐데.."라며 아쉬워했다.

0... 공연관람에 앞서 해금강 호텔 객실에서 가진 개별상봉에서 남북의 가족들은 깊은 속애기를 나누면서 혈육의 정을 확인한 때문인지 서먹했던 분위기는 사라졌고, 최고의 기예를 자랑하는 공연을 소재로 환담을 나누면서도 붙잡은 손을 놓을 줄 몰랐다.

아슬한 장면에는 함께 숨을 죽였고, 철봉 교예단이 마무리 동작에서 한반도 지도에 '하나'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보일 때는 더욱 큰 갈채가 쏟아졌다.

함께 방북한 장수근(90), 홍계순(84) 부부는 북의 아들, 딸 사이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했다. 최고령인 어순덕(102) 할머니도 북측의 딸 정완옥(59)씨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입장해 관람하면서 못다한 정을 나눴다.

이산가족의 한을 달래주듯 굵게 내리 퍼붓던 장맛 비는 이날 오전 그쳤지만 이 비로 비포장 구간이 많은 도로 사정이 나빠짐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삼일포 관광은 취소됐다.

(끝)

## 이산가족 상봉단 2진 속초 집결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이산가족 475명과 대한적십자사 요원 등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2진 556명은 30일 예정된 북측 가족 100명과의 상봉을 위해 29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로 집결한다.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콘도로 모여 북한방문 안내교육과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검역 등을 받는다.

이들은 콘도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30일 낮 속초항에서 설봉호편으로 금강산으로 이동, 이날 오후 온정각에서 치러지는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3일간 북측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이번 상봉에는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이 부친 맹흥렬(86)옹을 모시고 올라 북측의 고모 맹은희(76)씨를 만난다.

또 북한의 대표적인 성우이자 배우로 '인민배우' 칭호와 '김일성훈장' 등을 받은 유경애씨가 북측 방문단 100명에 포함돼 남측의 언니 경순(87)씨와 동생 경희(81), 정식(77), 경운(75), 경철(73)씨 등을 만나게 된다.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는 상봉 2진이 내달 2일까지 금강산 해금강호텔에 머물며 상봉 행사를 가진 뒤 설봉호편으로 귀환하면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jyh@yna.co.kr

(끝)

## 남북, 올추석 500명 규모 이산상봉 추진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남북 양측은 추석에 즈음해 오는 9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지금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추진하자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9일 이번 방북기간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두 차례 개별만남을 통해 올 추석에 남과 북 각각 400~500명씩 등 인원을 크게 늘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의했으며 북측 장 위원장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서 총재는 이날 오전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8.15가 시간이 촉박하다면 추석을 맞아 상봉인원을 대당하게 늘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하자고 제의했다"면서 "그러나 북측이 인원수가 적어 어렵다면 꼭 남과 북이 상봉 이산가족 수를 똑같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도 개진했다"고 말했다.

서 총재는 또 전쟁중 납북되거나 실종된 안재홍, 양재하(이상 당시 한성일보), 이길용(동아일보), 방응모(조선일보), 이정순(당시 서울신문)씨 등 언론인 225명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고 남북화해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생사와 안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면회소 건설 규모와 관련, 장 위원장은 "6.15 공동선언 3주년을 기념해 면회소가 통일의 상징적 건물, 통일의 거점으로서 역사적인 큰 건물로 지어져야 한다"면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2만평 규모를 다소 축소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보였고, 이에 대해 서 총재는 "면회소는 우선 잘 짓고 천하 명승지인 금강산에 어울리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지어야 한다"며 기존 3천평에서 500평 정도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총재는 장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폭우피해를 입은 북한 강원도 지역에 담요 1만장을, 금강산 지역인 고성군 주민들에게 침구와 어린이 학용품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끝)



## <금강산상봉> 남북 이산가족 눈물 속 기약없는 이별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흥안의 아이가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된 통한의 세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혈육의 정을 나눈 2박3일은 한 여름밤의 꿈만 같았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 328명은 29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금강산 김정숙휴양소에서 마지막으로 만나 분단조국의 비극을 곱씹으며 눈물 속에 또다시 생이별을 해야했다.

이틀 내린 비가 그치고 날씨가 화창해 금강산 절경이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하자 다시 쓰라린 이별을 해야 하는 남과 북의 혈육들은 자연의 무심함을 한탄했다.

남과 북의 가족들은 오랜 기다림끝의 짧은 만남에 이어 또 다시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듯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반세기가 넘는 이산의 상처를 달래기에는 2박3일이 너무도 짧았고 오히려 가슴 깊이 묻어둔 설움과 그리움이 북받쳐 서로 부여잡은채 놓지 못하다 금강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건네고 가족, 친척들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라"며 서로 신신 당부했다.

만남을 끝낸 남측 가족들이 휴양소밖으로 빠져나오자 북측의 가족들은 "아직 가지마세요, 가만 있어요"라며 일분일초라도 상봉의 시간을 연장하려 애를 썼다.

36년만에 납북된 아들 윤경구(55)씨를 만난 남의 이강삼(76) 할머니는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했다"며 오열했고 아들 윤씨는 "어머니 울지 마세요.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기만 하세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윤씨는 동행가족인 고종사촌 여동생 최옥순씨에게 "돌아가서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신채(85)씨는 북의 아내 김화실(82)씨에게 "나랑 같이 가서 살자"고 하자 아내 김씨는 "만나기 사흘전 평양에 왔으나 못만나는 꿈을 꿔다"며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나 보네요. 가지말고 여기서 같이 살아요"라며 울먹였다.

북의 아들 박운진(65)씨는 독거노인인 전응오(85) 할머니에게 "통일이 될 때까지 사셔서 그때 모시겠다"고 하자 전 할머니는 휴양소 계단에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김선열(84) 할머니의 북측 아들 박창선(63)씨는 "어머니 앓지 말고 건강하세요"라며 손을 꼭 잡았고 평양음대를 나온 황혜경(73)씨는 북의 여동생 혜도(69)씨가 "언니 그만 울어요"라고 하자 "나 혼자 갈테니 너희들 가라"며 눈물을 쏟았다.

누나 이방한(74), 여동생 이영자(58)씨와 헤어지기 직전 이필한(68)씨는 전날 함께 찍은 사진과 가족, 친척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으나 치매증의 누나 이씨가 영문을 몰라하자 "누나, 벌써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요"라며 펄펄 눈물을 쏟았다.

---

김영호(84)씨는 두 속으로 북의 안내 김리숙(77)씨와 딸 경순(57)씨의 손을 각각 잡은채 "어제 그제 서먹함이 이제 좀 가시려 하는데 헤어져야 하다니..."라며 눈물을 보인뒤 한참 지나서 아내 김씨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이었는데 또 여기에 당신을 남겨두고 나만 가야하네. 미안하어"라고 말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북에서 2박3일간의 상봉일정을 마친 남측 상봉단은 설봉호를 타고 귀환길에 올랐다.

---



2003. 6. 29 (일)

## 이산가족, 설봉호 계단서 굴러 부상

---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이산가족 상봉단 1진에 포함돼 금강산에서 가족 상봉을 마치고 돌아오던 장수근(90) 할아버지가 29일 속초로 귀환중 설봉호 갑판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다 다리에 힘이 빠지며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부상했다.

장씨는 실족 직후 의식을 잃어 동행 의료진의 응급치료로 5분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혈압이 높아 인근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장씨와 동행 가족으로 상봉단에 포함됐던 부인 홍계순(84)씨는 "평소에도 고혈압으로 고생해왔다"고 밝혔다.

상봉단 의료진에 포함된 의사 이종윤씨는 "일단 의식은 회복한 상태지만 정확한 부상 정도는 정밀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 부부는 이번 상봉 기간 금강산에서 아들 충희(60)씨 부부와 딸 희숙(63)씨 등과 만났다.

(끝)



## <50년만의 만남에 맘 설레는 맹형규 의원 가족>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맹형규 의원(57. 한나라당)이 현역 정치인이자 이산가족으로는 처음으로 제7차 이산가족상봉단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맹의원은 부친 맹흥렬(86)옹과 큰 고모 영희(78)씨, 동생 문규(48)씨와 함께 30일 금강산에서 작은 고모 은희(76)씨를 만날 예정이다.

맹 의원 가족은 29일 오후 3시쯤 남측 방문단 집결지인 속초 한화콘도에 도착해 상기된 표정으로 등록 절차를 마쳤다.

맹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 상봉에 참여해야 할 지 고민을 했지만, 아버님과 고모님이 연로하셔서 내가 모시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하루속히 더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친 흥렬씨는 "이렇게 살아서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헤어질 당시 24살이었던 동생(은희)은 5남매 중에서도 똑똑한데다가 이뻐서 10여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늘 가슴 아파하셨다"고 말했다.

고모 영희씨는 "동생을 위해 속옷을 선물로 준비했다"며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이뤘는데 어떻게 하루를 더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6.25 당시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했던 은희씨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이 됐다. 북한 의용군으로 끌려갔다는 얘기 외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어 맹의원 가족들은 그동안 호적에도 사망한 것으로 신고해 놓았었다.

맹의원은 "1000만 이산가족 중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뿔뿔하니 1만분의 1의 행운을 잡은 셈"이라며 "고모부는 누군지, 고종사촌들은 몇이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된 맹 의원은 평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북 식량 지원에도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방북을 앞둔 맹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다"며 "고모님이 북에 살아계실 지도 모른단 생각도 들었지만, 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에 개인적인 감정을 담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맹의원 가족은 상봉에 들뜬 나머지 속초에 도착해서야 돌아가신 조부모 등 남측 가족의 생전 사진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서울에서 다른 가족이 이날 밤 부랴부랴 가져오기도 했다.

(끝)



## <금강산서 고모 만나는 맹형규 의원 일문일답>

(속초=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7차 이산가족상봉단에 참가한 맹형규 의원은 "고모님을 만나게 돼 기쁘다"면서도 "북측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다른 이산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맹의원은 또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생사확인도 하고 서신교환도 하고 면회소도 빨리 설치해 더 많은 사람이 이산의 아픔을 달랠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속초에 도착한 맹형규 의원과의 일문일답.

--북측 고모에 대한 기억은 나는지

▲4살 때 헤어져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머니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다. 10년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고모를 대단히 그리워하셨다.

--고모를 만나는 소감은

▲우선 기쁘다. 50년 간 가족과 떨어져 사신 고모님을 어떻게 위로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또 1000만 이산가족이 연세가 들면서 몇 년 후에는 몇분이나 남을지 걱정된다. 저희 가족은 1만분의 1의 행운을 잡은 것 같아 (다른 이산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남북이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 생사확인하고 서신교환도 하고 면회소도 빨리 설치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산의 아픔을 달랠으면 한다.

--정치인으로서 첫 이산가족 상봉인데 동료 정치인들이 전하는 말은 없었나

▲농담 삼아 (북측 고모에게) 붙들리지 말라고 했다. 별다른 말은 없었고 몸조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다.

--고모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모시고 가는 아버님이 막내 누이동생 만나 기쁠 텐데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있을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고모부는 누구고, 고종사촌들은 누구인지 묻고 싶다.

--방북을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봉을 결심한 이유는.

▲아버지가 86세이시고 함께 가는 큰 고모가 78세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왔는데 북측에 고모가 있다는 개인적인 사연이 영향을 줬는가

▲그러한 문제는 다녀온 다음에 얘기하겠다. 개인적인 사연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방북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대북 퍼주기'에 대해 비판적인데 북측 가족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상당히 비판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얘기는 돌아와서 실컷 해주겠다. 지금은 적잖이 않은 것 같다.

( )



2003. 6. 29 (일)

## 남측 이산상봉 2진 내일 해로로 금강산행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상봉단 2진이 30일 오전 속초항에서 설봉호 편으로 금강산으로 향한다.

상봉단 2진은 북측 방문단 100명을 만나게 될 남측가족 476명 외에 대한적십자사 홍소자 부총재가 단장으로 이끌게 될 지원인원과 취재진 등 690명으로 구성된다.

남측 상봉단에서는 백수(白壽)의 나이에 북측의 아들 김경중(72)씨를 만나게 될 김용녀(99) 할머니가 최고령자이며, 북측 김관수(72)씨가 만날 조카 성준(10)군이 최연소자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처음 북측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된 맹형규 의원(57.한나라당)은 "1000만 이산가족 가운데 1만분의 1의 확률로 행운을 잡은 것 같다"면서 "다른 이산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맹의원은 부친 맹흥렬(86)옹 등을 모시고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던 북측의 작은 고모 은희(76)씨와 만나게 된다.

북측 상봉단에선 가장 나이가 많은 리용준(94)옹은 남측의 사촌 및 조카들을 재회할 예정이다.

또 북한의 대표적인 성우이자 '인민배우' 칭호를 갖고 있는 유경애(83)씨가 북측 방문단에 포함돼 남측의 언니 경순(88)씨와 동생 경희(81)씨 등을 만난다.

이에 앞서 이산가족들은 29일 오후 3시부터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 집결해 방북교육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검역을 받았다.

한적 관계자는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4시간 넘게 항해를 하게돼 이산가족 가운데 고령자와 거동불편자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2박3일간의 상봉일정을 마친 남측 상봉단 1진 191명은 반세기만의 재회를 뒤로 하고 이날 오후 4시쯤 속초항에 도착했다.

(끝)

## <금강산상봉> 상봉단 2진 속초항 출발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할 남측 상봉단 2진이 30일 오후 금강산에 도착,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난다.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 100명을 만나게 될 남측 가족 472명은 이날 오후 3시께 바닷길로 북한 장전항에 도착해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2시간 동안 단체상봉을 갖는다.

전날까지 476명이던 남측 이산가족은 북측 홍순성(69)씨의 남측동생 순관(68)씨, 방승기(77)씨 동생 영기(60)씨 등 4명이 건강 등의 이유로 마지막 순간에 방북을 포기해 472명으로 줄었다.

남측 상봉단에서는 백수(白壽)의 나이에 북측의 아들 김경중(72)씨를 만나게 될 김용녀(99) 할머니가 최고령자이며, 북측의 외가쪽 할아버지 김관수(72)씨를 만나게 될 초등학교 4학년생인 김성준(10)군이 최연소자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처음 북측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될 맹형규(57,한나라당) 의원은 "1천만 이산가족 가운데 1만분의 1의 확률로 행운을 잡은 것 같다"면서 "다른 이산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맹의원은 부친 맹흥렬(86)옹 등을 모시고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던 북측의 작은 고모 은희(76)씨와 만나게 된다.

북측 상봉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리용준(94)옹은 남측의 사촌 및 조카들을 재회할 예정이다.

또 북한의 '인민배우' 유경애(83)씨가 북측 방문단에 포함돼 남측의 언니 경순(88)씨와 동생 경희(81)씨 등을 만난다.

한편 한적 관계자는 "당초 장마전선이 북상한다는 기상예보에 뱃길이 험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맑은 날씨에서 속초항을 출발해 다행"이라며 "돌아오는 길도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

## <금강산상봉> 북의 장남 만난 애꿎는 모정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오매불망 그리던 북쪽의 큰 아들 문창보(75)를 만난 엄세업(95) 할머니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죽은 줄 알고 영혼 결혼식까지 시키고 가슴에 묻어 둔 아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창보씨가 연방 "어머니"라고 큰소리로 부르자 엄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문씨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한 뒤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안심시켰다. 엄 할머니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니.."라며 오열하면서 큰아들을 끌어당겼다.

헤어질 때만 해도 원기왕성하던 흥안의 아들. 살던 집이 심하게 폭격을 받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던 아들. 어머니의 기억에 남은 아들의 얼굴은 늘 젊은 모습이었지만 금강산에서 만난 아들은 고회를 훨씬 넘긴 주름진 얼굴이었다.

문씨는 동생 창렬씨에게 "고생 많이 했다"며 손을 꼭 잡았다. 이어 조카 용남, 용길씨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문씨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라며 가족들의 생사여부를 들은 뒤 동생 창렬씨 등에게 그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얘기를 들었다.

전남 여수에서 살았던 엄 할머니는 서울로 유학간 큰 아들이 있던 집이 6.25전쟁 때 폭격을 받아 죽은 줄로만 알았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여기저기 수소문 해 봤지만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한때는 용하다는 무술인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산가족찾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영혼결혼식을 치렀다는 후문이다.

엄 할머니는 아들을 만난 기쁨에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멧힌 응혈을 풀어냈다.

(끝)

---

## <금강산상봉> "살아있어줘 고맙구나" 북 아들보고 오열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측상봉단 2진이 금강산에서 북의 혈육들과 50여년만에 눈물속에서 감격의 재회를 했다.

30일 오후 남측 가족 472명과 북측의 남편, 아내, 형제 100명이 만난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는 눈물 바다였다.

17세 어린나이에 제주 4.3사태의 회오리에 휘말리면서 생이별해야 했던 북의 아들 김경중(72)씨는 백수(白壽)의 노모 김용연씨를 만나 "어머니, 어머니"만 되뇌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고령에도 눈이 밝아 사물을 잘 분간한다는 김씨도 아들을 보고 한동안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있어줘 고맙다"고 흐느꼈다.

동생 성중(69)씨와 창중(61)씨도 형님을 끌어 안으며 "어머님은 형님이 행방불명된 뒤 항상 섭섭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면서 "형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단에 참가한 맹형규 의원(57.한나라당)도 부친 맹흥렬(86)옹과 큰 고모 영희(78)씨, 동생 문규(48)씨와 함께 북측의 작은 고모 은희(76)씨를 만났다.

전쟁통에 행방불명된 남편을 기다리며 슬하에 자식도 없이 52년간을 수절해 온 남측의 아내 곽호임(73)씨는 꿈에도 그리던 북측의 남편 리규태(76)씨를 만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의용군으로 징집돼 생이별한 남편 김관수(72)씨를 상봉한 남측의 아내 권점순(69)씨는 "살아있었으면서 왜 이제야 연락했다. 새로 시집을 갔어도 53년 동안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그간의 그리움을 쏟아냈다.

상봉단 최연소자인 김성준(10)군은 외갓쪽 작은 할아버지인 김관수씨를 보고 처음엔 다소 어색해하다가 이내 품에 안겼다.

김군은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다"며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떨어져 사는 것이 아쉽다"며 할아버지 김씨에게 매달렸다.

남측 상봉단 김태오(58), 태화(56)씨 자매는 북측의 아버지 김중운(77)씨를 만나 평생 불러보지 못하고 가슴속에 품어만 왔던 '아버지'를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태오씨는 "어머니(김금연)가 우리를 데리고 혼자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고맙습니다"라며 어머니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

---

오매불망 그리던 북쪽의 큰 아들 문창보(75)씨를 본 남측의 어머니 엄세업(95)씨는 죽은 줄 알고 영혼 결혼까지 시킨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입을 열지 못하다가 창보씨가 "어머님"하고 부르자 정신을 가다듬고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다니.."라며 눈물부터 쏟았다.

(끝)



2003. 6. 30 (월)

---

## <금강산상봉> 52주년 수절 할머니, 남편 만나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요.."

전쟁통에 행방불명된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다가 52년을 보내고 반신불수의 할머니가 되어버린 70줄의 아내는 남편을 보자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30일 오후 제7차 이산가족상봉행사 2진 단체상봉에서 꿈에도 그리던 북측의 남편 리규태(76)씨가 들어오자 남측의 아내 곽호임(73)씨는 이내 알아보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듯한 표정으로 한동안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남편이 와락 끌어안자 그제야 얼굴을 품에 파묻고 흐느꼈다.

곽씨는 정신을 가다듬고 "시어머니를 남편으로 알고 한평생을 살아왔다"며 그간의 한을 쏟아내자 남편 리씨는 "헤어진 후 1956년에 결혼했다"며 미안해 했다.

그러면서 남편 리씨는 "호임을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고 꿈을 얼마나 꾸었는데.."라고 말한 뒤 아내의 왼쪽 얼굴 윗부분을 어루만지며 "옛날에 여기 상처가 있었는데.."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에 아내 곽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헤어지기 전 3년을 살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느냐. 한번 쳐다보기라도 했느냐"며 "오늘은 내 인생 최대의 날"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리씨 부부는 결혼후 3년뒤 6.25 전쟁을 만나 처가인 경기도 파주로 함께 피신했다가, 남편 리씨가 형님의 사업을 돕고자 서울로 가면서 기나긴 이별이 시작됐다.

곽씨는 이후 두살배기 아들마저 홍역으로 먼저 저 세상에 보내고 지난 52년간을 수절하며 지내왔다.

헤어질 당시 어여뻐던 새댁은 73세의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됐다.

아내 곽씨는 미안해 어쩔 줄 몰라하는 남편을 위로하려는 듯 "지난 번 서신교환 때 얘기했던 아들과 딸들은 모두 잘 있느냐. 대를 이어준 북쪽의 아내가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끝)

---

---

## <금강산상봉> 북의 아버지 만난 두 딸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김태오(58.여)씨와 김태화(56.여)씨는 평생 불러보지 못하고 가슴 속에 품어왔던 아버지라는 말을 정겹게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어릴때 헤어져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자리는 언제나 두 딸의 가슴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측의 아버지 김중운(77)씨는 남한에서 자신을 찾아온 두 딸의 손을 부여잡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태오씨는 "어머니(김금연)가 딸들을 데리고 혼자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며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6.25전쟁 때 면사무소에 다녀온다며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아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왔고 10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두 딸이 아버지 제사를 모셨다.

인사를 마친 딸들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평생 딸들만을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태화씨는 "2000년도에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지 모른다고 생각해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했는데 뽐히질 않아 포기했었다"며 "이번에 아버지가 우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생존 소식을 들은 뒤 설레는 맘에 대한적십자사를 자주 들렀다는 태화씨는 "옛날 아버지 사진을 보며 기억을 더듬고 살아왔는데 이제 직접 아버지를 보니 너무 좋다"며 함박 웃음을 지었다.

(끝)



---

## -금강산상봉- 온정각서 반 세기만의 해후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측상봉단 2진이 금강산에서 북의 혈육들과 50여년만에 눈물 속에서 감격의 재회를 했다.

30일 오후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남측 가족 472명과 북측의 남편, 아내, 형제 100명과 반세기를 훨씬 넘어 감격적인 상봉을 가졌다.

온정각 휴게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남측 이산가족들은 북측 가족이 들어오자 그간의 한을 쏟아내려는 듯 함께 얼싸안고 흐느끼다가,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담을 나눴다.

17세 어린나이에 제주 4.3사태의 회오리에 휘말리면서 생이별해야 했던 남측의 백수 노모 김용연씨는 꿈에 그리던 북의 아들 김경중(72)씨가 상봉장에 들어섰지만 알아보지 못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단에 참가한 맹형규(57.한나라당) 의원도 부친 맹흥렬(86)옹과 큰 고모 영희(78)씨, 동생 문규(48)씨와 함께 북측의 작은 고모 은희(76)씨를 만나 감격스러운 듯 눈물을 흘렸다.

전쟁통에 행방불명된 남편을 기다리며 슬하에 자식도 없이 52년간을 수절해 온 남측의 아내 곽호임(73)씨는 꿈에도 그리던 북측의 남편 리규태(76)씨가 "이게 얼마 만이냐"고 외락 끌어안자, 이한의 세월이 서러운 듯 남편 품에 안겨 흐느꼈다.

의용군으로 징집돼 생이별한 남편 김관수(72)씨를 만난 남의 아내 권정순(69)씨는 "당신 내 영감 맞아요"라며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북에서 재혼해 5남매를 둔 남편 김씨도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않았다. 잘 살아줘 고맙다"며 달랬다.

북의 큰 아들 문창보(75)씨를 본 남의 어머니 엄세업(95)씨는 죽은 줄 알고 영혼결혼까지 시킨 아들의 얼굴을 보고 말을 잊지 못하다 창보씨가 "어머님"하고 부르자 정신을 가다듬고 "죽은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니.."라며 눈물을 쏟았다.

남측 유경순(88)씨는 북의 동생 경애(83)씨가 채 테이블로 오기전부터 "경애야"라고 부르며 달려나가 손을 잡고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경애씨는 "인민배우로서 영예롭게 잘 살아왔다"고 말했다.

경애씨는 1945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북한의 첫 영화 '내고향'에서 남자 주인공의 애인역을 맡았으며 북한 예술인 최대 영예인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

단체상봉에 이어 남북 이산가족들은 같은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들은 7월 1일 오전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해금강호텔에서 있을 가족별 상봉을 기약하면서 각자 숙소로 돌아가 잠 못 이루는 금강산의 첫날 밤을 보냈다.

(끝)

## <금강산상봉> '추억의 여배우' 언니 만나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이산가족 2진의 상봉에서 북측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은 단연 만능배우 출신 유경애(83)씨였다.

푸른 한복 저고리에 '김일성훈장'과 '노력영웅훈장'을 달고 입장한 유씨는 남의 언니 경순(87)씨, 남동생 정식(78)씨 등과 반세기 만에 감격의 해후를 했다.

언니 경순(88)씨는 북의 동생 경애(83)씨가 채 테이블로 오기 전부터 "어머 경애야. 경애야"라고 소리높여 부르며 달려나가 손을 잡았다.

경순씨는 "이게 얼마만이냐"라며 손으로 동생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경애씨는 반가워하면서 "인민배우로서 영예롭게 잘 살아왔다"고 얘기했다.

경애씨는 1945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북한의 첫 영화 '내고향'에서 남자 주인공의 애인역을 맡았으며 북한 예술인 최대 영예인 인민배우와 공훈배우 칭호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유씨는 반세기만의 혈육들과 상봉의 즐거움도 잊은 듯 큼지막한 보따리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 놓았다.

보따리 안에는 북한의 훈장 등 각종 포장증서가 가득했고, 특히 고 김일성 주석과 찍은 2장의 사진, 김일성 저작집 44권, 20여개의 훈장 등이 눈에 띄었다.

김 주석과 찍은 두장의 사진은 김 주석이 손수 평양 인민문화궁전으로 그를 초청해 찍은 사진이었다.

유씨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선물명세(서)'도 보여줬다. 1995년 김 위원장의 53회 생일을 맞아 조선노동당이 보낸 명세서에는 통조림세트 1조, 술 2병, 산골 1병 등 14가지의 소비품이 들어 있었다.

경애씨 가족 테이블 주변에는 북측 기자 9~10명이 몰려들어 집중적으로 취재하기도 했다.

(끝)

## <금강산상봉> 막아들 만난 백수의 노모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30일 금강산 온정각에서 진행된 단체상봉에서 남측 이산가족중 최고령인 김용연(99) 할머니는 55년전에 헤어진 북의 큰아들 김경종(72)씨를 알아보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난청으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김 할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김씨에게 남을 대하듯 "예"라고 존대를 하기도 했다.

55년만에 이뤄진 큰아들과의 상봉이 믿기지 않는 김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자 동행한 김씨의 남측 동생들은 "어머니, 경종이 형님이예요"라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의 셋째 아들 창중(61)씨는 "어머니는 금강산으로 오는 배에서도 '경종이가 그럼 살아있단 말이냐'라며 큰 아들과의 상봉을 믿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봉장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모자가 헤어지게 된 동기였다.

이들 가족이 헤어진 것은 제주 4.3사태의 회오리에 휘말리면서부터. 4.3사건이 터진 1948년 경종씨는 큰 잘못도 없이 군경에 체포돼 인천 소년형무소로 옮겨졌다.

그 와중에 6.25 전쟁이 터졌고 인천수용소에 있던 경종씨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50년 7월4일 인민군이 인천으로 들어온 후 석방된 뒤 행방불명됐다.

경종씨가 행방불명된 후 가족들은 연좌제로 주위의 냉대 속에 시달려야 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어머니는 막내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단란하게 살아왔던 집을 그대로 지켜왔다.

경종씨는 "집에 감나무와 굴나무는 아직도 있느냐"며 "제주도에서 감 먹던 생각이 많이 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두고온 고향집을 떠올렸다.

경종씨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했으나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다"는 막내 동생의 설명을 듣고서야 마음을 놓았고, 둘째 누나 일재(76)씨가 어머니를 보살핀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과 누나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 감사하다"며 "내 대신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끝)

## <금강산상봉> 일부가족 행정미숙으로 뒤늦게 상봉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상봉단 2진에 포함된 이산가족중 일부는 북측의 행정처리 미숙과 남측의 철저하지 못한 확인작업으로 인해 30일 오후 3시께부터 한두시간 동안 금강산 장전항에 있는 북측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다.

북측 출입국 관리 직원들은 이산가족 3명의 이름이 북측에 통보된 명단과 다른 이유로 이들을 오후 4시50분까지 항구에 대기시켰다.

북측 오빠 김관수(72)씨를 만나러 온 김간란씨는 북측 세관원이 가지고 있던 명단에 '김간난'으로, 또 김일재씨는 '김일제'로 이름이 표기돼 있다는 이유로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다.

북측 가족 김성배씨는 이름이 '김성'으로 잘못 표기돼 상봉이 시작된지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께야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들은 "멀리서 왔는데 빨리 만나게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한 북측 직원이 오후 4시50분께 새로운 명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봉투를 가져온 뒤에야 검색대를 통과, 버스를 타고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중인 온정각으로 이동해 가족과 상봉했다.

한적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관을 통해 평양 조선적십자 회측에 정확한 명단이 적힌 이산가족 명단을 새로 보냈다"며 "그러나 금강산 현지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확하게 입력된 명단이 아니라 처음에 보낸 잘못된 명단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

## <금강산상봉> 남측 만찬사 전문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대한적십자사 홍소자 부총재는 30일 개최된 제 7차 이산가족상봉단 2진 상봉행사에서 만찬사를 통해 "이러한 만남이 이어져서 정례적이고 제도적인 만남으로 발전됐으면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비극이 끝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만찬사 전문

『남과 북의 이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북측 방문단 장재언 단장님을 비롯한 남북 적십자 관계자 여러분!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반세기 만에 서로 만나 지나간 세월의 회한과 아픔을 푸는 모습을 이렇게 대하고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평생의 소원을 이루신 남과 북의 이산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7차에 걸친 만남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에는 일천만 이산가족들이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상봉의 그날만을 손꼽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봉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못만나는 안타까움에 그리움의 병이 깊어져 몸져눕는 고령의 이산가족들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산이 되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한을 남기고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지 가슴에 한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님.

이번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신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정례적이고 제도적인 만남으로 가일층 발전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꿈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일천만 이산가족이 날이면 날마다 밤낮으로 꾸는 꿈이며 칠천만 우리 민족이 50년을 넘게 꾸어오던 꿈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움의 꿈은 남과 북이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 실현해 내야할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적십자를 찾아오셔서...나는 어쩌면 좋으냐? 몸은 병들고 마음은 더 조급하여지고..나 죽기전에 가족 좀 만나게 해줄 수 없습니까..왜 못 만나게 합니까..절실한 소망을 들을 때마다 적십자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 대답을 좀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다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한 분의 눈물조차 닦아드리지 못하는 이 무력한 현실이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

---

오직 인도적인 이유로만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적십자의 원칙을 새삼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른체 하거나 머뭇거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이산가족의 만남보다 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다준다 하여도 이분들 이산가족들은 그 어느 누구 한사람도 핏줄의 따스한 손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모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산가족과 적십자 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의 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 이산의 비극이 끝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그리고 오늘 상봉하신 이산가족들이 오래오래 사셔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의 감동을 맞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건배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연합뉴스** 2003. 6. 30 (월)

## <금강산상봉> 북측 만찬답사 전문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장재연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30일 오후 온정각에서 열린 제7차 이산가족 상봉 2진 만찬행사에서 만찬답사를 통해 "여기 금강산에 면회소가 건설되면 북과 남 사이의 인도적 문제들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위원장의 만찬답사 전문이다.

『홍소자 부총재 선생!

북과 남의 가족, 친척 여러분!

나는 먼저 반세기 이상이나 헤어져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그리운 혈육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아울러 동포애의 정 넘치는 자리를 마련해준 남측 적십자사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장장 50여년 세월 쌓이고 쌓였던 혈육의 정을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쳐 놓았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의 감격적인 모습은 이 상봉장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단일성을 폐부로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

외세가 몰아오는 전쟁소동으로 긴장한 오늘의 정세 속에서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여러분들의 상봉은 북남 수뇌분들이 마련해주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귀중한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겨레 모두를 하나로 묶어 세우고 있으며 끊어졌던 나라의 지맥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과 남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 친척들에게도 상봉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온 겨레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소망에 따라 여기 금강산에 흩어진 가족, 친척 면회소가 건설되면 북과 남 사이의 인도적 문제들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겨 실현하자면 6.15공동선언의 기본 이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더욱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바로 여기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세가 변하고 환경이 엄혹해도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대행진을 계속 즐기차게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길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에 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쌓았던 회포를 풀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기 바라면서 우리 겨레 모두가 꿈결에도 바라는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금강산상봉> "뱃길 소모적, 육로 열려야"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7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의 방북에 때맞춰 장마전선이 북상한다는 기상예보와 달리 금강산 지역에는 전날에 이어 1일에도 간간이 이슬비가 내렸지만 상봉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

반세기만의 벅찬 감동으로 금강산의 첫 밤을 설친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개별상봉을 갖고 전날 미처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0..2000년 8월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7번째를 맞으며 상봉 분위기도 점차 차분해져 가는 느낌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30일 저녁 온정각 휴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도 상봉 순간 일부에서 눈물과 탄식이 나오기는 했으나 상봉자들은 2시간 동안의 상봉시간 동안 웃음을 지어가며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에 방문한 472명의 남측 이산가족 가운데 북한의 부모나 자녀, 배우자를 만나는 사람은 10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제자매"라며 "이산가족 1세대가 대부분 80~90세 이상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갈수록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고령자와 함께 방북한 이산가족들은 뱃길을 이용한 금강산 방문이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소모적이라 육로 이용이 빨리 정착되기를 바랐다.

한 이산가족은 "서울에서 차를 몰고 속초에 도착, 방북교육을 받고 하룻밤을 잔 뒤 4시간 넘게 배를 타고 장전항에 도착한 다음 다시 곧바로 금강산 지역으로 이동해 이산가족을 만나는 일정은 80,90이 넘은 고령자들에게는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90세가 넘는 한 남측 상봉자는 만찬 도중 심장에 이상을 호소, 의료진들로부터 긴급 진찰을 받기도 했다.

동해선 임시도로가 개통될 경우 속초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시간은 40분으로 단축되며 승.하선 절차도 각각 1시간 정도도 단축될 수 있다.

0..첫날 만찬이 끝날 무렵 북측 이산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향의 봄'이나 '우리는 하나', '반갑습니다' 등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남측 가족들은 일부가 따라 춤을 추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지켜보기만 했다.

북측 관계자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음주와 가무에 능하지 않았다. 술이 들어가고 기분이 좋으면 춤과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이를 북한의 정치선전으로 보는 시각을 일축했다.

그러나 온정각 만찬장에서 버스까지 20여m 거리를 "조국통일"을 연호하며 팔을 휘두르는 모습에 남측 가족들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

0..맹형규 의원(57.한나라당)은 첫날 만찬 도중 자리를 옮겨 같은 맹씨인 맹우 일(75)씨 가족과 잠시 환담을 나누기도.

맹 의원은 "금강산으로 오르는 배 안에서 종씨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며 "상봉장에서 같이 만나면 좋겠다고 요청해와 잠깐 시간을 냈다"고 말했다.

0..첫날 상봉을 마친 남측 이산가족들은 숙소인 해금강 호텔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도록 숙소 주변에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

이들은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거나 "가족들이 북측 안내원을 민감하게 의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고 첫날 상봉의 소감을 밝혔다.

0..북측 언론 기자와 적십자 요원들은 남측 취재진과 지원단에게 "특검을 또 한 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거나 "미국의 봉쇄정책에 남측도 동참하느냐"면서 남측 동향을 물었다.

"북에 정말 핵무기가 있는 것이냐"는 남측 기자들의 질문에 북측 기자들은 "건 강을 위해 몸을 단련하듯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국방력이 중요하다"거나 "조선왕조 나 이라크가 힘이 없어 망한 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에둘러갔다.

(끝)



2003. 7. 1 (화)

## <7차 이산가족 상봉 성과와 과제>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내실있게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남북간의 상봉으로는 처음으로 남측 방문단에 동행가족 10명이 포함돼 사실상 상봉 이산가족이 110명으로 늘어난 것은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줄 가족을 동반시켜야 한다며 남측이 북측에 강력히 요구해 얻어낸 결과이다.

이번 상봉에 100세 이상 고령자 3명이 포함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의 절박성과 시급성이 널리 알려진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처럼 비교적 많은 고령자가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당초 북측이 보내 온 생사주소확인 결과가 방문단 100명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 이번 상봉 후보자가 아닌 이미 가족의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중 고령자를 중심으로 뽑은 결과라는 점에서 북측의 보다 성의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상봉기간중 남측 단장으로 방북한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북측의 장애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과 만나 추석을 즈음해 400~500명 규모의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 그 결과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상봉기간 북측 이산가족의 정치적 선전이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변화라는 설명이다.

한적 관계자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은덕을 지나치게 강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산가족들이 이번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지 않으면 정치선전을 거의하지 않았다"며 "몇 차례 행사를 통해 북측도 유연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게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남북자, 국군포로 등 이른바 특수이산가족들의 상봉이 보다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피해자인 이강삼(76), 강경순(75) 할머니가 상봉단에 포함돼 남북 아들과 남북 남편의 소식을 들었지만 정부와 한적이 생사주소 확인을 의뢰한 국군포로 5명에 대해 북한은 '확인불가'를 통보했다.

남북 양측이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6.25전쟁 당시 행방 불명자들의 생사 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하기로 한 만큼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벤트성의 일회적 상봉이 아닌 정례화된 제도적 만남을 이루기 위해 면회소 설치가 시급함에도 그 규모를 둘러싼 남북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는정도 아쉬운 부분이다.

jyh@yna.co.kr

(끝)



2003. 7. 1 (화)

## <금강산상봉> 이산가족 개별상봉 후 삼일포 나들이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은 금강산에서의 이틀째인 1일 오전 개별상봉을 갖고 삼일포 나들이로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남측 상봉단의 일부 고령자들은 전날 4시간여 동안의 항해후 가진 단체 상봉 등 빡빡한 일정으로 피로감을 감추지 못했다.

남과 북의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관동팔경의 하나인 삼일포를 거닐면서 곳곳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소풍온 기분으로 돛자리를 깔고 정담을 나눴다.

남측 상봉단은 당초 최근 내린 비로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삼일포행이 가능해지자 "잘됐다"면서 반가워했다.

김정숙휴양소에서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 오찬은 평양 해방산여관 소속 여성봉사대의 환영으로 시작했다.

---

휴양소 정문에 도열한 북쪽 미녀 30여명은 남측 이산가족이 입장하자 두줄로 도열해 북측 가요 '반갑습니다'에 맞춰 박수를 치며 남측 가족들을 맞아들였다.

이날 오전행사는 북측 시설에서 처음으로 열린 행사여서 우리측 이산가족들의 관심이 더 컸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오찬이 시작되자 밥을 먹기 앞서 김정숙휴양소 건물 안과 밖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남측 숙소인 해금강호텔에서 오전 10시부터 이뤄진 개별상봉에서 남북 가족들이 전날 밤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남측 상봉단 최고령자인 김용연(99) 할머니는 이날 아침에도 끝내 북의 아들 김경중(72)씨를 알아보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아침 10시 남측 숙소인 해금강 호텔의 모친방을 찾아온 경중씨는 김 할머니 귀에 대고 "어머니, 지난 밤에 편안히 쉬셨습니까" "큰아들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그러나 아들 쪽을 잠시 바라보고 기침을 할 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중씨는 "취재진이 나가고 차분한 가운데 큰 절을 올려야겠다"며 "어젯밤 어머니 만난 기쁨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중씨는 또 "제주도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어머니께서 두부 2모를 들고 오셔서 먹여주시던 기억이 난다"며 옛기억을 더듬기도 했다.

큰아들 김윤배(71)씨를 만난 최순달(93) 할머니는 연방 "감사합니다"라고 되뇌면서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직까지 잔병치레 한번 하지 않았던 최 할머니는 심한 뱃멀미와 아들 상봉으로 인한 충격 탓인지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터였다.

남편 리규태(76)씨와 재회한 곽호임(73)씨도 첫날 상봉의 충격으로 밤새 고열로 시달리다가 잠시 실신하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리씨는 선물보따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서자 곽씨는 창백한 얼굴에도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남측 가족들이 두 부부의 결혼사진을 꺼내보이며 "이때 생각 나느냐"고 말하자 리씨는 "호임이는 내가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53년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단 말야"라며 지나온 별리의 세월을 돌아보는듯 했다.

개별상봉과 삼일포 나들이로 하루를 보낸 남측 이산가족들은 이날 저녁 숙소인 해금강 호텔로 돌아와 금강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상봉단 2진은 2일 오전 온정각 마당에서 작별상봉을 갖고 장전항에서 속초항으로 출발, 2박3일의 짧은 상봉일정을 마친다.

(끝)

## <금강산상봉> 상봉2진 개별·참관상봉 이모저모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한 남측 상봉단 2진은 1일 개별상봉과 삼일포 나들이를 하는 등 행사 이틀째 일정을 보냈다.

0...간간이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삼일포 나들이에서 남북의 가족들은 곳곳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당초 최근 내린 비로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 이날 오전까지 삼일포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오후 들어 현지를 답사하고 돌아온 북측이 방문을 허용해 이뤄졌다.

0...오찬장인 북측 김정숙휴양소에서는 입구에 주최측에서 담배와 술 판매대를 차려놓고 남측 이산가족과 지원 인원들을 상대로 판매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아산에서 운영하는 온정각 휴게소에 비해 상품 가격이 훨씬 싸 행사내내 장사진을 이뤘다.

판매품은 금강산, 평양, 인삼담배, 내고향 등 담배가 갑당 1달러에, 백두산 들쭉술과 도토리꿀술이 병당 10달러에 판매됐다.

또 상봉장 안쪽에서는 옥류민예사 소속의 북한 유명 인민화가들의 작품을 벽면에 전시하고 이산가족을 상대로 판매하기도 했다.

남측 가족들은 북측이 제공한 딸기단물(딸기음료)과 평양소주를 섞어 즉석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기도 했다.

0...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 중 최고령인 김용연(99) 할머니의 큰 아들 김경중(72)씨는 이날 오전 숙소인 해금강 호텔을 찾아와 개별상봉을 가졌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김할머니를 모시고 온 막넛동생 성중(69)씨가 제주도 사투리로 "어머니 큰 아들 경중이 왔수게"라고 얘기해도 모친은 알아듣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이에 머쓱해진 성중씨는 "어머니께서 `아들을 만났다면 왜 아들네 집에 가질 못하냐'며 영문을 몰라하신다"며 "형님이 큰절이라도 하셔야 실감하실 것 같다"며 절을 권하기도.

0...최순달(93) 할머니는 연방 "감사합니다"라고 되뇌면서 큰 아들 김윤배(71)씨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나무를 베어오고 소꼴을 먹이는 등 집안일을 혼자 다해오던 든든했던 아들의 옛 모습을 그리는 듯 했다.

---

최할머니는 딸 순대(70)씨와 순례(57)씨의 얼굴을 못알아 보고 한때 실신까지 하는 등 기력이 쇠한 모습이었지만 해금강호텔 객실로 아들이 들어오자 한눈에 알아 보았다. 눈가에는 그렇그렇 이슬이 맺혔다.

윤배씨는 "어머니를 항상 기억해왔다"며 "나는 여기에서 아들만 넷을 낳았고 자식들 모두 잘 살고 있다"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윤배씨의 동생 성배(62)씨는 "어머니는 항상 형님이 총명하다고 얘기해오셨다"며 "어머니는 옛날 형님을 업고 들북에 나가 일한 뒤에는 젖이 모자라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고 말했다.

윤배씨는 한국전쟁이 난 뒤 의용군으로 나가 소식이 끊겼다. 백방으로 찾아도 윤배씨의 소식을 알길 없던 가족은 이미 30년전에 사망신고를 했었다.

그러다 윤배씨가 남쪽의 가족을 찾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가족 모두 상봉만을 기다려왔다.

윤배씨는 동생들에게 "너희가 (남쪽에) 돌아가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며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당부하면서 어린시절 고향에서 함께 지내던 단란했던 가족사의 깊은 추억으로 빠져들었다.

(계속)

---



2003. 7. 1 (화)

## <금강산상봉> 북, 취재진용 국제전화선 차단 소동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7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의 금강산 방문 이틀째인 1일 오전 개별상봉에서 북측은 남측 취재진이 당초 취재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객실을 출입한 것을 이유로 TV 위성송출과 기사송고용 국제전화선을 3시간30여분 동안 차단했다.

북측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북과 남이 취재대상을 각각 다섯가족으로 한정하기로 한 사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측의 사죄를 요구했고, 남측은 북측 관계자가 실랑이 와중에 남측 기자의 취재계획표를 빼앗아 간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굳이 사죄를 요구하면 남북이 동시에 하자"고 맞섰다.

북측은 사태발생 직후 국제전화선을 차단했지만 오찬행사 이후 남북양측이 모여 "뜻깊은 행사인 만큼 작은 일로 서로 다투지 말자"고 서로 화해함에 따라 오후 2시께 국제 전화선을 다시 연결했다.

(끝)

---

## <금강산상봉> 7차 이산 상봉 막내려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남북 이산가족 2진 상봉단이 2일 오전 금강산에서 작별상봉을 끝으로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침으로써 지난달 27일부터 1, 2진으로 나누어 진행된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막을 내렸다.

남측 상봉단 2진인 472명은 이날 오전 9시 금강산 온정각에서 북측 가족 100명과 1시간 동안 해후, 짧은 만남 끝에 찾아온 긴 이별을 아쉬워했다.

당초 온정각 앞마당에서 가지려던 작별상봉은 강한 햇빛 때문에 고령자들의 건강을 고려, 실내에서 치러졌다.

남측 가족들은 첫날 단체상봉과 환영 만찬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북측 가족에게 건넸고, 일부에서는 전날 챙기지 못했던 선물 등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했다.

드디어 북측 가족들을 태운 3대의 버스가 온정각에서 출발하자 남측 가족들은 아쉬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멀어져가는 부모, 형제, 자매에게 작별을 고했고 이에 북측 가족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두 차례의 상봉과 식사, 삼일포 나들이를 통해 만끽했던 재회의 기쁨이 혈육을 떠나보내는 탄식과 눈물로 바뀌었다.

북측 상봉단장인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올 추석에 500명의 대규모 상봉단을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 남측 기자들로 부터 질문을 받자 "지금 협의중에 있으니 까 잘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북측 남편 리규태(76)씨를 상봉했던 남측 아내 곽호임(73)씨는 이날 작별상봉을 갖지 못하고 실신해 육로로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후송됐다.

이산가족이 구급차를 타고, 육로를 거쳐 후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진 관계자는 "할머니의 상태가 도저히 배 편으로 옮길 상황이 아니어서 북측과 긴급협의, 육로수송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측 상봉단 2진은 장전항에서 설봉호편으로 출발해 오후 4시께 속초항에 도착, 해산한다.

앞서 상봉단 1진 이산가족 110명(보조요원 포함)은 지난 27일 금강산에 도착, 북측 가족 218명과 만났다.

(끝)

## <금강산상봉> 작별상봉장 울음바다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어머니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여보 잘 가시오" "통일될 때까지 사셔야 합니다"

떠나는 혈육도, 남은 혈육도 모두 울었다.

2일 오전 제7차 이산가족 상봉단 2진의 마지막 날 작별상봉이 벌어진 금강산 남측 온정각 앞마당은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찼다.

지난 이틀간 교차된 기쁨과 슬픔속에서 심신이 쇠약해진 일부 고령자들은 끝내 작별상봉을 갖지 못하기도 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0..남북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이 채 못되는 짧은 시간동안 온정각 작별행사장에서 마지막 작별상봉을 가졌다.

작별순간이 다가오면서 북측 가족들이 온정각 앞마당에 주차돼 있는 3대의 버스에 오르기 시작하자 남측 가족들은 따라나가면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남측 가족들은 버스를 따라가거나 발을 동동 구르며 시야에서 멀어지는 혈육의 얼굴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온정각과 김정숙휴양소를 가르는 5m넓이의 도로는 '단장(斷腸)의 휴전선'이 됐다. 김정숙휴양소의 철책은 이들의 가슴속에 또 한 번 분단의 슬픔을 새겼다.

0..남북 가족들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부모와 형제, 자매, 아내 등에게 서로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사진을 교환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정을 나눴다.

북측 리규태(76)씨는 53년만에 재회한 남측 아내 곽호임(73)씨가 이틀간 상봉의 충격으로 작별상봉에 나오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왜 그러냐. 어디야 아프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남측 조카 이재호(64)씨는 "아침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온정각까지 오는 차 안에서 쓰러지셨다"면서 "첫날부터 이산의 충격이 컸던 것 같다"고 말끝을 흐렸다.

곽씨는 남편이 도착하기 직전 건강상태가 악화돼 현대 금강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던 곽씨는 이날 작별상봉을 위해 온정각에 오는 과정에서 실신했다.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혈압과 심전도를 확인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는데, 검사결과 혈압은 40~70으로 급격히 내려갔다.

---

곽씨는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배편으로 옮길 상황은 아니어서 육로를 통해 남쪽으로 후송됐다.

0..북측 김경중(72)씨는 마지막날까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김용연(99) 할머니에게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라며 대답없는 문안인사를 드렸다.

경중씨는 삼일포 나들이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 둘 넘겨보며 "가져가서 애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경중씨는 이어 "우리나라 풍습은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인데 셋째 동생이 모시고 있어 고맙기만 하다"고 말했다.

0..북한 인민배우 유경애(83)씨는 동생 경희(81)씨가 자신이 쓰던 스카프를 목에 둘러주자 "네 체취가 배어 좋구나"라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북측 큰 외숙부 김홍정(68)씨를 만난 최대선(30)씨는 선물로 전달한 약병의 모양을 일일이 그려가면서 복용방법을 설명, 건강을 기원했다.

남측 동생 홍건식(62)씨는 북의 형 관식(76)씨에게 전날 사준 돌보기를 직접 키워주며 "이걸 쓰면 다 잘 보이실 것"이라며 앞에 놓인 음료수 캔의 글씨를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0..앞서 1일 삼일포에서 북측 조선적십자의 장재언 위원장은 남측 홍소자 단장(대한적십자 부총재)과 함께 이산가족들의 참관상봉을 둘러보던 도중 부친을 모시고 온 맹형규 의원(한나라당)을 찾아가 악수를 했다.

장 위원장은 맹 의원의 귀에 대고 "한나라당이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고, 맹 의원도 활짝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끝)



## <금강산상봉> 끝내 쓰러진 곽호임 할머니

---

(금강산=연합뉴스) 공동취재단 = 52년간 수절후 꿈에 그리던 북쪽 남편을 만난 남의 아내가 만남의 충격으로 작별상봉도 못한 채 쓰러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제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마지막날인 2일 곽호임(73)씨는 작별행사장으로 향하던 버스안에서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는 심적 부담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속에서 남편 리규태(76)씨를 보내야 했다.

곽씨는 이날 오전 9시 온정각 휴게소 작별상봉장에 도착하자마자 구토를 하며 정신을 잃어 휴게소 옆 현대아산 금강산 병원으로 후송, 응급치료를 받았다.

긴급히 병원에 후송된 곽씨는 혈압이 40-70으로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이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체크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했다.

강우식 금강산 병원장은 "곽씨가 아침에 혈압과 맥박이 감지되지 않는 등 상황이 심각했지만 후송당시에는 응급처치해 의식을 회복했다"며 "하지만 협심증의 초기 단계로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육로로 긴급후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가 이틀간의 상봉 충격으로 작별상봉장에 나오지 못한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 리씨는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고 걱정하다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리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괜찮아, 괜찮아"를 되풀이하며 안타까워했다.

리씨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괜찮아야 할텐데..53년만에 만났는데 마음이 찢어진다"면서 남측의 조카 3명을 끌어안고 눈물을 왈락 쏟았다.

남측 조카 이재호(64)씨는 "아침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온정각까지 오는 차 안에서 쓰러지셨다"며 "첫날부터 만남의 충격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곽씨는 이날 아침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금강산에서 죽겠다"고 말해 주위의 눈시울을 적셨다

(끝)



---

사 설 · 칼 령



## 사설

### 위기일수록 남북 만남 이어져야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1진이 헤어진 가족들과 눈물의 상봉을 한 데 이어 오늘부터 2진이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난다. 100살 넘은 남쪽 어머니가 할머니가 된 딸을 부둥켜 안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젖게 했다. 갖가지 사연이 담긴 이들의 헤어짐과 만남은 반세기 넘은 민족 분단의 아픔을 너무나 극적으로 드러낸다.

남북 적십자사는 추석 즈음해 제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지금보다 규모를 크게 늘려 추진하자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나이가 많아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는 이산가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일은 없다. 이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남북 책임자들이 가장 무겁게 느끼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산가족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면회소를 규모 문제 따위로 견해가 엇갈려 짓지 못한다는 것은 남북 두루 부끄러워해야 한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가 큰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이어지고, 사사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북한이 옛그제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규정과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기업창설 운영규정 등을 발표한 것은 남북 협력을 촉진시킬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남북은 오늘 개성공단 착공식을 열 예정이어서 남쪽 기업들의 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비록 한반도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럴수록 남북 교류와 협력이 긴밀해져야 위함을 줄일 수 있다.

북-미 제네바 합의의 바탕목인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룰 방침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임이분명하다. 미국의 압박과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 그 가운데 끼인 우리 처지도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북-미 갈등을 줄이는데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

이진곤 칼럼

## 이산의 고통 언제까지



수석 논설위원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오늘로 마감된다. 반세기 너머 저쪽에서 가물거리던 피붙이를 만나, 낯설어진 얼굴을 비비고 쓰다듬으며 우는 정경이 애처롭기 그지없다. 지켜보는 것조차도 단장(斷腸)의 형벌이다. 2박3일, 서너 차례 정해진 시간에 만나 울고 웃다가 헤어지고 나면 그뿐, 언제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

“가자! 가자!”

아랫방에서 또 어머니의 그 저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칠년을 두고 들어와도 전혀 모를 그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

이범선의 ‘오발탄’ 한 대목이다. 날마다 북녘 고향으로 가자고 조르던 어머니가 6·25 때의 포격으로 아주 정신을 놓아버렸다. 아들 팔도 몰라보고 오직 “가자!”는 외마디 소리만 지를 수 있을 뿐이었다. 1959년에 발표됐다고 전장의 포연이 채 걷히기 전에 쓰인 소설이다.

세월이 가는 만큼 기억은 멀어지게 마련. 그러나 혈육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덜어질 것 같지가 않다. 그러기는커녕 더 아프게 가슴을 애어내고 있을 터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마음속으로는 날마다 “가자!”고 소리치며 살아 왔을 이산 1세대는 이제 시간에 쫓기고 있다.

기실 대부분은 깊은 한을 안고 이미 이승을 떠난 뒤다. 살아 있는 이들에게도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추석에 상봉행사가 열린다해도 그 때를 못 기다려 유명을 달리할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전략...북방 기러기가 슬피 울며 밤마다 날아가면/북방 아이 눈물은 두 줄기

로 떨어진다./등건대 옥문관(玉門關:서역으로 통하는 관문)은 아직 막혀 있는데/아마 목숨 내걸고 경거(輕車將軍:한나라의 이광)를 따라 가리./해마다 전사의 뼈는 변방 밖에 묻히는데/포도만 부질없이 한가(漢家)로 들어간다.”

성당시인 이기(李愼)의 ‘고종군행(古從軍行)’이다(당시전서, 김달진 역해).

수많은 병사가 변방의 싸움에 나가 목숨을 잃고 거기서 백골로 풍화되어 가는 데 그 대가가 포도라는 사실이 어이없고 분노스럽다. 왕이 포도 따위나 얻자고 백성을 옥문관 밖 아득한 변방의 싸움터로 내몰았다는 게 아닌가.

그건 아주 옛날 중국의 이야기라 하고, 남북 분단과 6·25전쟁은 얼마나 고귀한 뜻을 가진 것이었는지 누가 대답쯤 해주시라. 겨레를 동족상잔의 전장으로 또 험육이산의 고통 속으로 몰아낸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들이 수많은 겨레의 목숨과 피눈물로 얻은 건 무엇인지—.

남북 관계가 아주 달라졌다고들 한다. 금강산이 남쪽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고, 군사분계선을 관통해 철도와 도로가 열릴 것을 과거엔 상상이나 해봤느냐는 반문이 당당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게 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놓은 성과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자주 들게 된다. 하긴 남북이 같이 ‘개성공단 착공식’을 개최할 정도가 되었으니 말 그대로 상전벽해다.

그래서 말인데, 남북 양 당국은 서로 잇속 챙기기에 앞서 험육이산의 고통부터 해소해줘야 한다. 특히 북한측은 ‘민

족끼리’나 ‘민족 공조’를 말하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고통 해소책을 먼저 내놓을 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합창하며 목벨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산문제 해결이 곧 통일의 시작인데!

남북 사이의 흐름은 여전히 일방적이다. 길이 뚫렸다고 하나 북측이 필요로 하는 것들의 통로 구실에 그치고 있다. 금강산을 포함, 북한 어디엔들 남북 주민의 자유로운 대면이 허용되는 곳이 있던가. 상호 협력이 강조되지만 북측이 남측을 돕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민족끼리’를 강요하듯 하면서도 정작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걸 틈조차 주지 않는다. 이게 변화의 실상이고 성과의 단면이다.

물질적인 상호주의는 물론 말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정의와 성실의 상호주의는 당연히 강조돼야 한다. 한쪽은 감성으로, 다른 한쪽은 전략으로 만날 때는 또 다른 결변과 원망이 예비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온전히 남북 정상회담 덕분이었다는 것은 남측의 자기 위안일지도 모른다. 북한 체제로서는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따질 것을 분명하게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같등이나 대립의 소지를 줄이는 길이 된다. 이해와 협력이 쌍방향적으로 이뤄질 때만이 민족 재결합은 현실적 희망이 될 것이다.

jingon@kmb.co.kr

## 社 說

### 이산가족 상봉 이대로는 안 된다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끝났으나 이번 상봉에도 끼이지 못한 천만 이산가족들은 다음 추석 때 상봉 규모를 늘린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한을 달라고 있을 것이다.

흩어진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제도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북의 정치적 합의로 한번에서 겨우 수백명만 금강산이란 한정된 장소에서 만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이산가족은 1천만을 헤아리는 데 말이다. 더구나 분단이 반세기가 넘고 보니 대부분의 어른들은 돌아가시고 분단 당시 10대 20대였던 사람들이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형편이다.

군 훈련소의 면회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데 같이 자지도 못하고 헤어져 있던 딸이나 부인이 아버지나 남편에게 스스로 장만한 음식 한 그릇도 대접해보지 못하는 상봉이 무슨 재회란 말인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현재의 7차까지 말고도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꼴이다. 나라가 반공정책을 펴고 있어서 남북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에는 지금과 같

은 상봉행사가 타당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화해를 추구하기 시작하여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북을 돕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날 같은 틀에 박힌 방식으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잘못이다. 헤어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는 형태로 바꾸어져야 마땅하다. 가족들의 살림 형편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선산을 찾아 함께 성묘도 하며 오랫동안 울리지 못한 제사도 지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북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자기 국민에게 알리기 싫고 국민을 압제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색이 남에 탄로될 듯하여 현재의 상봉행사를 고집하고 있는 듯한데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성묘를 위한 고향방문을 허락하고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은 못 만나도록 격리해주면 될 것 아닌가. 북한은 철저히 통제된 사회이니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시장경제를 도입하기위해 경제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자본주의적인 경제특구도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과 성묘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큰 변화일 것이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제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문기사집

---

인 쇄 2003년 8월 5일  
발 행 2003년 8월 5일

발행처 통일부 인도지원국  
(☎ 732-7950)

인쇄처 웃 고 문 화 사  
(☎ 2267-9795)

---

